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본지와 심라만상
그리고 지옥과 천당이여
물건마다 불멸(不滅)의 소식이니
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네.
-보안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성심불사의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다합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법당대불

대표전화 02) 737-8861 구독문의 02) 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7월 19일 수요일(주간) 제 27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다 보면 수많은 쇼핑몰들이 네티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사이트들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재활용품을 사고 파는 알뜰 장터와 경매 사이트.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할 수 있고 구입할 수도 있다. 물물교환 직거래장터도 있다. 대부분의 직거래장터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기 등을 조심해야 하지만 공동구매 역경매 등 믿을만한 경매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대다수의 거래에 네티즌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인터넷 웹 서핑을 통한 알뜰살뜰 생활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경매 물물교환 사이트 활용에 있다.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싸게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네티즌끼리 뭉쳐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 입찰자가 많을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역경매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사이트들의 다양한 전략을 잘 활용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싼 값에 필요한 물건을 손에 쥘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공짜로 주겠다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많다.

알뜰 생활정보 활용

'아·나·바·다' 실천

옥션(http://www.auction.co.kr)에 들어가면 20여개 인터넷 경매 업체의 물품정보 동시 검색이 가능하다. 옥션(http://www.auction.co.kr)의 중고품 교환장터인 '우리들의 중고세상'에는 1만8천여개의 중고상품이 올라와 있다. 컴퓨터에서부터 중고차, 책, 생활용품, 의류, 부동산, 주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교계 쇼핑몰 가운데에서는 108넷(http://108.ne.kr)이 처음으로 물물교환 장터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라 실질적인 물물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교계 쇼핑몰에서도 불교용품 판매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물물교환장터를 개설해 보면 어떨까.

강지연 기자(ygang@buddhapia.com)

대한불교예술원
■ 단집 · 탁자 법당내부 시공 · 수리 전문
■ 목탱화 · 영단 · 대웅전 · 단청 · 탱화 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문화재 500m내 건축규제

문화재청, 시행령 공포…전통사찰 주변보존 조례도 제정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획기적인 법적 조치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사적을 비롯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토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을 10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전체를 문화재 개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재 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4월 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폐지된 것을 사실상 확대·복원시킨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건설공사를 허가하기 이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하고, 건설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500m 밖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범위를 500m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업무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을 정해 이를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영주시와 선남시는 지난 5월 22일과 6월 16일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보존법 6조2항(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영주시와 선남시는 조례에서 △전통사찰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 전통사찰 수행·포교환경 침해 방지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를 기본원칙으로 했다.

정성운 · 오종욱 기자
(swjung@buddhapia.com)

공원제도 개선 시민연대 추진

조계종·참여연대 등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연대'가 구성된다.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재가연대 김희욱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김정수 기획실장, 녹색연합 서재철 부장등과 참여연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10개 시민·환경단체 실무자들은 14일 간담회를 갖고 국립공원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민간단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 시민연대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준비팀을 두기로 하고 조계종총무원, 재가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교육원,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녹색연합 등 7개 단체의 간사 및 실·국장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주부터 창립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다. 창립 시기는 8월초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연대는 국립공원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서명운동, 공청회, 입법청원, 항의집회 등을 열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처염상정' 연꽃이 핀 까닭은 진흙탕 연못속에서 환하게 핀 하얀 연꽃들의 자태가 눈부시다.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인해 '보리심' '청정무구한 불성'을 상징하는 연꽃뭠이 요즘의 시끄러운 세상 때문에 더욱 반갑다. 혼탁한 시비세계에 연꽃이 핀 까닭을 새겨보자. 아산 인춰사=고영배 기자

"민영교도소 수탁기준 명시"

조계종, 법무부에 요청

조계종총무원은 3일 법무부 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포괄적이어서 이후 다른 해석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구체적으로 △수탁자 선정 기준 △수용대상에 대한 기준 △직원의 교육 미이수시 벌칙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정치·경제적인 논리로 무리하게 (민영교도소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면 문제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보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10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정성운 기자

日刊 인터넷 불교신문
Buddhanews.com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 20~22일
에버랜드 · 용주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입문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매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밝은 신심을 갖추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름만하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배우고, 에버랜드 놀이무림에서 생활하며 생겨날 스트레스를 해우로 느끼는 등 방치고 있다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 ~ 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놀이무림 1박)
◇장 소 : 용주사, 역사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준 비 물 : 도시락, 수압복, 수영모자, 갈기도구, 세면도구, 보호
*출발: 20일 오전 10시 조계사 / 도착: 22일 오후 5시 조계사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6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8999 (예금주 : 이성주)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 · 한국종 봉리원 · 조계사 · 하마음선원 · 봉은사 · 삼보사 · 보디회회 · (사)한국불교교화협회자선도회

"종단협내 통일토론회 준비팀 구성"

대북교류 실무자 간담

종단협의회 사무국과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불교추진위의 대북교류 실무자 등은 10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남북불교 통일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종단협의회 차도부와 각 종단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토론회를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되 주관단체인 불교추진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단협의회 내에 종단과 불교단체 관계자 등로 실무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8.15 남북불교도 통시법회도 종단협의회에서 주최·주관해 개최하되, 이른 시일 내에 조선불교도연맹 박대화 위원장 앞으로 메스를 보내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상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힐 것.

공동체본부는 또 "앞으로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는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직행한다"고 조불련측에 알릴다.

정성운 기자

"이른 시일내 만나자"

공동체본부, 조불련에 전문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법안스님과 양산스님은 11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대화 위원장 앞으로 메스를 보내 "이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상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힐다.

공동체본부는 또 "앞으로 조계종의 남북불교교류는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직행한다"고 조불련측에 알릴다.

정성운 기자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의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를 이용하십시오(문의전화 02-737-0090)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奉 祝

제6대 총무원장 덕산당 창법 종사 취임대법회

계수합장하옵고
무한광명이 걸림없이 법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물과 빛이 둘이 아니요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가고 옴도 본래 없지만
새천년을 맞이하여 본종 제6대 총무원장 덕산당 창법종사 취임 법회를 교계 원로 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사부대중이 뜻을 모아 봉행하고져 하오니 공사다망 하신중 바쁘시더라도 부디 법연의 자리에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 일 시 : 불기2544(서기2000)년 7월 20일 목요일
(음력 6월 19일) 오전 11시
⊙ 장 소 : 지 장 암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
☎ 041)733-5629,732-5629
⊙ 문 의 : 02)733-4445~6

■ 증 명 : 금암대종사 일화대종사 정각대종사 환묵대종사
■ 고 문 : 혜우, 혜정, 혜안, 탄공, 무주, 호암, 벽송, 혜봉, 승덕, 가행, 법성, 법선
■ 자문위원 : 법천, 길종, 명진, 회광, 월운, 근원, 도승, 승도, 혜도, 송정, 지월, 원봉, 성학, 창교, 용락, 도명
■ 봉행위원장 : 보명
■ 집행위원장 : 법안
■ 집행위원 : 선종, 자명, 법상, 도광, 도림, 봉안, 무학
■ 봉행위원 : 벽파, 타공, 능허, 혜청, 백운, 현오, 성초, 혜천, 성진, 만성, 일정, 해덕, 해원, 법성, 혜명, 지오, 성오, 자오, 연오, 오현, 성련, 허주, 고산, 혜월, 혜수, 수덕, 명관, 혜월, 도성, 성수, 의정, 성우, 법홍, 도신, 도인, 지담, 홍인, 해송, 성신, 삼혜, 원정, 대연, 무애, 도혜, 경업, 보명, 성각, 도행, 도안, 린각, 지현, 진허, 법진, 도봉, 도명, 고원, 혜성, 법우, 법정, 진원, 청호, 법임, 자운, 법광, 도진, 상원, 보은, 법성, 보원, 광명, 월산, 명오, 수법, 지법, 법현, 도혜, 도담, 혜천, 보성, 보덕, 명안, 현광, 동훈, 월파, 향덕, 도암, 만련, 홍구, 정원, 혜일, 혜진, 지윤, 덕명, 형관, 진오, 법륜, 성원, 지원, 수현, 법해, 축성, 정현, 정오, 보륜, 도은, 수정, 해천, 명호, 법정, 법원, 영봉, 선건, 수힘, 동간, 선광, 혜성, 광운, 법선, 지원, 선태, 지업, 의선, 여산, 정덕, 만종, 지광, 혜진, 법명, 영암, 서광, 혜정, 월아, 법장, 혜각, 도원, 도광, 진월, 우호, 보현, 심진, 법지, 무등, 혜능, 지각, 혜명, 자명, 보림, 광운, 무공, 수령, 현실, 무진, 정일, 진오, 혜명, 보광, 현진, 법인, 지명, 법정, 지만, 자성, 혜산, 자명, 성후, 명성, 도백, 진성, 덕운, 혜인, 자성, 대원, 정담, 무애, 성원, 보련, 용운, 성인, 법일, 도원, 각원, 혜인, 혜송, 진홍, 도현, 용각, 유각, 청혜, 명각, 지원, 지명, 지산, 성각, 진원, 혜덕, 대광, 이근봉, 영산, 우산, 이종익, 보련, 관음행, 자비행, 선심, 광명화, 혜련, 진이심, 보현, 대덕화, 미타원, 문수행, 제일순, 보현행, 보화, 영림, 선덕화, 언화심, 무량화, 양영옥, 대지화, 보광심, 세안심, 묘화, 석암, 원진, 문수행, 공덕행, 심봉화, 옥화, 무상주, 묘법, 대덕화, 보덕화, 대덕화, 보현행, 보광월, 관음행, 연화, 보광심, 자비행 (무순)

불기 2544년 7월 일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제6대 덕산당 창법 종사 총무원장 취임 봉행위원회
봉행위원장 보 명 합장

"선원 안거·봉사명령 등 자유형 징계 도입"

조계종 '징계제도 개선' 세미나서 제기

승려 징계제도에 선원 안거, 봉사활동 명령 등의 자유형 징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종지스님과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대원스님은 19일 열리는 '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자유형을 부분적으로 도입, 징계 효율성의 제고와 참회 기능을 확대해 승려로서의 자질을 향상하게 하여 종단에 복귀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자유형 징계의 부분적 도입을 주장했다. 종지스님은 발표문에서 참회형, 교육형, 봉사형 징계 등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종지스님은 자유형 징계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징계 후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징계자의 거주지 신고제'의 시행을 제안하고, "현재 정보업무와 징계자 관리업무를 내규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징계자 거주지 신고제는 6개월(또는 1년) 단위로 수행장소(거주지)를 본사 또는 호법부에 서면 신고→호법부 확인, 관리→사면·복권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징계자 관리 방안이다.

대원스님은 "현행 징계 관련 법령이 산재해 있고 징계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령 간의 충돌, 임의 해석과 남용이 우려된다"며 단일 징계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원스님은 또 사면법을 제정해 사면 및 경감의 대상, 심사 기구, 절차와 방법, 통지 및 인사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가 주최해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지광스님(중앙종회의원)이 '가톨릭 및 불교계 제 종단의 징계제도 비교 검토', 장규원 교수(원광대 경찰행정학과)가 '사회내 처우를 통한 피징계자의 관리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세영스님(중앙종회의원) 성옹스님(초심호계위원) 지관스님(송광율원 율감) 이운호 교수(경기대 교정학과)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주제발표 3면>

그동안 징계와 관련해 형평성, 징계 후 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가운데 열리는 세미나여서 관심을 모은다. 종회 호법분과위원회는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관련 법 제·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김포학사 9월말까지 재시공"

승가대대책위, 풍림건설에 요청

중앙승가대 김포학사가 9월말까지 부실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통해 준공된 뒤, 올해 내 입주될 전망이다.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0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갖고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시공사인 풍림건설에 9월말까지 재시공을 요청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는 9월말까지 도면과 상이한 부분과 부실 시공된 부분은 재시공한 뒤 준공받아 올해안에 입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과 설계변동으로 발생한 약 75억원의 감액처리와 관련해 대책위는 입주 후 시공사와 협상키로 했다.

대책위원장 영담스님은 "근본적으로 부실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해 놓고 입주해야 한다"며 "만약 부실시공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와 감리단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의 부실부분은 현재 100가지가 파악된 상태며, 특히 문제가 심각한 지하층의 경우 건축법상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기시설이 없는데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해인사 보선 불인정"

조계종 중앙선관위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명)는 11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69차 회의를 열고 해인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일정을 재공고하도록 통보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2교구 해인사 중앙종회의원(직선 1명) 보궐선거 공고를 검토한 결과, 선출방법 및 입후보자 자격요건 등 전체적으로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며 종회의원선거법 및 관련 종법을 지키지 않는 선거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정성운 기자

동국학원 자료 거부 논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국학원의 자료제출 및 보고 거부의 건 △동국대 운영현황 보고 △종립학교 소속 교역직 종무원(임직원, 교수)의 종헌·종법 위반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동국대 운영현황 보고와 관련, 송석구 총장의 출석을 14일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60% 공정을 보이고 있는 골굴사 선무도 대학원 대학 본관 상량식이 8월14일 개최된다.

선무도 대학원대학 2002년 문 연다

경주 골굴사, 14일 대학본관 상량

불교의 대표무술인 선무도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선무도 대학원 대학이 설립된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선무도 대학원 대학 설립추진위는 8월 14일 오전 10시 대학 본관 건물 상량식을 개최한다.

200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선무도 대학원 대학은 '원효대사의 화쟁사상과 대승불교관 확립'을 건학이념으로 선무도학과와 선기공학과 등 2개학과를 개설, 매년 40명의 선무도 전문석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선무도 대학원 대학 설립추진위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3층(300평)규모의 본관건물과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층 3백평규모의 기숙사가 완공되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학교법인 설립 및 교육부 공식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무도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적운스님은 "불교의 대표무술인 선무도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재배출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선무도 사범 파견을 요구받고 있다"며 "2002년에 정규 대학원으로 교육부 정식인가를 받아 매년 40명의 선무도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선무도 대학원 대학이 들어설 골굴사는 16년전 적운스님이 포교의 방편으로 참선에 관련된 선무도 실천수행법을 일반에 공개한 후 4년전부터 특별한 기획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에서 선무도 수련생들이 365일 몰려들면서 현재까지 6만여명의 수련생을 배출했다.

선무도대학원 대학원 대학 설립추진위는 부설 사회교육원도 설립해 매년 골굴사 선무도 수련에 참여하는 1만5천명을 불교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수련교육 한다는 방침이어서 불교포교에도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선무도대학원 설립추진위원회는 먼저 올해 말 1차로 조계종단에 불교교양대학 설립인가를 득한 후 대학원 대학 개교에 앞서 2001년에는 불교학, 원효사상, 체육학, 기초한의학, 외국어, 전통문화, 기공실기, 선무도 인론과 실기등의 과목을 개설해 지금까지 선무도 수련을 이수한 사범들을 1년간 재교육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동국학원 새 임원 선임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은 10일 동국대 본관 회의실에서 제17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에 영배(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스님, 감사에 향적(조계종 중앙종회의원)스님과 무관(해인사 유나) 스님을 각각 선임했다.

새 임원들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이사는 전임 이사(현근 스님·전 조계사 주지)의 잔여임기를, 감사는 정관에서 규정한 2년을 역임한다.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재무재표' '회의록' 공개 등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논의가 되었으나,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이사회에는 벽파스님과 권노갑씨를 제외한 10명의 이사들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지리산댐 반대 100만인 서명

20일부터…8월11일 150개 단체 '지리산문화제'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이 날로 힘을 얻고 있다.

함양·산청·남원불교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함양댐백지화대책위, 산청덕천강댐백지화대책위는 공동으로 8월11일 오후 6시 경남 함양읍 상림공원에서 '지리산 살리기·댐 백지화를 위한 지리산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문화제는 식전 사물놀이, 지리산 예찬시 낭독, 대금 공연, 이애주 교수 춤 공연,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낭독, 국악 한마당(조상현), 단막 꽁트(전유성), 연애인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한편 '지리산댐 백지화 국민행동'(가칭)은 14~15일 실상사에서 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현장답사를 실시하고 조직 구성 및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차주상보> '국민행동'에는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 범불교연대' 산하 50개 단체,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산하 31개, 시민단체협의회 산하 69개 단체 등 모두 15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또 '지리산 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연대'는 대국민 호소문을 작성, 20일부터 '국민행동'과 연대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일은행 본점에 지리산 사진 전시회와 상설 서명대를 운영하고 전국 사찰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가야산 순환도로 중지"

조계종등 재정신청

조계종총무원과 지리산 살리기·댐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는 10일 가야산 순환도로(국가지원지방도로 '59호선) 건설중지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재위원회에 냈다. 재정신청서에서 총무원 등은 "도로 개설로 인해 가야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건설 계획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 범국민-종교기구로 확대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는 12일 서울 생명나눔실천회 회의실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어 오는 11월로 잠정 예정된 달라이 라마 방한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범종교·국민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한준비위는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김수환 추기경, 강원룡 목사를 상임고문에 추대하는등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종단협의회와 다른 종교·시민단체의 대표와 실무진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초청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방한 행사로는 학술심포지움과 대국민 강연회, 불교법회등을 마련 하기로 했다.

방한준비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조계종 총무원에 보고하고 조직과 인원 동원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신도교육 방향' 공청회 연다

20일, 조계종 불교회관

신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20일 오후 2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신도교육의 현실과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조계종포교원과 종회포교분과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신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신도교육의 방향' '신도교육제도 방안에 대하여' 등의 주제로 박경준(동국대)교수, 지현(포교분과위원장), 상훈(포교국장)스님이 발표한다.

또 종회(종회의원 지광스님), 불교대학(법장불교대학장 법장스님), 학계(동국대 김성철교수), 신도교육준비위(박영동 교법사), 교육원(교육부장 계성), 사찰주지(정법사 지태스님), 미등록 불교대학(화엄불교대학 보각스님), 본사포교국장(범어사 지종스님)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포교원 김병주 계장은 "한국불교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신도교육이다"며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올해 계획되어 있는 신도 교육 체계화와 신도 교육 교재 발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환경소위 구성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예산과 조직 구성, 인력 보강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환경위원회 준비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여연스님과 사회부장 양산스님, 기획실장 일철스님, 종회의원 법안 종림 현응스님 등은 13일 환경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현응스님, 법안스님,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전형근 사회과장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서 환경특별분담금의 신설, 상근실무간사 임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운 기자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실크로드 불교 문화탐방 여행 8日 ₩1,349,000
· 일 정 : 서울 - 서안- 양관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7/28, 8/4, 11,18
■ 5천년 중국 문화의 고도 - 서안 -
■ 불교 벽화예술의 정수 - 돈황 -
■ 황량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 우루무치 -
※단체로 신청 하시면 혜택이 있습니다.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 길을 따라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승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쿤자랍까지...
전문 안내인과 함께 다녀오십시오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자 보험
· 출 발 일 : 7/31, 8/7 (10명이상 출발)

Tibet
인기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쩌-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룸비니,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목어

미국의 폭력과 주권침해

미국은 진정 우리의 우방이며 자신할 수 있는 인권보장 국가인가? 아니면, 한국을 무단 점령한 점령군인가? 매향리 미군 사격으로 유린당한 기사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월 10일 공개된 미국의 주둔군지위개정협상(SOFA) 시안은 굴욕적인 주권침해이다. 미주둔군의 범죄행위가 터질 때마다 과연 이 땅이 누구의 땅이며, 저들이 왜 왔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강간, 살인, 폭력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수시로 저질러도 미군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닭 쫓던 개꼴이다. 한국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미군쪽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신병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SOFA협정이 한국사법권의 상위법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뜻하는 것이다. 자치국가 관할 내에서 범죄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탈취하는 안하무인적인 행위다. 더구나 미국군의 미결 피의자들을 위한 유치수용시설을 미국 유치장 수준으로 별도 신축하라는 억지는 한국의 주권을 완전 무시한 행위다.

대한민국은 미국 땅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치욕을 느끼고는 있는지, 아니면 대처 능력조차 없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니건자경〉(尼乾子經)에 있는 말이다.

"왕이란 백성의 부모로써 도리에 의해 사람을 거두어 보호하며 편안케 해주는 까닭에 왕이라 부른다. 왕은 백성을 위주로 하여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민심이 안정되지 못할 경우 나라 또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왕은 의당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실정을 잘 파악하고 보살펴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조상이 소중히 가꾸어 온 주권국이다. 국민의 고통과 치욕에는 아랑곳없이 명예나 이익에 끌려 다니며, 과시적 행적이나 실속 없는 외교 정책으로 국가 경영을 한다면 피폐되는 것은 국민이요, 망하는 것은 국가일 뿐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적 긍지를 회복하는 소신있는 정부를 국민 모두는 염원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며,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공존을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지 답답한 심정으로 직접 묻고 싶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 본지 논설위원)

'응징 위주 법 개선' 본격 논의

조계종 호법분과위 '징계제도…' 세미나

징계제도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대원) 주최로 19일 열리는 '징계제도 및 징계자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유형 징계의 도입, 관련 법의 제·개정 등의 주장이 제기돼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징계제도에 대해서는 징계 유형의 모호함,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많은 관련법, 응징 위주의 법집행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됐으며, 이에 따라 징계는 또다른 분란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제도의 문제보다 승가 본연의 모습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잃어버린 데서 분란의 원인을 찾고 있다. "징계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없이는 징계제도의 개선 논의는 언제까지나 해답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데서 논의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된 발표문을 통해 징계제도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징계원인 근절…계도 목적 강화"

"교구 호법국 활성…관찰관제 검토"

●…종단에서는 수차례 사면·복권을 통하여 징계가 진행중인 승려에 대한 종단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주로 서류상의 관리를 중심으로 징계내역의 기록 및 유지 관리를 통해 공직취임제한 등의 자격제한이 주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징계자의 수행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징계자를 일정 기간 특정한 지역과 장소를 한정하여 참회, 교육, 봉사하는 부분적인 자유형을 채택하는 것이 종교적인 형태의 징계제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회형 징계는 제적 등 중징계자 중 참회를 통해 비위행위를 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징계자에 대하여 지역과 장소를 지정하여 간경, 기도, 염불 등 일정 행위를 강제하는 과정을 부과하는 것이다.

교육형 징계는 공권정지 징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강원 교육, 안거와 같은 종단에서 지정하는 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승납이 낮거나 사미승 또는 과실범, 우발적 행위범에 대하여 종단이 수탁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이나 무연고 노스님에 대한 봉사, 폐사지나 사적지 관리 등을 맡기는 봉사형 징계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징계자 관리를 위해서는 징계자 스스로 거주지 및 현재의 수행 현황, 성과, 반성 정도를 종단에 보고하는 관리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구 호법국의 활성화도 뒤따라야 한다. 종지(조계종 호법부장)

●…징계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종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련 종법의 정비가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징계 관련 법령의 구체성 확보이다. 구성원들이 이의 없이 승복하고 따를 수 있고, 임의적인 해석과 남용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단일 장계 법령의 제정이다. 징계와 관련한 원칙이나 방향, 유형, 해당 사항, 징계의 집행과 관리, 소송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종단의 특성상 일반 사회의 자유형의 징계는 아직 많은 문제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징계자 스스로가 본인의 거주지 및 수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형태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교구 호법국에 징계자 관리 실무를 담당케 하면 교구 호법국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징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징계 유형의 모색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징계 유형으로는 의식 및 사중 소임의 제한, 지정 선원에서의 안거, 종단내 봉사활동, 교육 수강 등이 있다.

사면법과 같은 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사면 및 경감의 대상, 심사 기구, 절차와 방법, 통지 및 인사처리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징계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없이는 징계제도의 개선 논의는 언제까지나 해답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징계 원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원(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종교단체는 국가의 형벌 제도와는 다르게 임의성과 신분형 징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고의 징계 수단으로 단체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불교계에서는 '멸빈'이나 '치탈도첩'을, 가톨릭에서는 '파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영구 제명은 원칙적으로 재득도(재입교)를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단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징계 유형으로 공직 취임이나 권리 제한의 수단을 채택하거나, 징계제도를 통해 위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종교단체 징계제도의 공통점이다.

반면, 가톨릭의 징계제도에서는 심리, 번호, 관결 등 전과정을 규정하여 법률의 임의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 있으며, 형사소송 이외에도 행정·민사소송의 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조계종과 비교된다. 성직자는 물론 신자에게까지 징계를 적용하고 있다.

불교계 내에서도 멸빈의 징계시 사찰에서 쫓아내는 기한(5일) 명기(천태종), 공권정지나 근신 견책시 특정 장소를 지정(천태종, 총지종, 원불교), 사면에 대한 규정(태고종, 원불교)을 두고 있는데, 조계종의 징계제도 개선시 참고할 만하다. 지광(중앙종회의원)

●…징계자에 대한 관리 방안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책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전문지식을 갖춘 보호관찰관의 확보는 보호관찰 등의 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가 된다.

형사 제재와 범죄자 처우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다듬어져온 죄지은 자에 대한 제재제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최고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듬어진 제도라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는 복수와 응보가 깔려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반사회에서의 사회내처우(보호관찰 등의 징계)가 예방적·속죄적·재통합적인 기능에서 피징계자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언적으로 주장하기가 주저스럽다. 단지 바람직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장규원(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수행과 연구 둘 아닌 하나인데…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⑳ 선수행론의 정립



서정형
서울대 강사 · 철학

'수행'과 '연구'의 관계가 이전 어떤 시대보다 더 서먹서먹해진 것이 현대 한국불교의 특성이라면 특성이다. 불교사를 훑어보아도 수행과 연구가 제 각각으로 겉도는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혹은 선교일치를 말하고, 혹은 교관겸수를 주장하던 선례가 없지 않지만, 현대에는 아예 수행 전문가와 연구 전문가라는 이질적인(!) 두 집단이 제각기 고유한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지난날과 다르다. 전통사회에서는 수행과 연구를 거의 승가에서 도맡아 왔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역할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스님들이 수행과 연구를 동시에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밖에 제3의 집단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불교의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라는 연구자집단이 등장했다. 서구식 학술중토의 확산과 이식에서 비롯된 것이든, 학술의 자기분화과정이든, 아무튼 불교의 수행과 연구를 독점해 왔던 승가로서는 연구자집단의 등장이 그리 달가울 리가 없을 것이다. (전통 강원교육의 묵수를 주장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의 우려는 자못 심각하다. 수행이 없는 연구는 말잔치로 끝나기 쉬울 뿐 아니라, 자칫 정법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구자집단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곳간 구석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있는 불교라는 이름의 '유물'을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햇빛 아래로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성과 객관성의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전통은 만인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두 집단의 입장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좀처럼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 수행자와 연구자 사이는, 견원지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다지 우애가 돈독한 것 같지는 않다. 양 집단 사이에 놓인 불신의 벽이 이의로 높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수행과 연구(즉 선과 교)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태의 거죽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과 연구(자)의 긴장은 거짓 긴장이다. 아무리 수행을 '배제'하면서 연구만 하려고 해도 연구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의 일부이다. '깨침'은 본래 어원학적으로 '아는 것'이다. 분별지에 근거해서 무분별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연구행위를 배고픈 놈이 밥은 먹지 않고 종일 밥 얘기만 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은 자유지만 수행에는 이미 연구행위의 결과인 나름의 지식체계가 전제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선택은 판단을 요구하며 판단을 위해서는 적든 크든 지식이 필요한 법이다.

요컨대 수행과 연구는 본성상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수행이냐, 연구냐 하는 선택적 질문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수행자와 연구자 공히 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개인적으로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혹은 인간적인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선정수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연구자가 있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혹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행자는 연구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함부로 써서 의미가 변질되긴 했지만 "大道에는 門이 없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이다. 더욱이 중생의 근기는 하도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라서 자율에 맡기는 것 이상의 대안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미 수행과 연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수행자와 연구자라는 두 집단의 분리도 무의미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선 너무 과격한 발언이다.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수행자와 연구자가 서로 상대방의 입지를 존중해주고 상호 이해의 바탕 위에서 참된 의미의 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수행자와 연구자의 대화가 선수행론 정립의 필요조건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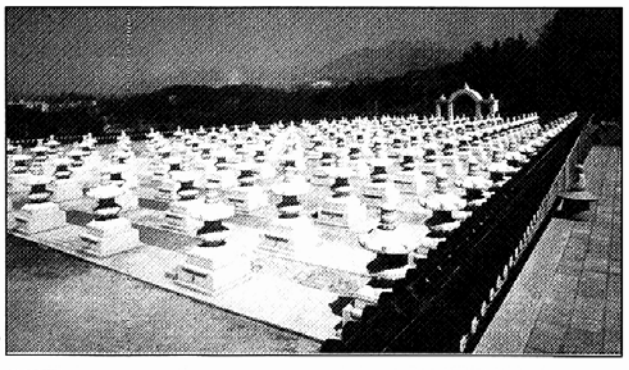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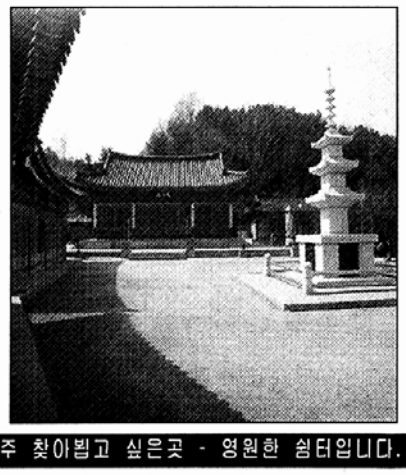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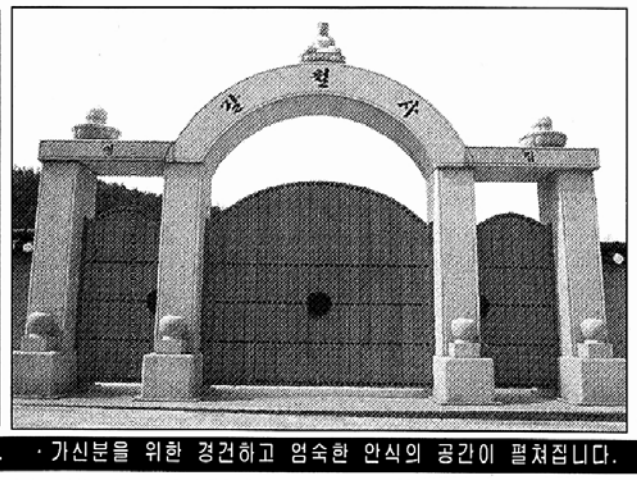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조계종 리영희 교수에 표창장

6·25때 신흥사 경판 불길서 건져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가 6.25때 신흥사 문화재 소실을 막은 공로로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다.

리 교수는 "조계종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기꺼이 상을 받겠다"고 기뻐했다. 표창수여식은 8월 9일 백담사에서 열리는 만해상 시상식과 함께 열린다. 리 교수에 대한 표창 수여는 신흥사의 건의에 따라 결정됐다.

리 교수는 6.25 당시 보병 11사단 9연대 통역장교로 근무중 설악산 전투에 참여하여 신흥사 경판 등의 성보가 소실될 위기에 처한 것을 막았다.

리 교수는 당시 상황을 자서전 〈역정-나의 청년시대〉(창작과비평사)에서 밝히고 있다. 국군이 설악산 일대를 점령한 51년 늦가을 신흥사 경내. "병사들이 몸을 녹이려고 절 안팎 여기저기서 활활 불을 피우고 있었다. 장작이나 나뭇가지인 줄 알았던 불 속에서는 불경 목판이 타고 있지 않은가.… 귀중한 민족의 문화재이니 즉시 불을 끄고 모든 경관을 회수하도록 지시할 것을 종용했다. 일단 불을 끈 후 타다 만 조각까지 본당 좌측에 있는 관고에 차근차근 도로 꽂아놓게 했다."

리 교수는 "우리가 싸우는 중에도 겨레의 '소중한 것'은 하나라도 더 보존해야 한다는 마음이 눈앞에서 부정당하는 행위를 목격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내 심정과 같은 고급지휘관들이 좀더 많았던들 지금은 파괴 소진되어 버린 그 많은 귀중한 사찰이나 불교문화재의 상당한 부분이 보존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일주문

지역 장애인초청 행사



원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스님은 15일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 120여명을 초청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보호장구 전달, 여름철 건강상식 강의, 봉은사 문화예술단 공연 등이 열렸다.

한국차문화 연수 개최

용운 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스님은 29일~8월 1일 김해 한국통신연수원에서 '가락국의 차문화'를 주제로 제12차 한국차문화연수를 개최한다. (02)732-2317~8

교도소교화위 결성보고



원일 대구교도소교화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12일 대구 도안사에서 대구교도소교화위원과 신행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교도소교화위원회 결성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석방환영 법회 참석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스님은 21일 오후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 추진모임'(대표 지원)이 주최하는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에 참석한다.

경주자비원 23일 개원

지담 무심선원 경주자비원 원장스님은 23일 오전 10시 월탄스님을 증명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54)337-7260

'나의 문학세계' 강연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22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는 '지성인을 위한 교보 교양강좌'에 참석, '나의 삶과 문학세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제1회 재가연대 가족캠프



박광서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상임대표는 21~23일 강원도 인제군 신담면 청학사에서 제1회 재가연대 가족캠프를 개최한다. 21일 오후4시 조계사 출발. (02)725-6231

천태종 500리 도보정진 회향



◇종정스님을 대신해 교육부장 도원스님이 완주자들에게 기념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천태종 금강불교대학 총학생회가 주최해 150명의 재학생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며 서울 관문사에서 단양 구인사까지 장장 200km(500리)를 걷는 도보대장정이 9일 오후 2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적멸보궁에서 회향됐다. 4일 오전 서울 관문사를 출발해 5박6일동안 곤지암, 여주, 원주, 제천, 단양 등의 지역을 거쳐 구인사에서 회향한 이번 도보정진에서는 천태종 교육부장 도원스님, 교육국장 덕해스님, 교육과장 수산스님 등과 150명의 남녀 금강불교대 학생들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독송하며 걸음걸음을 옮겼다.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씩 걷는 고행으로 내면의 번뇌를 걸러내며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했다.

이날 구인사 삼보전에서 가진 해단식에서 200km를 완주한 박영갑씨 등 150명은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으로부터 기념메달을 받았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걸은 만큼 통일 빨라졌으면…"

최고령 완주자 장득진·이규도옹

이번 도보정진에서 20~30대 못지않은 건강을 자랑하며 장장 500리를 끄덕없이 완주한 동갑(71세)의 장득진옹과 이규도옹이 단연 주목을 끌었다. 참가자들중 최고령이기도 한 이들은 금강불교대 2학년생으로 지난해에 이어 참가, 젊은이들보다 더한 인내력과 건강을 과시해 박수를 받았다.

"부처님과 상월대조사님의 가피로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고 토로한 두 사람은 "걸은(500리) 만큼이라도 통일을 앞당기고자 하는 일념으로 쉼없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다"고, 특히 이규도 옹은 발에 물집이 잡힌 참가자들에게 수족침으로 치료를 해주며 같이 걸었고 장득진 옹은 이번 도보정진을 위해 평소 매일 6km씩 걷기를 해왔다.



◇참가자중 최고령 동갑인 71세의 장득진(사진 왼쪽), 이규도 옹.

"신도들에게 불교소식 알려요"



Focus

현대불교 불교신문 법보신문 대한불교 등 불 화두와 실천 만해 새얼 불교세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보광원의 법당 들어가는 입구, 교계에서 발행되는 각종 주간·월간지, 계간지, 사보, 회보의 최신호들이 놓인 어른키 높이의 가판대가 마련돼 신도들에게 새로운 불교소식과 부처님말씀을 전하고 있다. 전국 각 사암에는 수많은 신문 잡지 사보 회보들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신도들을 위해 깔끔하게 정렬해놓은 사찰은 드물기에 보광원의 배려가 한층 돋보인다.

이경숙 기자



재가불자 선수행도량 '선문장' 개원식이 13일 7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 소재하고 있는

재가불자 선도량 '선문장' 개원식

선문장은 99년 8월 서울 금강선원(주지 혜거)이 강원도교육청으로 부터 폐교를 임대받아 수행도량으로 개조한 것. 개원법회에서 혜거스님은 "12년간 도심포교를 하면서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을 정화하는 재가불자들의 수행처가 절실함을 느꼈다"며 "참선수행에 뜻을 둔 전국의 재가불자들이 선문장에 들어와 세속의 일상사를 잊고 오로지 자신만을 탐구하고 정화하도록 하는 365일 상설 정진도량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용성스님 입멸 60주기 기념 사상강연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는 9일 대전 자운사에서 용성스님 입멸 60주기 사상 강연 및 민족 평화통일 발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효종 무진 총무원장, 염불종 청봉 총무원장, 태고종 월해 대전종무원장, 갑사주지 장곡 스님 등 사부대중 700여명이 참석했다. 대각회 이사장 도문 스님은 "3.1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남북통일을 성취하자"고 설법했다.



비전향 장기수 환송법회

북한 송환을 앞두고 있는 광주거주 비전향 장기수 5명을 위한 법회가 11일 부산 남구 용당동 문수사 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김영태(70) 김동기(68) 이경찬(65) 이공순(66) 이재룡(56)씨 등 장기수 5명이 참가해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법회는 지원스님의 축시낭송과 인사, 장기수들의 답사 등의 순서로 치러졌다. 이들은 13일까지 부산에 머물며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자원활동가 양성 위한 워크숍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8~9일 이틀간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생명나눔회 광주 대구 충남지역본부를 비롯해 지역본부를 준비중인 울산 안동 목포 경주 인천 부천 등의 관계자 60여명이 참석, 장기기증과 생명나눔운동의 홍보 및 활성화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삼화불교대학 재학생 신행실수

삼화불교대학(학장 혜인)은 8~9일 대법당에서 1학기를 정리하는 신행실수를 실시했다. 이번 신행실수에는 주·야간부 학생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통신부 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불교문화의 이해, 정토사상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삼천배 정진을 통해 불심을 다졌다.

무심선원 경주 자비원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불은이 불자님 가정에 항시 충만 하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일체 만물은 일심동체의 한 뿌리에 이쪽을 해치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요익중생한다는 인연에 따라 제불조사님의 불은의 공덕이 신력한 이곳 경주에 포교원을 다음 아래와 같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불자님 모두 수희동참하시여 업장소멸하시고 만대의 소원 성취하시옵길 기원 합니다.

증명법사 : 이성타 큰스님

아 래

◈ 일시 : 2000년 7월 23일(음 6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

◈ 장소 : 무심선원 경주자비원

대한불교 조계종 무심 선원 경주 자비원

원장 석지담

경북 경주시 황성동 910-8(301호)
■ TEL : (054) 337 - 7260 (영천 무심선원)
(054) 774 - 4872 (경주 무심선원)
■ FAX : (054) 774 -216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제3, 4대 회장 이, 취임식 및 임시총회]

◆◆ 모시는 말씀 ◆◆

청정삼보에 귀의 하오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림 동문회 [제3, 4대 회장 이, 취임식 및 임시총회]를 봉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로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부디 총동림 동문회가 더욱 건실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 일 시 : 2000년 7월 28일(금요일) 오후 5시
◈ 장 소 : 서울 타워호텔 신관1층 (그랜드 볼룸)
◈ 연락처 : 총동림회 사무처 ☎ 031) 498-7700
사무총장 현법 ☎ 011) 262-1026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제4대 회장 정진 수석부회장 송묵 사무총장 현법 합장

직장직능 연합대법회 10월22일 연다

110개 신행회 대표 지도자대회서 결의
법사 확보·연합회 결성등 활성화 모색



◇전국 직장 직능 단체 지도자들이 8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열린 '직장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직장·직능 법회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했다.

전국 직장 직능 신행단체 회원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연합대법회'가 오는 10월 22일 열려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수불자회, 국군불교총신도회를 비롯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금융단, 병원, 언론, 운전기사, 교사, 세무사 불자회 등 전국 110여개 직장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 230명은 조계종 포교원이 8~9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전국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 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직장 직능 법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금융단불교연합회, 국군불교총신도회의 활동사례발표가 있은 후 이어 벌어진 조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법당 및 법사 섭외 문제와 회원확보가 어렵다는 등 법회운영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동일직종 불자들의 연합회 결성을 통한 법사·법당 문제 해결, 직장내 잠재불자 발굴, 회원의 애경사를 적극적으로 챙겨 회원상호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 등 법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으로 재가자의 연수에 함께 참석한 15개 조계종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들도 제안들이 참신하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교구본사가 앞장서서 지역의 직장 직능 법회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지도자대회에서는 동일직종 불자연합회 창립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감사원,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10월 7, 8일 중앙부처 불자회 임원과 감사원 불자들이 월정사 성지순례를 가져 친목을 다진 뒤,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무원 불자연합회를 창립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청불자연합회도 오는 9월 23, 24일 직지사에서 임원 수련호를 갖기로 했고 여성불자들도 상견례를 가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직장직능불자 연합회 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날 펼쳐진 회향식에서 참석자들은 일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성실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분 다하기, 신행단체간의 교류 활성화, 복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실천운동 전개를 결의했다.

이번 지도자대회는 무엇보다 전국의 직장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 운영의 어려움에 동감하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 직능 법회는 그동안 침체를 벗고 기지개를 켤 것으로 보인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호 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총무과장〉

"상구보리 하화중생".

불교사회복지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는 글이기도 하려니와 불교사회복지 관련 논문을 보면 항상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의 한 단면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지만 이념상으로는 잘나거나, 못나거나, 부자이든 가난하던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사회복지는 특히 하심(下心)을 가져야만 올바른 도리를 펼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남 위에 군림하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쓴다는 생각으로 복지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공덕을 쌓는 일이라기보다는 자신과 부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



사회복지 수혜자도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져야 한다. 본인은 노력도 하지 않고 국가나 민간단체 또는 주변 친척이나 가족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안이한 마음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에 신심을 가진 많은 불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개인에 대한 외면도 큰일이려니와 불교사회복지에 대한 참여의지마저도 없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업보가 어디 있겠는가!

요즘 불교계 여기저기서 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어린이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방법까지 제시하며 불교복지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불교사회복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외형만 가지고는 불교사회복지의 참뜻을 이룰 수는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 이념, 전문적인 기술, 행정능력 등이 뒤따라 주어야 하고 전문화된 불교사회복지 토대 위에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후원이 곁들여져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교복지라 말할 수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나 틈틈이 자기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볼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깨닫곤 한다. 불교가 경맥을 잇는 것도, 부처님 법이 위대한 것도 그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뿌듯함을 억누를 수 없다.

이들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돕고, 불교복지의 극히 일부분을 맡아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는 일은 이들의 희생과 봉사에 비하면 그저 작은 낱알에 불과함을 느낀다. 이곳에서 일한 지가 벌써 5년째지만 내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불교계에 불교사회복지를 정착시키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해 왔다는 자부심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은 아직 할 일이 많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복지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많은 불자들이 나서고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가끔 개인의 입신을 위해, 외형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스님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불교사회복지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신이 이만큼 해 주면 나도 이만큼 해 주겠다"는 식의 계산된 논리로는 중생구제의 대의를 펼칠 수 없기에 나는 가끔 절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하며 하심을 배우고 있다.

"복지사업은 하심이 바탕"



◇불자교정인들이 8일 강남 봉은사에서 간부수련회를 갖고 '재소자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입정에 들어 있다.

"삐뚤어진 마음 바로잡기 최선"

교정인불자련 간부수련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제4회 간부하계수련회를 8~9일 양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갖고 재소자 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4개지부 41개 지회소속 2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련회는 입제식을 비롯해 이상헌 동국대 교수와 박완일 씨의 특강, 지회소개 및 신행사례 발표, 발우공양, 참선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환영사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사람을 바로잡아 새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며 "교정인들이 재소자의 등불이 되어 앞으로도 그들의 교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식 기자

16대 한나라당 불자회 가동

회장에 김태호의원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불자회가 창립됐다.

한나라당 불자국회의원 26명은 14일 여의도 의백에서 이회창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불자회'를 창립하고 김태호(65 울산중구·사진)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나라당 불자회는 앞으로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 불교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불교관련 법령 개정 등 불교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태호 신임회장은 "정기법회, 성지순례 등을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불교계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태호 의원은 인천시장, 대통령정무수석, 경기도지사, 내무부장관을 역임했고 12, 13, 15대에 이어 현재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두식 기자

우리 모임에선

경희의료원불자회 음악회

경희의료원 불자회(회장 황노추)는 13일 본관 현관에서 대한불자가수회와 공동으로 '경희의료원 환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남강수, 머루와 다래, 명국환 등 불자가수들이 출연한 이번 음악회는 경희의료원 환자와 가족 400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중랑구청불자회 법흥사 순례

중랑구청 불자회(회장 서관수)가 창립 1주년을 맞아 9일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와 요선정 마애여래불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직원불자와 가족 등 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난해 6월 1일 창립한 중랑구청 불자회는 그동안 관내 사찰순례법회, 성지순례를 하며 신심을 키워왔다.

법륜교수회 월정사 수련회

법륜불자교수회(회장 신준식)는 16, 17일 이틀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가졌다.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 법문, 상원사 및 산내암자 순례, 티베트불교에 대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대회는 40여명의 교수불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불교스카우트·수련대회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오는 28일부터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 설봉산 영월암에서 하계 수련대회를 갖는다. 참가신청서는 우편이나 FAX로 22일까지 받으며 회비는 3만원이다. 문의전화 (02)2292-8502 최병수

클릭! 새 홈페이지

■한국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http://youthic.simin.org)-7월4일 오픈한 청교련 인천지부 홈페이지. 청소년 쉼터 등 인천지부의 활동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백팔넷(http://108.ne.kr)-무료 불교메일 서비스, 불교 디렉토리별 사이트 소개를 주로 하는 사이트. 현재 개설되어 있는 BBS 외에 커뮤니티, 쇼핑몰, 방송국, 대화방, 불교정보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석학회(http://cafe.daum.net/giringuy)-6월12일 개설. 석왕사 학생회 홈.

■소림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 sorim)-6월16일 개설. 소림불교학생회 출신 동문·재학생 모임터.

서울시청 불심회 화계사서 수계법회

서울시청 불심회(회장 이정관)는 8, 9일 이틀에 걸쳐 서울 화계사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108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불자들은 화계사 주지 성광스님의 법문과 숭산스님의 '나는 무엇인가'라는 주제 강의를 들었고, 1080배 철야정진을 하며 신심을 다졌다.



총무 강병우씨는 "수계법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두식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불교학과, 불교북한학과)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북한불교사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최봉수(동국대교수) ·주병철(동국대교수) ·정병조(동국대교수) ·오 국 근 (동국대교수)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남수영(동국대교수) ·계환스님(동국대교수) ·김 상 현 (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 밀교사상·포교방법론·북한불교포교론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김성철(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최종석(동국대교수)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종석스님(승가대교수)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김호귀(동국대교수) ·유진스님(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북한학과(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6월 15일~ 2000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0년 8월 5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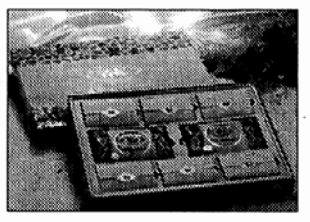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불교북한학과 지망생은 북한불교사, 북한포교방법론을 이수하여 함.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함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옥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옥이 빠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주문하시면 상담해드립니다. 많은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동국대 불교대학 발전 절실

한국 불교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표류를 거듭한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불교대학 발전위원회가 지난 3월 2일 발족하여 학장을 주축으로 소속 교수들이 3개월간 연구했다는 발전 방안이 5월 18일 기획인사처에 제출되었으나 2개월이 지났는데도 서랍에서 잠자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구 성과에 대한 가치가 없어서인지, 아예 발전의지조차 없어서인지 궁금했는데, 늦게나마 학교당국에서 연구보고서에 대한 세부 평가 및 관련 절차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니 다행스럽다.

학문의 전당이 훼불 사건으로 멍들고 교수충원 문제로 설왕설래할 뿐, 그 어떤 대책도 속 시원히 나오지 않으니 학교 당국뿐만 아니라 재단도 대오각성해야 한다. 불교대학의 발전은 단순히 한 단과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다. 1600여년을 견디며 살아온 한국 불교의 숨결이며, 한국 불교 거대 종단인 조계종의 체면이다.

동국대학교가 아무리 거대하게 발전한다고 해도 불교를 빼고 나면 허수아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동국대의 주체는 교수와 학생임에 틀림없다. 불교대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동국대의 운명과 한국 불교의 미래마저 기대할 수 없으며, 한국의 천만 불자들이 동국대학교에 거는 기대 또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에는 조계종 승려 자격의 이사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불교대학의 입학생 중 학부제가 시행된 1996년도부터 70명도 안 되는 입학생 중 해마다 평균 15~16명씩 전과로 빠져나가며, 여기에 승려학생 17명을 제외하면 실제 한 학년의 일반 재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하다. 물론 졸업 후 생존을 위한 진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불과 30여 명도 안 되는 이들의 장래도 수용 못할 불교라면 한국불교의 포교사업과 불교 학문의 발전도 결코 밝다고는 할 수 없다.

신학대학을 졸업하는 인력이 1년에 1만명을 초과하고 있다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불교대학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히 노쇠해져가는 불교 신도만을 바라보고 지낸다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불교대학의 발전은 하루가 시급하다. 당장 내년 입시부터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신도회 구성 왜 어렵나

불교가 바로 서려면 사부대중이 각각 올바로 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에 의해 원활한 교단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불교계 교단 내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부조리, 그리고 사회적인 위상 실추의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부대중이 각각 그 역할을 자각하고 제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급한 것이 재가자의 제자리 찾기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상대적으로 출가자의 본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정립되는 등, 한국 불교의 활성화에 커다란 순기능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 아래 재가자의 조직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계종 광역신도회의 구성 움직임이 그 첫 단계부터 참여와 호응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지난 4일 열린 서울 광역신도회 창립을 위한 간담회에 사찰신도회 3곳, 신도단체 3곳만이 참여하여 중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은, 맥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사찰 주지스님들의 무관심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 사부대중의 역할 인식에 대한 우리 불교계의 뿌리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엔 재가자의 조직 활성화가 마치 자신들의 영역을 위협하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스님들의 인식이 있다.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없이 오로지 스님들만 바라보고 있는 재가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있다. 이것이 재가자 조직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건강한 종교 교단은 그 구성원들이 모두 그 종교의 주체가 될 때 이루어진다. 재가자들이 단순한 교화의 객체로 있게 되면서 나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한국불교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 스님들은 지금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재가조직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것도 결국 출가인들의 책임임을 바로 인식하고 재가자들이 자신들의 자리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재가자들은 재가자들대로 스님만 쳐다보는 안이한 타성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자신의 임무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바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도회의 구성임을 인식하고 그 큰 틀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민영교도소, 이젠 '강건너 불' 아니다

한국교정사의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로 평가되는 민영교도소 도입이 관련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10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영교도소 도입은 우리나라 교정사 뿐 아니라 종교계의 지형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기제로 작용한다. 교세 확장의 의미도 있겠지만, 교정·교화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하기 때문이다.

종교계에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불교계, 특히 조계종에서는 애초에 특정 종교의 요구에 의해 법 제정이 추진된다는 의혹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는 특정 종교의 선교 수단이 되지 않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문제는 불교계에서 달라진 교정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느냐는 것이다. 조계종은 이 부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500명 수용 규모의 교도소를 설립하려면 35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1년 예산이 150억원 안팎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액수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 총무원 청사 신축 등 당장의 일도 버겁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천태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민영교도소 설립까지 나설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특수교도소, 소규모 운영방안 등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각 종단의 총무원에서 도맡아 할 필요도 없다. 오랜 기간 교화활동을 벌인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총무원 내의 논의를 벗어나 논의라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도 불교가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민영교도소는 강건너 불구경할 꺼리만은 아니다. 반드시 교도소를 지을 필요도 없다. 교정 업무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대비하는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사회적인 소외를 의도적인 범죄로 표출하려는 '복수심리'를 막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한국교정사의 획기적인 변화 계기가 될 민영교도소의 도입은 우리나라 교정사뿐 아니라 종교계의 지형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춘천교도소 전경.

종단 재원마련 '버거운 짐' 소규모 특수교도소도 방편

◇민영교도소 추진 경과

98. 4. 26	법무부, 김대중 대통령의 교도소 과밀 수용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민영교도소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
98. 9. 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98. 11. 27	법무부,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98. 12 24	법무부, 교도소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
99. 7	법무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99. 8. 13	조계종총무원, "특정 종교단체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 제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냄
99. 12.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99. 12. 29	조계종, 불교계 등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제정된 민영교도소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논평 발표
2000. 1	기독교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올 6월까지 부지와 건물을 물색하고 50억원의 설립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2000. 7. 3	조계종총무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법무부와 문화관광부에 보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포괄적이어서 이후 다른 해석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보완을 요구
2000. 7.10	법무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민영교도소 제도 시행에 부쳐

재소자 교화행정 '종교의 힘' 필요

혜철스님 〈한국불교 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내년 7월이면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된다. 불교계는 어떤 대비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할 시기이다.

필자가 책임을 맡고 있는 법무부 산하 (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도 별다른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불교계가 재소자 교화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퍽 염려가 된다.

교정기관의 힘만으로 재소자를 교화해 민주시민으로 거듭 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 종교계의 민영교도소는 개방교도소나 경제사범 등을 상대로 한 교화보다 청송보호감호소의 감호자들이나 향정신성 마약사범, 상습절도, 조직폭력배, 상습 성범죄, 소매치기 등 정신적으로 자기의 감성적인 면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범들에 대해 종교적 관점에서 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첫째 현재의 교정기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일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일이다. 특히 교화상담, 분류심사, 면회접수 및 집행, 물품접수, 영치금접수, 서신검열, 작업장 관리, 사회견학,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 등의 업무를 상당기간 같이 수행하여 업무능력을 기르고 청송보호감호소 같은 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다. 그렇게 된다면 국제인권단체에서의 목소리도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 종교단체가 시설을 하고 운영비와 보안업무를 국가에서 지원해 종교계가 떠안는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하루속히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졸속해서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특정종교에 편파적인 결과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속히 재소자 교화에 일대 획을 그을 수 있는 민영교도소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누가' 보다 '어떻게' 운영하나 중요

이윤호 교수 〈경기대 교정학과〉



교정의 민영화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징벌에 관한 문제와 수용자 인권침해 및 기타 교정사고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징벌권의 행사는 국가에 귀속되며, 재소자의 권리는 오히려 확대, 개선될 수 있고, 무력의 사용은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민영교도소의 운영결과 밝혀지고 있다.

또 민영교도소는 처우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담보로 하지 않고도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설의 과학화와 현대화, 운영과 관리기법의 과학화와 효율화 등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쩌면 교도소 민영화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형벌결정권의 위임이 아니라 단지 국가에 의해서 결정된 형벌을 집행하는 형벌집행만을 위임하는 것이며, 형벌을 통한 이윤의 추구는 교도작업을 이용한 이윤의 추구를 공공 교도소에서도 실시하고 있어서 민영 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로서 반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정의 민영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도소를 누가 운영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어쩌면 교도소 민영화의 성공의 열쇠는 철저한 경쟁적 입찰과 계약 및 관리감독에 있다.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렇게 확보된 계약자와 구체적인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는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누가 교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보다는 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불사리장엄구 특별전

금생에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이번에 최초로 공개하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것**입니다.
1,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 앞에 현신한 부처님 진신사리는
금생에 두 번 다시 없는 마지막 친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사 최초로 공개되는 **감은사 동삼층석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하여 전국의 50여 기 불탑에서 발견되어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리관련 유물 200여 점을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리 친견 안 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금) ~ 7월 31일(월)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 장 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약안내 : 전화 055) 384-0010 (담당자 : 이승현)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신 단체 신도들에게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기념 카드를 드립니다
※ 특별전 10만 번째 입장객에게는 본 박물관 평생무료입장권과 정성껏 마련한 특별 선물을 증정합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감사의 말씀 ◆

저희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진신사리 친견 및 불사리장엄구 특별전이 한달 간 6만 여 명이 동참하는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스님과 불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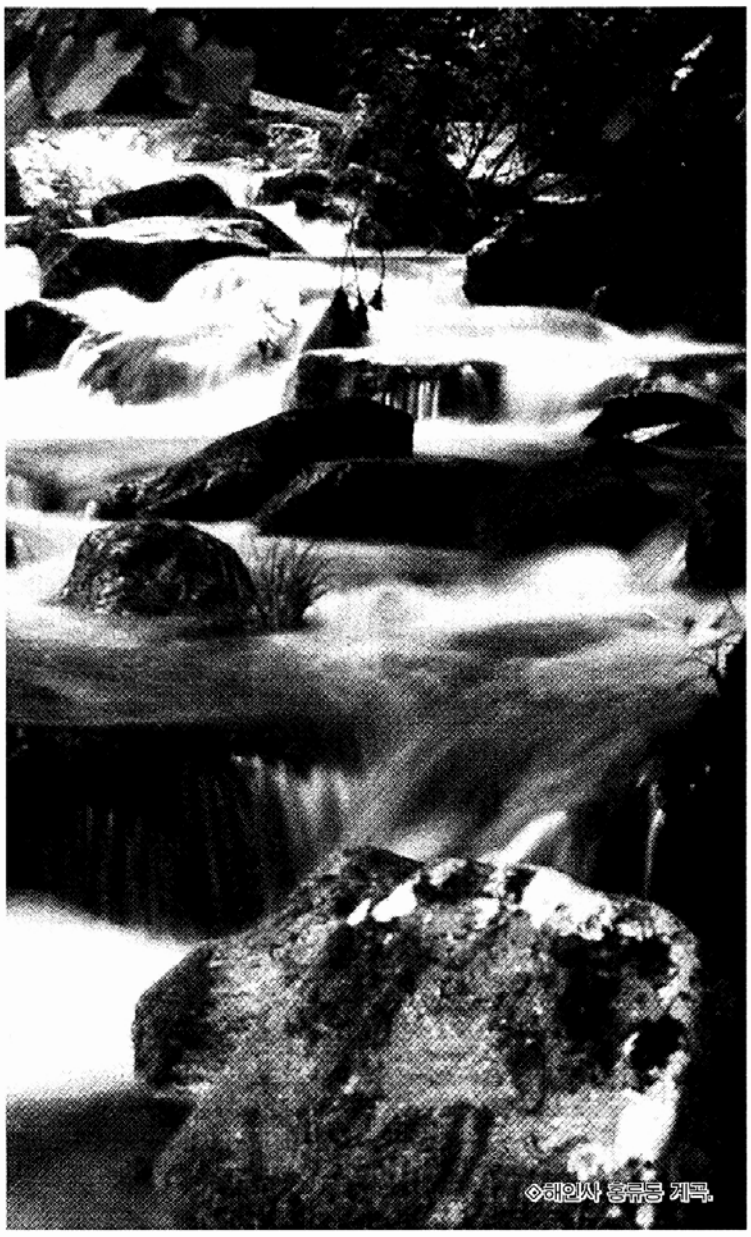
그리고 자장율사가 모시고 온 부처님 진신사리와 국보·보물로 지정된 사리장엄구가 함께 공개되는 금생(今生)에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한달 여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신 여러 사찰과 신행단체의 불자님들이 모두 함께 하시어 무량공덕을 쌓기를 기원합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부처님 품에 안긴 계곡을 찾아서

맑은 물 '콸콸'…속진을 씻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이번 여름에는 붐비는 도심 수영장이나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마른 기계 바람에서 벗어나 부처님 품에 안긴 계곡을 찾아 가보자. 깊은 산 깊은 골짜기에서 시원하게 뻗어 흐르는 물소리와 살랑대는 미풍에 실려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면 더욱 좋으리라. 계곡 주변의 등산로를 가볍게 걷다가, 잠시 흐르는 계곡 물에 발 담그고, 사색하는 여유까지 즐기다 보면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고 느낄 것이다. 특히 주말보다는 주중에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더욱 현명한 여행이 될 것이다.


◇해인사 홍류동 계곡.

-수타사 계곡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공작산에서 발원해 산봉리를 거쳐 덕치리로 이어 흐르는 수타사 계곡은, 짙푸른 활엽수림과 함께 맑고 깨끗한 계곡 물길이 8㎞ 정도 이어진다. 계곡 안에 흰 모래사장이 있는가 하면 씻어 널어 놓은 듯한 자갈밭 등 아기자기한 계곡의 특성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교통: 홍천→진리 사거리(우회전)→속초리(좌회전)→수타사입구 주차장, 또는 홍천~수타사간 시내버스를 이용.

-구룡사 계곡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국립공원 치악산 아래에 있는 구룡사는 원주의 진산인 치악산 제일의 사찰답게 수백년 묵은 소나무와 각종 아활엽수림이 고찰 특유 분위기를 자아낸다. 주차장에서 구룡사에 이르는 계곡과 구룡폭포는 발품을 들이지 않고도 곧장 원시의 세계를 보여줄 만큼 그윽하다.

교통: 영동고속도로 새말IC→삼거리→ 구룡사 주차장, 또는 원주시~구룡사간 시내버스 이용.

-갑사 계곡

계룡산 갑사 계곡은 한여름에도 가을을 느끼게 할 만큼 시원하다. 갑사 입구 오리숲에서 금잔디고개에 이르는 약 3㎞의 계곡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갑사에서 청류계곡을 약 0.6㎞ 오르면 용문폭포가 있고, 용문폭포에서 약 0.6㎞를 계속 오르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천진보탑과 신흥암이 있다.

교통: 호남고속도로 유성IC→공주방면 32번 국도→마암교→갑사 주차장, 또는 공주~갑사간, 또는 대전~갑사간 시내버스 이용.

-동학사 계곡

계룡산 학바위 앞에서 관음봉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동학사 계곡은, 언제나 푸른 숲에 감싸여 맑은 물소리와 청량한 새소리를 들려준다. 계곡입구의 울울창창한 숲속을 신선처럼 걷노라면 비구니 강원이 있는 동학사에 이르고, 1.5㎞쯤 거슬러 오르면 산수의 조화미를 자랑하는 은선폭포에 이른다.

교통: 호남고속도로 유성IC→32번 국도→박정자삼거리→동학사 입구, 또는 대전~동학사간 버스 이용.

-대원사 계곡

대원사를 감싸안을 듯 휘돌아 흐르는 대원사계곡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리산 주변 계곡 중에서 다소 한가한 편이다. 이 계곡에는 폭포의 낙수로 무지개를 친다고 해서 무재치기폭포가 있는데 차가운 폭포수가 그리 시원할 수 없다. 주변의 남명 조식의 산천제나 단속사지와 같은 유적지도 들러볼 만하다.

교통: 88고속도로 함양I.C→진주방면→산청→단성교→덕산→명사삼거리→대원사, 또는 산청~대원사간 버스 이용.

-내원사 계곡

한반도의 남녘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에서 동·남쪽으로 10여㎞ 떨어진 내원사 계곡은 시천면 중산리 계곡과 대원사 계곡의 중간 지점으로 여름 피서철에는 찾아 볼만한 곳이다. 신라 선덕여왕 15년(646)에 원효대사가 이곳에 이르러, 89개 암자를 건립하고 화엄경을 설법하여 천명대중을 모두 득도케 한 곳이라 하여 이곳의 산 이름을 천성산이라 한다.

교통: 통도사 IC(양산 방면)→용연 삼거리(35번 국도, 군도 교차로)→내원사, 또는 진주~내원사간 버스 30분 간격으로 운행.

-법주사 선유동 계곡

충북 보은군 속리산은 법주사를 중심으로 주봉인 천황봉(1058m)을 비롯하여 입석대, 문장대 등 1,000m가 넘는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법주사의 문화재, 천연기념물과 함께 이 지역의 선유동 계곡은 맑고 시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교통: 보은 25번 국도→대야리에서 좌회전(37번 국도)→속리산 국립공원, 또는 보은~속리산간 직행버스 이용.

-해인사 홍류동 계곡

가야산 해인사 입구에 자리한 홍류동 계곡은 주위의 송림 사이로 흐르는 물이 기암괴석에 부딪치는 소리가 신라의 대문호 고운 최치원선생의 귀를 먹게 했다 하여 더욱 유명한 곳이다. 주변의 단풍이 흐르는 물에 붉게 그림자진다 하여 홍류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진다.

교통: 대구서부→99고속도로→해인사 IC→가야→홍류동 계곡, 또는 대구 서부터미널~해인사간 버스 이용.

-희방사 계곡

희방계곡의 희방폭포 바로 옆의 깍아지른 돌벼랑을 따라 올라 가노라면 깊숙한 골짜기에 소백산 희방사란 절이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두운조사가 창건한 희방사는 소백산의 병풍같은 산 허리에 절제된 모습으로 앉아 있다. 이곳에는 폭포를 끼고 오르는 철로 만든 다리가 있어, 그곳을 오르다 보면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하는 청량감을 만끽하게 된다.

교통: 서울 동서울터미널~영주 행 직행버스, 또는 풍기~희방사간 30분 간격 버스 이용.

-서산 마애삼존불과 용현계곡

국보 제84호인 서산 마애삼존불이 있는 용현계곡은 맑고 깨끗한 물과 함께 천연 삼림욕장으로도 인기가 높다. 또 마애삼존불에서 약 1㎞의 거리에 사적 제316호 보원사지가 있는데, 고려초에 창건한 사찰로서 고승 법인국사가 수도하였다 한다.

교통: 천안→예산→덕산→45번 국도→해미→647번 지방도→8번 군도→용현리, 또는 천안~서산간 직행버스 이용.

-백련사 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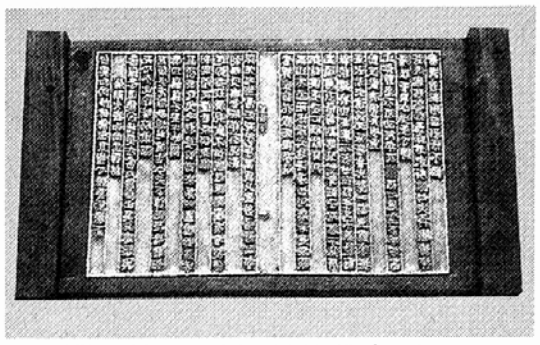
덕유산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계곡이 바로 설천면 나제 통문에서 백련사에 이르는 무주구천동 계곡이다. 구천동 계곡의 최상류에 위치한 백련사 계곡을 중심으로 안심대, 구천폭포, 연화폭 등 절경이 이어진다.

교통:무주읍내→구천동간 버스 이용.

-내장사 계곡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 내장사에도 시원한 계곡 물이 흐른다. 내장사 우측은 원적암에서 유래된 원적계곡이, 좌측에는 금선폭포에서부터 흐르는 금선계곡이 있다.

교통: 정읍~내장사간 직행버스 이용.


◇한국형 오페라를 지향하는 오페라 '직지'는 박범훈교수(중앙대)가 작곡을 맡았다. 사진은 직지심체요절 금속활자본 모형.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에 담긴

민족정신과 문화

창작오페라 '직지'

9월-서울, 11월-청주 공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발상지인 청주 흥덕사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창작 오페라 '직지'가 공연된다.

오페라직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환)는 11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오페라 '직지' 제작발표회를 갖고, 오는 9월 22일~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9일~12일에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오페라 '직지'는 고려 말기를 배경으로 백운화상의 제자였던 묘덕과 정안군, 그의 아들 허숙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와 원나라의 지배하에서 자주국가의 위상을 세우고, 백운화상의 뜻을 받들어 금속활자를 고안해 직지심체요절을 탄생시키는 고려인들의 새 문화 창조 의지를 극적으로 연출할 예정이다. 연출은 중앙극음악연구소 대표 정갑균씨가 맡았으며, 주인공 묘덕 역은 성악가 김유섬씨, 백운화상 역은 상명대학 음악과 김명지교수, 허숙 역은 단국대 음악과 장유상 교수가 열연하게 된다.

이번 오페라 '직지'의 작곡을 맡은 박범훈 교수는 "오페라가 당시 직지심체요절의 제작동기와 시대적 상황을 오페라로 형상화하고 있는 만큼 그 음악적 내용 역시 한국적이면서 세계적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면서 "우리 전통악기와 서양악기의 혼성 편성에 우리 고유의 창법과 양악창법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한국적 오페라 양식을 창출해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문화·단신

현대불교 대구지사 '2000년 부채그림전'

불교적 소재를 중심으로 우리 생활 주변의 모습을 부채에 담은 '2000년 신바람 162인 부채그림전'이 21일~8월 20일까지 대구 대림당 화랑에서 전시된다.

현대불교신문 대구 경북지사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강행복, 정비파, 최영조 등 불자화가들이 참가했다. (053)983-9222

김남희씨 윤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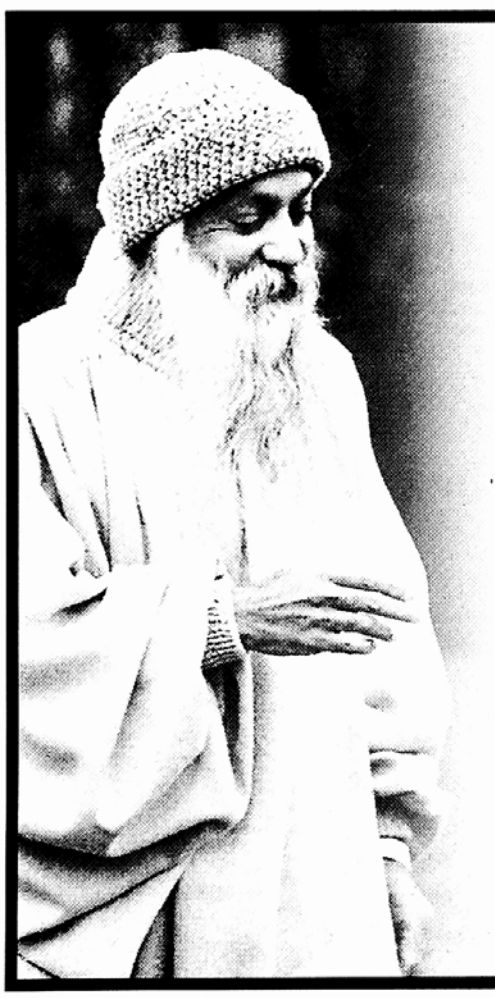
93년부터 꾸준히 개인전을 열고있는 화가 김남희씨가 제6회 개인전 '인도기행-윤회'를 19일~25일까지 서울 인사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화가가 인도를 기행하며,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화폭에 담았다. '갠지즈강의 일출' '룸비니동산에서' '사라상수 나무아래-열반' 등 20여 작품이 선보인다. (02)735-2655

김창배씨 수묵전

수묵 담채화로 그린 화가 김창배씨의 '붓가는 대로 마음가는 대로' 전이 8월31일까지 강원도 진부령 미술관에서 열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부령을 지나는 불자들이면 한번쯤 들러볼 만한 이번 전시에는 수행자의 다양한 일상을 담은 수묵담채화와 달마도, 풍경화 등이 전시된다. (033)681-3679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The Royal Song of Saraha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라하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신간
India My Love
내 사랑 인디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000원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쇼 라즈니쉬가 보내온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Tantra Vision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현학 옮김 | 전4권 | 각권 값 10,000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여인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화안 현봉(미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뀨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지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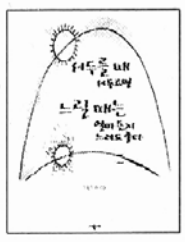
★ 색다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교법사 5명이 쓴 계율이야기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율장서 퍼올린 삶의 지혜

청소년 포교 경험 살려
'다이어트 왜 하나' 등
현대인 일상 계율접근



현대는 '바쁨'이 미덕인 시대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바쁨' 때문에 지불한 대가는 어떠한가. 시간에 떠밀려 쫓기 듯 살아가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너나없이 유유자적한 삶을 동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동호(광동여고)·이학주(명성여고) 씨 등 다섯 명의 현직 교법사가 펴낸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릴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시공사)는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게 한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는 삶의 지혜를 일러준다. 그 지혜의 원천은 〈사분율〉, 〈마하승기율〉, 〈우바새계경〉, 〈십송율〉 등 율장이다. 계율의 사상을 우리 일상 속으로 바싹 끌어당긴 것이다.

대중들을 위한 율장 관련 입문서가 드문 현실에서 생활과 계율을 녹여서 조화롭게 접목시킨 것은 새로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하지 마라' 식의 금계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나만이 아닌 모두의 친구로', '제 앞가림 먼저', '다이어트를 왜 하나' 등 그다지 새로울 건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찬찬히 짚어내고 있다.

'머리에 붙은 불'이란 글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빨리, 더 빨리를 외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좁고 답답한 세상사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닌 듯 유유자적한 태도를 보인다. 어느 것이 정답일까. 글쓴이는 이렇게 말한다. "부귀도 출세도 다 뒤로 젖혀놓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절대로 미뤄서는 안될 일이 있다. 나의 죽음, 다른 이의 고통이 온 사방에 넘치고 있는데 어찌 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은 조금 천천히 꺼도 좋다. 하지만 머리에 붙은 불은 당장에 꺼야 한다." 서두를 일에 서두른다면 느리게 할 일은 얼마든지 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에 소개된 81가지 율장이야기들은 참나를 찾고, 세상을 바로 보고,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물론 그 대답들은 모두 율장에서 퍼올린 생생한 삶의 지혜들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현직 교법사들이 바른 불교, 쉬운 불교를 위해 내놓은 첫 결실이란 점에서 이 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에 대한 앎과 수행연륜이 짧은 청소년들,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포교했던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일반화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심자나 일반인들까지 누구에게나 부담없이 읽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한편 교법사들로 구성된 (가칭)경전자료편찬위원회는 이번에 펴낸 〈서두를 때 서두르면…〉에 이어 아함·본연(본생)·대승경전, 그리고 후대불교인들 등 5권을 불교 경전 현대화 작업 일환으로 매년 펴낼 계획이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정휴 지음, 우리)= 정휴 스님 전집 시리즈 네번째 권 소설 경허. 근대 한국불교사에 화려한 삶을 살다간 거목 경허 스님. 그의 파란만장한 일화가 한편의 소설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지옥과 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거리낌없이 살았던 경허의 삶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자 경이를 안겨준다. 하지만 그가 선사로서 파계의 허물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시각이다. 값 1만원.



▲**부처와 함께 하는 주식투자**(홍준기 지음, 굿인포메이션)= 돈의 정신, 재테크의 원칙, 주식투자의 법칙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한 주식 지침서. 일확천금을 벌게 하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돈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게 해준다. 때문에 이 책에는 '돈이란 이렇게 벌어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칠 정도로 돈에 결부시켜 새겨둘 만한 경전의 수많은 예화들로 가득하다. 값 9천2백원.



▲**자운영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공선옥 지음, 창작과비평사)= 지난 91년 계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중편소설 '씨앗불'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공선옥 씨의 첫 산문집. 이 책은 산과 논과 밭 속에 파묻혀 살았던 전남 곡성에서의 생활과 모성, 작가의 유년기 추억과 가슴 아픈 기억, 그리고 모자 가정을 이루게 된 현재까지의 삶이 녹아 있는 40여 편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값 7천5백원.



▲**두루미**(배성환 지음, 다른세상)= 두루미 전문학자 배성환 씨의 30년 두루미 연구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멸종위기에 처한 세계적인 희귀조 두루미의 생태를 담은 '두루미 백서', 두루미의 하루·일년생활, 삶의 특성, 우리 나라에서 월동하는 곳, 전세계 분포상황에 이르기까지 두루미의 모든 것을 담았다. 또 긴 다리, 긴 목, 긴 부리를 가져 두루미로 잘못 알기 쉬운 백로, 왜가리, 황새, 해오라기 등과 비교해 두루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값 1만3천원.



▲**세상이 즐거워지는 3분 요가의 기적**(미야마 사토시 지음, 최병련 옮김, 하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출퇴근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무의식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숱한 '3분'씩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모아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신에게 재투자한다면 어떨까. 이 책에서 권하고 있는 '요가식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 바로 그 방법으로, 심신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찾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2	화두놓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3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4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5	마하르쉬의 복음	대 성	탐 구 사
6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7	산승일기	지 묵	우 리
8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9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10	나의 출가	박 이 문	민음사

도서 안내:(02)737-0695

허허당 스님 '무심' 출간

선화 77점과 명상 에세이

십만동자 선화로 널리 알려진 허허당 스님이 명상 에세이 〈무심〉(찬섬)을 내놓았다.

이 책 속에 실린 그림들은 지난 6월 한 달간 스위스 취리히 테제미드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 여기에 무심(無心)을 비롯 아름다운 세상, 윤회, 귀향, 꿈 등 70여 편의 명상 에세이를 곁들여 책으로 묶었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화엄법계도'는 스님이 20년 동안 십만동자승이 기도하는 모습을 닮은 노작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컬러로 제작된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하늘에서 꽃비 내리고'는 붓으로 쓴 선시와 선화를, 2부 '아름다운 세상', 3부 '생명의 걸음으로'에서는 구도하는 영혼의 글과 깨달음의 형상을 만나볼 수 있다. 4부 '큰 삶 큰 도적'은 스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 5부 '생명의 축제'는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전시회를 열며 쓴 유럽여행기이다.



수행자로서 끊임없이 욕심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도의 여정을 글로 옮긴 스님의 명상 에세이는 그림과 한데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과 함께 마음이 청정해짐을 느끼게 해준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김형중씨 '휴정의 선시 연구'

청허당 선시 깊이와 너비

"선시(禪詩)에 대한 고찰은 새로운 국문학 영역의 개척이다. 앞으로 선시의 발굴·정리·고찰은 국문학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인권환 교수는 선시가 국문학(사)에 차지하는 의의를 밝힌 '한국불교문학연구'에서 선시 연구의 필요성을 이렇게 밝혔다.

서산대사 휴정 스님의 선시 세계를 조명한 〈휴정의 선시 연구〉(아름다운세상)는 바로 그러한 국문학의 새로운 경작지를 일군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김형중(명성여고) 교법사의 박사학위 논문인 이 책은, 〈청허당집〉을 비롯 스님의 창작 선시에 대한 특성과 그의 선시론 그리고 문학사적 의의를 살피고 있다.

이 책은 휴정 스님의 선시문학을 중국 당·송시대의 왕유·두보·한산 등의 선시를 어떻게 수용 발전시켰는가, 선시 이론을 한시에 어떻게 접목하였는가, 한국 선시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등으로 크게 나눠 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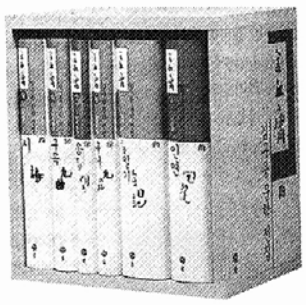
특히 〈청허당집〉의 판본 네가지(초간본·용복사본·태안사본·묘향장본)를 처음으로 비교 검토하여, 시의 특성과 사상을 살핀 것은 이 책의 의미를 한층 더해준다. 〈청허당집〉에 수록된 611수의 시를 토대로 글쓴이는 △오언절구로 압축 △즉흥적 △슬픔과 한의 정서 △다양한 시체 구사 등 11가지의 특징을 꼽고 있다.

스님은 중국 당송 문호들의 시를 수용, 나름대로의 선시 이론을 정리하여 조선 선시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당나라 시에 뒤지지 않는 명시도 많다. 선가뿐만 아니라, 한시단에서도 승속을 막론하고 사대부들까지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던 사실, 그리고 일본에 〈청허당집〉과 〈선가귀감〉이 유통되었던 점으로 보아 휴정 스님의 시는 한국 한시사의 우뚝한 봉우리임에 틀림없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김구용 문학전집' 나왔다

시·연작장시·산문 등 6권 묶어



10여 년간 동학사(1940~1962)에 기거하면서 불교경전을 섭렵,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한 시인 김구용(78·전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 문학의 모든 것을 수록한 〈김구용 문학 전집〉(솔)이 나왔다. 전 6권으로 묶인 이 전집은 시집 〈시〉, 연작장시 〈구곡(九曲)〉 〈송백팔(頌白八)〉 〈구거(九居)〉, 일기문 〈구용일기〉, 산문집 〈인연〉으로 이뤄졌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양고전 번역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품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연작장시 3권. 불교적 세계관에서 더 나아가 동양사상을 아우르는 정신의 편력을 보여준다. 참 자아를 찾아가는 지난한 구도의 과정을 그린 〈구곡〉, 참 말씀의 심원한 세계를 열어 보인 〈송백팔〉, 진정한 있음의 경지를 추구하는 〈구거〉는 모두 선불교적 직관과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김구용의 시 세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 '나'를 찾아가는 험난한 정신적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김구용 시인의 전통 예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전통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의 궤적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전집 출간이 갖는 의의중 하나이다. 값 17만원. 김중근 기자



'마니칸붐' 영인본 출간

진각종 종학연구실(실장 혜정)은 패엽의 형태로 전승돼온 〈마니칸붐(육자진언교전)〉을 처음으로 영인하여 출간했다.

육자진언에 관한 티베트 국내외의 경전과 찬술집을 총집대성한 〈마니칸붐〉은 송첸 감포 왕(581~649) 당시 편찬, 수행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육자진언의 묘법을 설한 이 교전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번째 부문 '불교를 숭상한 송첸감포왕의 성스런 교전'에는 라마전승의 역사목록과 마나칸붐 목록 등이 수록돼 있고, 두 번째 부문 '불교를 수호하신 송첸감포왕의 저작'은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법을 비롯 모두 23절로 구성돼 있다.

교전의 내용을 상세하게 분류한 허일범(진각대학) 교수의 '육자진언교전 해제'는 교전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값 3만원.

김중근 기자

명의 허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TV 동의보감



KBS-2 TV 전국은 지금에 방영된 〈동의보감〉의 내용 소개

동양 최고를 자랑하는 명의(名醫) 허준(許浚) 선생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정한방 필독서이다. KBS-2 TV 〈전국은 지금〉을 통해 300회 넘게 전국에 방영 소개된 내용을 프로그램 연출자였던 저자가 한 권으로 엮었다. 또한 기타 종합한방의서의 비방도 수록했다. 각종 질환별로 나누어 상세한 치료법이 담겨 있다.

황인형 엮음 / A5신 / 334면 / 10,000원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한국사찰음식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요리법과 사진 수록

깊은 산중 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솔향 풍기는 사찰음식의 상세한 요리법과 맛깔스러운 컬러 요리사진을 수록했다.

명산 고찰의 유명한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 전하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을 총망라했다.

김연식 지음 / 4·6변형 / 올컬러 / 156면 / 13,000원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 문 스님의

4인 기준 요리법

적문 지음 / 4·6변형 / 올컬러 / 176면 / 13,000원



과도한 육식과 기호식품에 탐닉한 나머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홍거)를 넣지 않은
담백하고 정갈하며 맛과 영양이 우수한 사찰음식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통 사찰에서의 조리과정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에
다소 어렵고 생소하다.
《전통사찰음식》은 옛부터 전승해 온 맛갈스러운 사찰음식을 사계절로 나누고,
4인 기준 정량을 표기하여 요리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였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세계문화유산 등록 앞둔 경주남산

훼손 유물·유적 제모습으로

개발행정 상처 '곳곳'
안내판 정비 시급
문화재 순례길 필요

경주 남산(사적 제311호)과 황룡사지(사적 제6호)를 포함한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본지 277호 1면 참조〉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문화·복합 유산으로 나눠 지정하는 세계유산은 현재 1백18개국에 6백30건이다. 이 가운데 480건이 문화유산이며 우리나라는 불국사·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 등 5건이 등록돼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둔 경주역사유적지구는 남산 외에 분황사 석탑과 황룡사지가 있는 황룡사지구, 첨성대 등 월성지구 사적 4점, 미추왕릉 등 대릉원지구 사적 7점 등이 함께 묶여있다.

남산만으로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 남북 12km, 동서 4km, 해발 500m의 그리 크지 않은 산이지만 산 전체가 야외박물관이다. 40여개의 계곡과 180여개의 봉우리마다 석불(88구), 석탑(71기), 절터(127곳)가 즐비하며 확인된 유적만도 465개에 달한다. 미륵골, 탑골, 부처골, 절골 등 골짜기에 붙은 이름만으로도 이미 부처님 세상이다.

그러나 남산은 곳곳에 상처를 안고 있다. 남산을 동서로 갈라놓은 순환도로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고, 헬기장에 교도소까지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유물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형태를 잃어버린 채 방치되고 있다. 석탑은 옥개석 따로 부재 따로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고 석불의 광배는 나무 밑에 처박혀 있다. 주인잃은 목은 주변 축대 밑에 떨어져 있고, 71기의 석탑 중 천룡사지 삼층석탑(보물 1188호) 등 10기 정도만 제대로 서 있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남산은 관리 부재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했다. 등산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 신라문화진흥원이 제작·관매하는 남산지도에 나와 있는 답사길은 70여개. 그러나 등산객들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등산로 아닌 등산로를 합하면 줄잡아 150여개는 넘을 것이라고 남산연구소 김구석 연구실장은 추산했다. 이들 등산로는 토양유실은 물론 유물 훼손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문화재 순례길을 조성해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말한다.

일반인들에게 남산을 잘 알리기 위해선 안내판 정비도 시급하다. 글자가 떨어지고 없는가 하면 시와 민간단체에서 세운 이정표가 지시하는 방향이 달라 초행자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남산을 남산답게 가꾸기 위해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마련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다. 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 이은석 학예연구사는 "세계문화유산 등록도 뜻깊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라며 "전체적 계획아래 박제화된 박물관이 아니라 생명있는 성산으로 가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98년부터 '남산일원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1차로 2002년까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보존·정비사업은 98~99년에 걸쳐 현장 실사작업을 마쳤고 올 11월말 쯤 '남산 보존 정비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시는 또 11월말 세계문화유산 정식등록에 맞춰 〈남산 문화재 종합도록〉을 발간하고, 국사골 제1절터 삼층석탑 복원을 시작으로 13곳의 폐탑지를 발굴·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앞둔 남산의 유물은 아직도 제자리와 형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젠 중장기적 계획아래 보존을 생각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 성불할 수 있나? 소승불교 "없다" 대승불교 "있다"

"한국불교 여성관 잘못"
이현욱 박사, 불교학 워크숍서 주장

"한국불교는 소승보다 대승의 계율을 수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교의 여성관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이현욱(동국대 강사) 박사는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에서 부처님 재세시부터 계속된 '여성 성불' 논쟁을 통사적으로 조명한 '여성의 여성관'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을 상하의 관계로 보는 한국불교의 '여성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남성중심적 소승 계율인 〈사분율〉과 '팔경계법'에서 비롯됐는데, 이러한 상황은 후기 대승불교의 '여성즉신성불론(女性卽身成佛論)'을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사분율〉에 나타난 여성 출가자는 법랍에 관계없이 남성 출가자를 받들며, 그들의 감시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성불할 수 없는 존재'(여성성불불가론·女性成佛不可論)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부처님은 아난과의 대화에서 여성의 성불을 인정했다"며 "경전의 여성 차별적 가르침들은 후대에 첨가되었거나,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팔경법의 상당 부분이 비구니 교단의 설립 후에 나온 용어나 조항이 들어 있어, 경전 편찬에 참여한 남성 출가자의 '반여성성'이 배어들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분율〉, 〈불설옥야경〉, 〈앙구타라 니카야〉 등에서 강조된 '성불불가론'은 부파불교 시대까지 내려오다가, 초기 대승불교의 등장과 함께 '여성변성남성성불론'(女性變成男性成佛論)으로 변화했다. 이 박사는 "〈법화경〉, 〈무량수경〉, 〈대아미타경〉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변성성불론'은 초기 대승 교단이 기존 부파 교단의 여성관에 제동을 걸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중용적 이론으로써 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변성성불론'은 다시 후기 대승불교에 이르러 〈유마경〉, 〈승망경〉 등에서 '여성즉신성불론'(女性卽身成佛論)으로 탈바꿈하는데, 대승불교가 인도사회에 정착하면서 직접적으로 여성성불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 박사는 "즉신성불론은 부처님의 여성 인식을 가장 잘 계승한 완벽한 불교 여성론"이라며 "여성 성불에 대한 관점이 성불불가→변성성불→즉신성불로 변화는 과정은, 남성 중심의 왜곡된 교설을 바로 잡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박사는 "삼국·고려·조선시대의 여성 불자들의 삶을 조명해, 우리 나라에서의 '불교 여성관'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돈황 화엄경변상도 한국 화엄탱화 시원"

해주스님 '막고굴…' 논문

돈황 막고굴 가운데 29개의 굴에 그려진 '화엄경변상도'와 한국의 화엄탱화의 관계가 중국의 돈황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해주(동국대 교수) 스님은 29일부터 6일간 개최되는 돈황연구원(원장 번금시)의 국제 학술심포지움에서 '막고굴의 화엄경변상도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

해주 스님에 따르면 막고굴의 화엄변상도는 〈80화엄〉을 소재로 한 7처9회도로서, 조선 후기 화엄탱화의 시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해주 스님은 "한국의 화엄탱화는 조선 후기에 독자적 구도를 보이고 있으나, 막고굴 변상도와의 유사성을 떨치진 못했다"며 "조선 후기 대표작으로 꼽히는 송광사·선암사·쌍계사·통도사의 화엄탱화에서 〈80화엄〉을 소재로 한 '7처9회도'가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송 시대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의 화엄경변상도는 선재구법도 등 7처9회도 중심의 〈80화엄〉을 다루고 있다. 이 변상도는 선재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53선지식을 만나 보살도를 배워 해탈문을 성취하고 법계에 들어간다는 여정을 옮긴 것이다.

돈황 막고굴 발견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심포지움에는 로틀위블스(영국)·마릴린리(미국) 박사 등 돈황 관련 권위자를 비롯해 프랑스·독일·일본·스웨덴·캐나다·말레시아·홍콩 등 10여 개 국에서 180여 명의 돈황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해주 스님 외에도 배진달(용인대) 교수가 '돈황석굴 편년연구-굉배 형식을 중심으로', 이수웅(건국대) 교수가 '한국의 돈황학 연구현황' 등을 발표한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회당 학보' 5집 발간

회당학회(학회장 혜정)는 '조선시대 다라니경·진언집의 간행과 그 역사적 의의'(남희숙) 등 제1회 진각논문 대상 당선논문을 게재한 〈회당학보〉 제5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불교의 선정과 요가의 삼매 대한 비교연구'(임승택), '인도 불탑에 담긴 상징성에 관한 연구'(권기현) 등 당선논문 6편과, '고려·조선시대의 범자문화 연구'(허일범) 등 연구논문 2편이 수록됐다. (02)913-0753

초의재단 차문화 연수

초의학술재단(이사장 용운)은 29일부터 8월1일까지 제12회 한국차문화 연수를 실시한다. 옛 가락국의 수도인 경남 김해 구지봉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에는 가락국 시대의 '행다법' '헌다제' 등의 실습과 '김해 가락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허명철씨의 특별강좌 등이 마련된다. (02)732-2317~8

한국불교연구원 연수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은 제27회 연구원 연수를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실시한다. 참가대상은 서울·대전·부산·대구 지역의 구도회원, 원효학당 학생, 전국교사불자회원 가족 및 희망자이다. 참가회비는 6만원이고, 7월 2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02)3411-6167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 관련 e메거진을 '클릭'해 읽으면 세계의 불교계 동향을 알 수 있다. e메거진이란 불교단체·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의 일종. 불교 관련 웹사이트 중 0.1%(약 3000여개)에 이르는 곳에서 주간·월간·계간 등 정기적인 e메거진을 제공하고, 해당 단체와 지역의 법회·신간·법어·뉴스 등을 게재하고 있다.

클릭! 뉴스레터…불교 보여요

△부다야나(Buddhayana · www.buddhayana.nl)는 네덜란드 불교계에서 발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소식지는 '국내·외 뉴스' '법어' '사사나(sasana·가르침)' 등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4월호 주요 소식 중에는 유럽의 불교학계에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윈프리트 크루켄버그 박사(독일)가 타계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크루켄버그 박사는 〈자연과학과 부처의 가르침〉(1989년 刊) 등 과학·종교계의 교류 확대에 주력해온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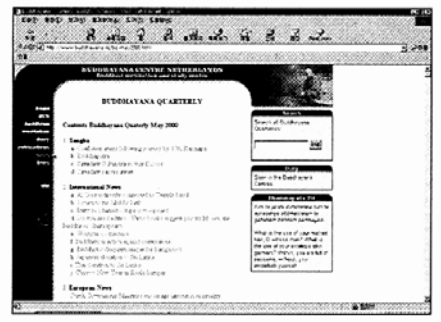
△중도(The Middle Way · www.buddsoc.org.uk/mw.htm)는 영국 불교계를 요목조목 알려주는 소식지. 최근호(5월)에는 '근본 명상' '계율·수계의 의미' '정(定)의 지혜' 등의 교리 강좌와 다양한 영국 교단의 소식을 담았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영국 불교계는 현재 '위삭의 날'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위삭(vesakha)이란 팔리어로 4~5월,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출가·성도·열반일이 있는 이 기간동안 위삭축제를 열고 부처님의 공덕을 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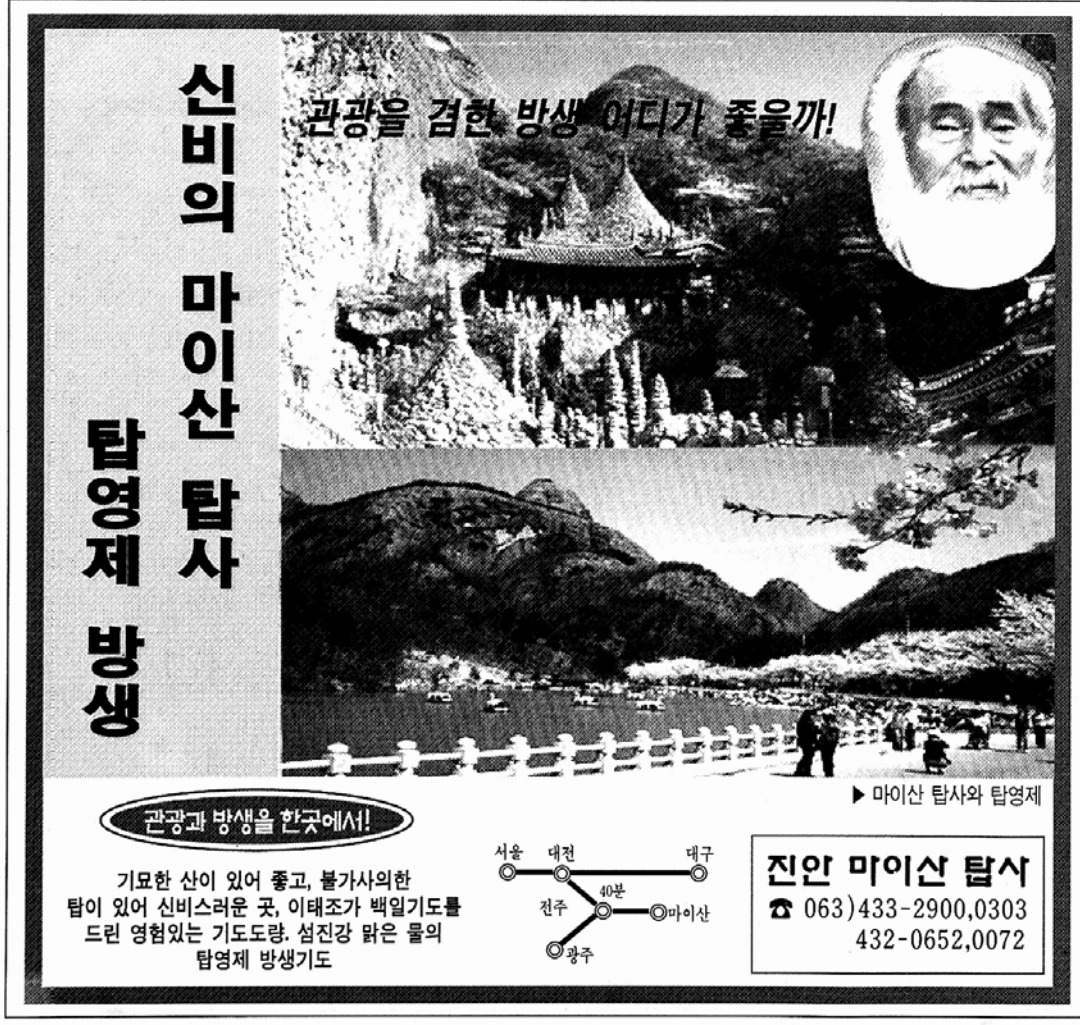
△산 기록(Mountain Record · www.zen-mtn.org/mr/journal.shtml)과 알부쿨리쿼(Albuquerque · www.viva.com/azc/articles.html)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계 불자들의 법회·신간·모임 등의 소식을 담고 있다. 최근 발간된 5월호에는 뉴욕에서 열린 첫 봉축법회에 대한 소식과 미국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파묵카 세라 스님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불교신자의 도리' 등을 주제로 한 법문도 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프렘트리젠도, 삼발라센터 등 미국의 대표적인 선원 10곳의 소개도 싣고 있다.

△지혜(www.wisdom.org/newsletters.html)는 프랑스 불자들이 쓴 선시(禪詩)와 신행 수기 등을 읽어 볼 수 있는 뉴스레터로, 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지혜선 센터'의 공지사항과 경전 해설, 불자 펜팔 소개, 프랑스 내 사찰 소개 등 알찬 내용이 가득하다. 여기에 매월 '알기쉬운 불교'라는 메뉴를 개설, 프랑스 초심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등 불교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레터의 열람은 해당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메일링리스트는 사이트 정보를 열람한 후, 방문록이나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특정 양식에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를 기록하면 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일주일이면 나도 사주를 볼 수 있다.
왕초보도 볼 수 있다!
사주 공부 이젠 자신 있다!
기초를 튼튼이 잡아주면 절반은 성공!
초보자를 위한 역학 지침서
미래가 보인다.
자식의 유무·어떠한 직종이 나의 적성이며, 어느 길로 가야 적합하며 언제 운이 열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명리학이다.

김윤중 저
신국판 값 15,000원

라즈니쉬의 禪으로 보는 눈
사람은 깨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명백한 것을 놓칠 것이다.
달마(dhama)는 명백한 것이다.
신(神)도 명백한 것이다.
그것은 복잡한 것도, 복합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매우 가까이 있다.
그대의 가슴에서 고동치는 것이 달마이다.
그대의 피속에서 전기가 '찡!'하고
통하는 것이 달마다.
그대를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재료가 달마이다.
그러난 아직도 그대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신구판/라즈니쉬 지음
길연옴김/값 9,000원

여름학교 어린이 불교 교재
어린이들이 고운 마음에 깊고 넓으신 부처님의 가없는 마음을 심어 주는 일은, 그들의 고운 꿈과 슬기로운 지혜를 한껏 일깨워 주고, 마음을 바르게 키우는 일에 꼭 필요하며, 또한 불교의 앞날을 위해서도 더욱 필요합니다.
불교 교재
1.우리들의 부처님 2.둥글고 밝은 길
3. 마음의 등불 4. 거룩하신 부처님 5. 합장하는 생활

신국판/각권 25,00원

화제의 신간
걸에 가니 아름다운 세상이 보인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생애 점에서 지킬 예의 등을 알기 쉽게 풍이 한 입문서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는 이 우주를 모두 감싸고도 부족함이 없으며 말고 글로써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신구판/불교문화진흥회 엮음
값 8,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조 대전 신국판/이선일,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姈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육화법 따라 화합하라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6〉

팔관재계-4

계는 구속아닌 삶의 가치 기준

청정히 계 지킬때 불교 중흥

계는 불교의 순수성을 유지해 주는 빛이다. 계는 인생에 있어 올바른 삶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가 허물어질 때 불교가 쇠퇴하는 것이며, 계행이 청정한 동안은 정법(正法)이 아름답게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오직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세속적 가치를 보다 쉽게 획득하기 위해 불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을 향해 앉아 부처님께서 버리신 왕궁의 권력과 명예를 구하고 있고, 출가를 하고서도 기득권과 기존의 전도된 세속의 가치를 오히려 더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해탈을 구하면서 아집과 독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열반을 주장하면서 권위와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잘못된 가치를 버리고,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계를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계는 우리를 열반으로 이끄는 영원하고 단단한 생명의 줄이며 구원의 밧줄이다. 계는 지키는 데 뜻이 있고, 그것이 곧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코삼비 근처 죽림에 사는 세 비구를 찾아갔다. 아누루타, 난디야, 킴발라는 부처님을 뵙고 너무나 기뻤다. 난디야는 부처님의 발우를, 킴빌라는 가사를 받아들고 노란 대나무 덤불 바로 옆에 자리를 만들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었다.

"수행은 잘 되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탁발을 다닐 때나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없는가?"

아누루타가 대답했다.

"저희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음식 공양도 많이 받습니다. 법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도 잘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화합하게 살고 있는가?"

"저희는 꿀과 우유처럼 잘 어울리며 화합되게 삽니다. 난디야와 킴빌라와 함께 살게 된 것은 저의 큰 복입니다. 저희들은 우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언제나 제 말과 행동이 이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저는 그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세 사람이지만 한 사람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른 두 스님을 바라보았다. 킴빌라가 말했다.

"아누루타의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화합 속에 살고 있으며,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 줍니다."

난디야가 덧붙였다.

"저희는 뭐든지 나눕니다. 음식이든 지혜든 경험이든 모두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을 칭찬하셨다.

"정말 잘했다. 너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들으니 정말 기쁘다. 화합할 때만이 공동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이다."

부처님은 이들 세 비구와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명상이 끝난 후 이들이 음식을 탁발하러 가는 모습을 보셨다. 누구든지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자리와 손씻을 물을 준비했고, 빈 그릇에 자기 음식을 조금 덜어 먹을 걸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도반이 먹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같이 그릇을 씻었다. 무언가 고쳐야 하거나 다른 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했고,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세 사람이 모두 함께 했다. 이들은 수행과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여 앉아 이야기했다.

죽림을 떠나기 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공동체의 본질은 화합이고, 화합은 육화법(六和法)을 잘 지키면 이루어진다. 공간을 나누기, 일상생활의 필수품 나누기, 같은 계를 지키기, 화합에 덕이 되는 말만 하기, 지혜와 이해를 나누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이다. 이 육화법을 잘 지키는 공동체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런 방식의 삶을 계속 하여라."

비구들은 부처님과 같이 한 달을 지낼 수 있어 기뻤고,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어 더욱 기뻤다.

계행이란 결코 구속이나 강제는 아니다. 이를 구속이나 강제로 받아들인다면 계의 정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계는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이면 누구나, 혹은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가치 기준으로서 행동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악업을 되풀이하지 않고, 나와 남이 함께 선업을 쌓아 고통을 극복하고 불세계로 가기 위한 행동의 가치 기준이 바로 계이다.

그러므로 불자라면 항상 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혹시 계를 파했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참회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을 해야 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한마음 잃지 않으면 생사 초연할 수 있어"

법회중계

백중영가천도법회



일면스님
〈남양주 불암사 주지〉

다겁생 살아오며 쌓은 원한과 업보 녹이려면 참회 마음으로 천도를

원효스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디서 왔으며, 죽은 뒤엔 어디로 가는가, 태어나는 것도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나는 것과 같고, 죽음도 또한 한 조각 구름이 없어짐과 같다. 떠도는 구름이 본래 실체가 없듯이 생과 사의 오고 감 또한 그런 것과 같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항상 변치 않으면 초연히 생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건만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으면 또한 반드시 태어남이 있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육도를 윤회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천상에 나기도 했고, 사람 몸을 받아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했으며, 축생으로도 태어났고, 아귀 아수라 지옥의 고통도 받았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늘 고통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과거의 연장위에 오늘이 있고 오늘의 연장위에 내일이 있듯이, 금생의 연장위에 내생이 또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망상과 착각 속에 사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윤회고를 끊는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한 듯 업장에 취해 생사의 고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것입니다. 금생에 부모자식으로 만나 갖가지 업만 쌓다가 죽음으로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업보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자식간에 혹은 형제, 이웃간에 만나는 고통도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업보들을 녹이고 없애는 것이 바로 참회고 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목련존자에게 어머니와 전생으로 얽힌 업보를 끊고 새로운 정진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력 15일에 음식과 과일을 준비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어머님을 위해 천도재를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이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나 천상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고, 이에 목련존자가 그대로 행한 데서 우란분재가 유래되었습니다.

우란분재는 거꾸로 매달려 지옥에서 무수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천도하는 공덕의 날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죄와 업의 뿌리가 깊어 거꾸로 매달려 지옥에서 구제불능이었으나 목련존자가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드리고 천도재를 모셔 돌아가신 어머님을 왕생극락케 하였던 것입니다.

또 죽은 부모나 이 세상 살아있는 부모를 위해 그들이 액난을 벗어나게 하려는 공덕을 쌓는 효행의 날입니다.

부처님께 뜻을 물어 목련존자가 지옥고를 받고 있던 어머니를 천상세계로 구제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하고 뜻을 받들어 우리들의 조상영가와 남편, 아내, 자식, 친척,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은 영가 등 다겁생으로 만난 영가들을 천도하고자 발심하고 백중 49일 영가천도재를 올려야 합니다. 또 모든 인연 깊은 중생들의 맺힌 한을 푸는 참회의 마음으로 이 영가천도재를 올려야 합니다.

어느 때 어떤 기도가 소중하지 않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중 49일 영가천도재는 더더욱 소중한 기돕니다. 우리 자신이 복덕을 누리려면 참회를 해야 하듯이,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면 가슴에 한을 묻어 두어서는 안됩니다. 이 백중 49일 영가천도재에는 바로 이런 큰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불자들이여! 다 함께 일심으로 정진합시다. 부처님께 큰 가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정리=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20여 대학 불교학강좌 개설 '붐'

세계의 불교학 〈26〉 미 국 ①

50년대 비트세대 불교에 심취

1890년 이후 논문 4백51편 발표

하버드 · 위스콘신 · 시카고 · 버지니아 · 예일 · 콜롬비아 · 버클리 등 명문 주립대와 사립대를 합쳐 20여 곳의 대학에 불교학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고, 미국종교 · 아시아 · 국제불교 · 비교철학 · 서장 · 빨리문헌 등 10여 개의 학회에서 불교학 관련 논문이 빈번하게 발표되는 미국.

이곳 불교학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북미주에서 발표된 논문 초록 전산 자료집(UMI Dissertation Abstracts Ondisc)을 검색하면 된다. 미국의 불교학이 얼마나 활발한가는 1890년부터 1998년까지 불교 관련 논문 451편 가운데, 1990년부터 8년 동안 무려 206편의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 불교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종교회의(The World Parliament of Religions)이지만, 불교가 연구의 주제로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 미국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할 때는 비트 제너레이션(Beat Generation)이 활동했던 50년대. '피곤해 하는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트 제너레이션'은 50년대의 절망을 대변하는 일군의 젊은 소설가, 시인, 진보주의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주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는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낭만주의 경향과 실존주의 속성을 함께 보이며, 수행자와 비슷하게 생활했다. 실제로 그들은 '비트 젠(Beat Zen)'으로도 불렸다.

주요 인물로는 케로우액(Jack Kerouac), 스나이더(Gary Snyder), 긴스버그(Allen Ginsberg), 웰쉬(Lou Welsh)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캐로우액은 19세기 초월주의자 소로우의 영향을 받아 동양철학을 연구하다가 고다드(Goddard)의 〈불교 성전(Buddhist Bible)〉를 읽고 불교에 심취했다. 그의 유명한 소설 〈달마 밤즈(Dharma Burns)〉는 미국인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 버클리대에서 중국어를 공부한 스나이더는 수행과 선시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그의 선시는 동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들은 모두 선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현대 사업 사회의 그늘을 수선자(修禪者)의 시각으로 들추어 내곤 했다. 이러한 모습은 선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 활동과 연계하여 실용성을 연구 · 검토하고 있던 심리학자와 정신의학자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버드대에서 스즈키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던 프롬(Erich Fromm)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이 · 당시 와트(Alan Watts)는 스즈키와 함께 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 '비트 젠'에 대조되는 이른바 '스퀘어 젠(Square Zen)'을 이끌었는데, 미국 주류 사회에 전통적 선을 소개하는 데 기여했다.



◇대중법회에 참여한 미국인 여성불자들.

한편 이 시기에 아시아로부터 몇 명의 선사들이 미국에 와 참선을 지도한 것을 계기로 일본 선불교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1956년 일본 임제종과 조동동 전통을 겸수한 마에즈미 로쉬이 로스앤젤레스에 왔고, 1959년 일본 조동종 계통의 스즈키 로쉬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으며, 소유마추오카 로쉬는 시카고에 가서 참선을 지도했다. 그해 중국으로부터 선화 법사가 북가주에 만불성(萬佛城)을 개원해 중국불교 포교의 기틀을 다졌다. 월남의 불교학자 틱 티엔안 박사도 1962년 로스앤젤레서에 국제불교 명상 센터와 동양학원을 설립했고, 스리랑카의 구나라타나 스님은 워싱턴에 비하라를 설립했다. 티베트 불교도 1969년 탈탕 불구(Tarthang Tulku)가 버클리에 티베트 사원을 개원했다. 이와 같이 신행 공동체가 증설되는 가운데 대학이 종교학과나 아시아의 언어 · 문화 분야 학과에서는 불교가 개설되고, 불교서적도 많이 발간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갓바위 · 소원성취

원광 달마도

◐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쳐드립니다.



부부화합, 결혼, 건강 사업성취 · 재수대통 · 수맥차단

지장전 중창불사 기금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선근인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품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정성과 얼이 담긴

국내 최초특허청에 등록 (제0246178호)

승복 · 법복 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의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안한 제품이며 연꽃 · 옴 · 만자무늬를 원단에 직접제작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쟈가드 원단이며 원가를 절감하여 기존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매우 활동적이며 개량 한복처럼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교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희 수레바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불교발전에 귀의할 것입니다.



▶ 다의장 등록증



특별보급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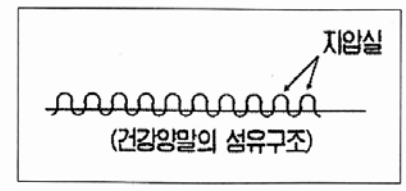
저고리 바지	남:85,000 여:80,000
긴 쪼끼	남:45,000 여:40,000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종질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1층)
■상담전화 (053)764-4114
■휴 대 폰 (011)9850-44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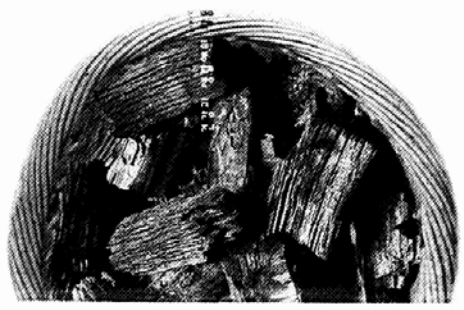
건강 숯 양말 특허상품



반사요법으로
발에서 氣가 쏟아진다.

◈ 건강숯 양말
· 피로회복, 혈약순환, 향균발생
· 원작외선 차단, 음이온 발생
· 무좀방지, 피로회복

※ 건피부(발이 갈라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숙취해소
· 원적외선 차단



숯양말 신으면!!
당뇨에는 양이 안오름

◈ 특별할인 전시 판매가격
男 10컬레 35,000
女 10컬레 30,000
(타지방 부쳐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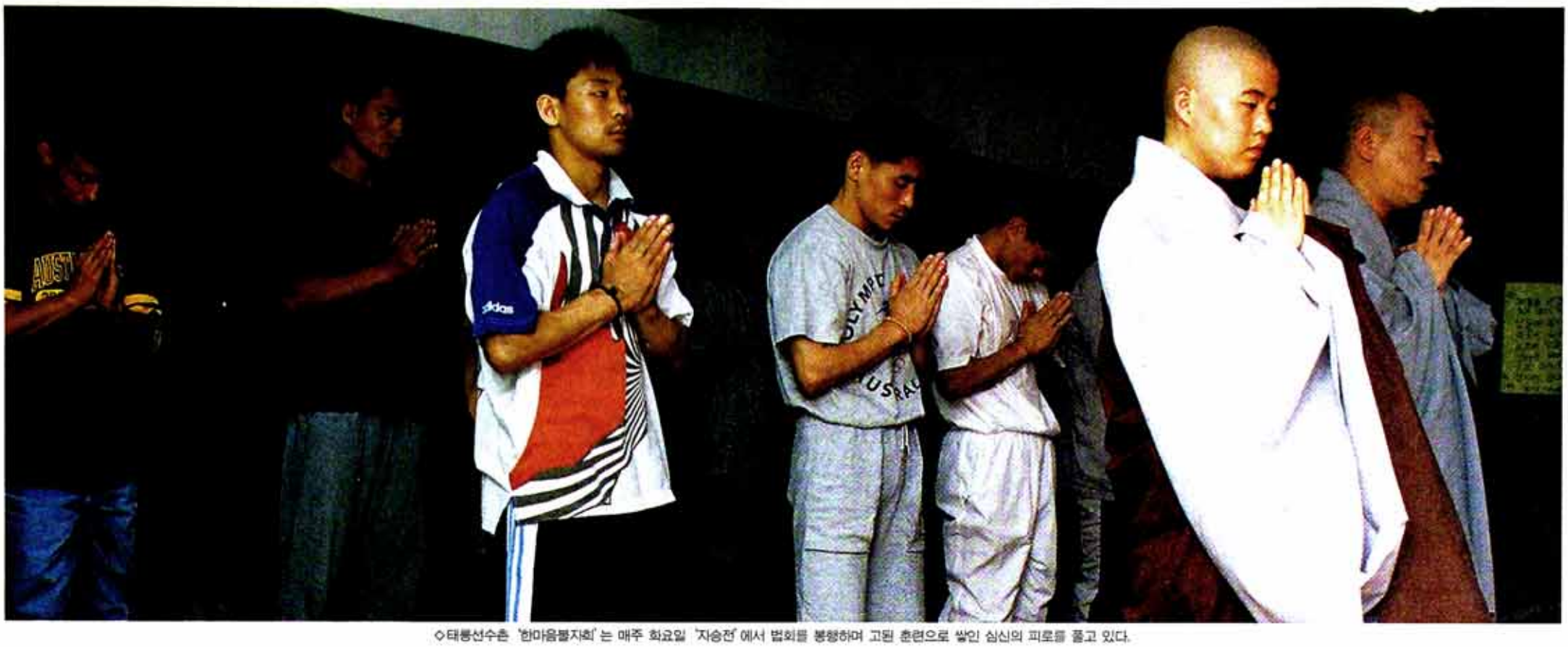
올추석 선물은 건강 숯 양말로!!

대구 문화의 거리에서 2000년 신바람 150인 부채 그림전에 특별 아트 기획 상품으로 선정
◈ 전시판매장소 :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대림당화랑 (053) 424-0115 2000년 7월 21일부터 한달간

전국 취급점 모집 상담문의 053)983-4976 / 011)813-3679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서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태릉선수촌 '한마음불자회'는 매주 화요일 '자승전'에서 법회를 봉행하며 고된 훈련으로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있다.

시드니 올림픽 두달 앞으로 **태릉선수촌 불자들의 여름나기**

훈련 짬짬이 기도-독송
"땀흘린 만큼 좋은 결과를"

지금 태릉선수촌은 무더위에 신경쓸 여력이 없다.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 더욱더 투지를 불사른다. 어느새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문이다. 1등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이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승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마음만 초조해지기 일쑤라는 게 선수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래서 시합에 임박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보다 온갖 번뇌와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정신력 훈련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트레이너들은 귀띔한다. 불자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다. 바쁜 훈련 스케줄 속에서 잠시동안이나마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처님을 찾는다. 염주도 쥐어보고 기도도 하지만 법당에 직접 오는 것이 심신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일 저녁 7시 태릉선수촌. 트레이닝복 차림의 건장한 청년들이 국립체육센터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이들을 유심히 살펴 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운동으로 단련된 강인한 손목에 모양과 색깔이 각기 다른 염주가 끼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인 곳은 국립체육센터 2층에 있는 자승전(自乘殿). 태릉선수촌 법당으로 쓰고 있는 10평 남짓한 이곳은 국가대표 불자 선수들이 모여 고된 훈련속에 쌓인 피로를 풀고 신심을 다지는 도량이다. 지도법사 견허 스님(중앙승가대 학인)이 〈천수경〉 독송과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는 동안 20여명의 참석자들은 법요집을 보며 따라하기도 하고 합장한 채 눈을 지그시 감기도 한다. 법당은 바깥 무더위와는 또다른 열기로 가득하다. 그런 가운데 재미난 사실은 대부분 선수들이 보통의 법회에서 처럼 결가부좌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앉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마음불자회를 후원하고 있는 수덕사 포교국장 정암 스님은 "어려서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해온 대표선수들은 하체 근육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처럼 결가부좌를 틀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태릉선수촌 불자들로 구성된 '한마음불자회(회장 정성숙·유도)'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견허 스님의 지도로 '시드니 올림픽 필승 기원법회'를 봉행한다. 1년동안 중단됐던 법회가 9월 15일부터 열릴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이다.

한마음불자회는 구성원들이 국가대표선수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큰 경기가 있을 때만 주로 모인다. 그래서 법회도 자주 중단된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도 불자들이 많지만 특히 체조, 레슬링, 역도, 복싱 등 개인종목의 선수들이 법회에 자주 참여하는 것도 또하나의 특징이다. 축구나 야구 등 구기종목과 단체종목의 선수들은 잦은 해외 전지 훈련으로 태릉선수촌의 입촌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날 법회 참석자들도 레슬링 심권호, 복싱 조석환·최기수, 체조 이주형·정진수, 수영 이지현·이보은 등 개인종목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문경애 선수(역도 무제한급)는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숙소에서 푹 쉬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부처님께 기도하고 참선을 해보니 그냥 쉴 때보다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져 좋다"며 "낮에는 땀흘리며 운동하고 저녁에는 독송과 참선을 통해 삼매경에 빠지면 더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무더위 극복법을 소개한다.

태릉 선수촌에 법당이 생긴 지는 10년이 넘는다. 빈 참고나 사용하지 않은 공간 등을 빌려 등지를 틀다가 세 번이나 이사 한 뒤에야 현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현판 하나 걸려 있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들이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법장 스님(수덕사 주지)이 지난주 법회를 다시 열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자승전(自乘殿)' 현판을 달았다. 이사할 때마다 몇 번 씩 옮겨다닌 불상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칠이 벗겨졌다. 태극 전시들은 이번 법회를 앞두고 부처님의 이런 모습이 안스러웠는지 혼심의 힘을 다해 불상을 닦다가 오히려 상처만 내고 말았다. 불심이 넘쳐서일까, 일(?)을 벌이고 난 뒤 스님에게 혼날까봐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던 불자 선수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트린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견허 스님은 "선수들에게 법당은 언제나 마음놓고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루함을 느끼기 쉬운 법문보다는 승부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승부의 갈림길에서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운동 선수들에게 심신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에게 정신 수양을 강조하는 불교의 정진 수련은 가끔 훈련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된다. 좋은 예로 20여명의 레슬링팀은 지난 5월 단양 구인사에서 3천배 정진을 하고 돌아왔다. 대부분이 불자들이었지만 3천배 정진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체력만 믿고 '3천배쯤이야' 하고 얕봤던 선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법당에 '쿵'하고 쓰러져 머리를 찧는 선수도 있었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심권호 선수(54kg급)는 "7년동안 태릉선수촌에서 지내며 법당을 다녔지만 3천배 정진은 처음이었다"며 "5시간만에 3천배 정진을 끝내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한 환희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시드니 올림픽을 앞둔 대표 선수들로선 이번 여름이 매우 중요하다. 체력이 저하되고 훈련 능률이 떨어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철에 철저한 자기 관리가 안되면 슬럼프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은 승패의 강박에서 벗어나 심신의 안정과 피로를 불교적 수행법을 통해 풀며 자신을 추스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부처님에 의지해 모든 유혹을 떨쳐 버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뛰고 달리며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태릉선수촌 불자 선수들의 올 여름 무더위를 이기는 모습이다.

글=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법당은 '최고의 휴식공간'임을 강조하는 정암 스님.



◇힘들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하라며 견허 스님이 선수들에게 염주를 나눠주고 있다.

한마음불자회 매주 화요일 법회

3천배 올리며 정신안정-체력훈련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⑦

能制舌賊 不貪邪味 讚詠講說 能除懈怠 不貪名利 山林樹下 宴坐修道
능제설적 불탐사미 찬영강설 능제해태 불탐명리 산림수하 연좌수도
無疲厭心 名爲精進 能伏身賊 不淨觀想 不貪飮食 節量而食 不貪睡眠
무피염심 명위정진 능복신적 부정관상 불탐음식 절량이식 불탐수면
於諸觸欲 湛然不動 名爲禪定 不貪世樂 不著名利 不著恭敬 不著利養
어제촉욕 담연부동 명위선정 불탐세락 불착명리 불착공경 불착이양
能調意賊 不順無明 常修覺慧 不貪世智 不著文章 不著辯才 不著諸見
능조의적 불순무명 상수각혜 불탐세지 불착문장 불착변재 불착제견
樂諸功德 名爲智慧 又度者運也 不貪名聞 不著利養 不著恭敬 不著諸相
악제공덕 명위지혜 우도자운야 불탐명문 불착이양 불착공경 불착제상
六波羅密 喩若船筏 能運衆生 不貪名聞 不著利養 不著恭敬 不著諸相
육바라밀 유약선벌 능운중생 불탐명문 불착이양 불착공경 불착제상
達彼岸故 云六度 不貪名聞 不著利養 不著恭敬 不著諸相 達彼岸故
달피안고 운육도 불탐명문 불착이양 불착공경 불착제상 달피안고

혀의 유혹을 다스리면 그릇된 맛을 탐내지 않고, 불법을 읊고 이야기하되 피로하다거나 싫어함이 없는 것을 정진이라 하며, 육신의 유혹을 항복받으면 모든 감촉(感觸)의 욕망에 담담해져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 하며, 뜻을 잘 다스리면 무명(無明)을 따르지 않고 항상 깨침의 지혜를 닦으면서 모든 공덕을 즐거워하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또 도(度)라고 함은 '운반한다'는 뜻이다. 육바라밀은 비유하자면 배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운반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므로 육도라 하는 것이다."

육바라밀은 배와 같아서 모든 중생 피안으로 운반

方證佛果 若言如來 貪於世間狀欲和合 不淨穢腥之乳者 豈不成謗之甚乎 기불성방지심호

다시 물었다. "경문에는 '석가여래께서 보살로 계실 때, 서 말 여섯되의 우유죽을 드시고 비로소 성불하셨다'했습니다. 먼저 우유를 드신 후에 불과(佛果)를 증득하셨는데, 어째서 관심(觀心)만으로 해탈한다 하십니까."

대답했다. "진실로 경문의 말씀은 허망함이 없다. 우유를 드신 후에 비로소 성불하셨는데, 이는 세속의 부정한 우유가 아니라 진여(眞如)의 깨끗한 법유(法乳)이다. 서 말(三斗)이라 한 것은 삼취정계요, 여섯되(六升)라 함은 육바라밀이다. 부처님이 성도(成道)하실 때, 청정한 법유를 마심으로 해서 불과(佛果)를 얻으셨는데 도리어 말하기를 '세속의 음욕으로 화합된 누린내 나는 젖을 먹었다'하니, 비방함이 심한 말이 아니겠는가.

如來者 여래자 自是金剛不壞無漏法身 자시금광불괴무루법신 永離世間諸苦 豈須如是不淨之乳 영리세간제고 기수여시부정지유 以免飢渴也 如經所說 此牛不 이면기갈야 여경소설 차우부 在高原 不在下濕 不食栗麥糠 재고원 부재하습 불식율맥강부 不與特牛同群 其牛身作紫摩金色 불여특우동군 기우신작자마금색 言此牛者 則毘盧遮那佛也 언차우자 즉비로자나불야

여래란 금강석과 같아 무너지지 않는 무루법신(無漏法身 : 번뇌 없는 진실한 몸)이라서 세상의 고통을 영영 떠났는데, 어찌 이같은 부정한 우유로 기갈을 면했겠는가. 경에 말한 것처럼 '이 소는 높은 언덕에도 있지 않고,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않고, 곡식이나 지게미도 먹지 않으며, 잡된 소와 어울리지도 않으며, 몸은 자마금색(紫摩金色)이다'하였으니, 이 소는 바로 비로자나불인 것이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마음만 잘 쓰면 잘 사는 길"

화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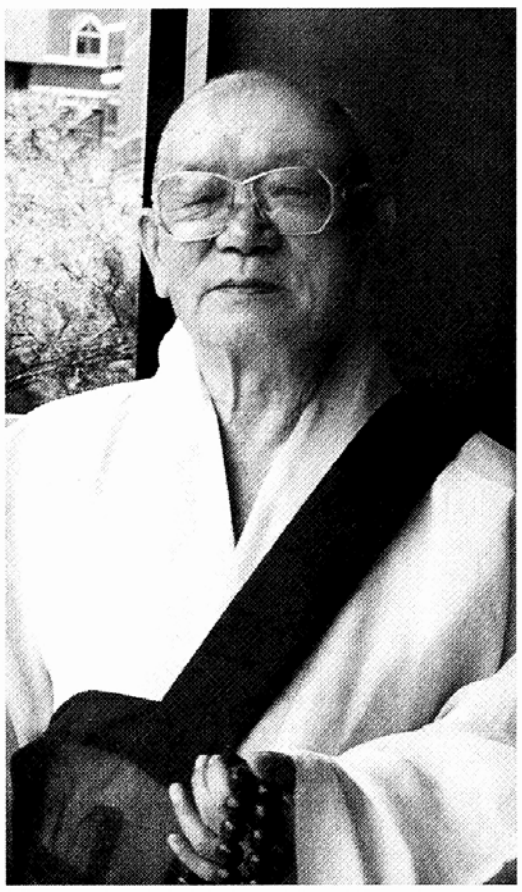
대구 보광원 조실

"나는 강이다, 나는 계곡이다 생각하세요. 강에는 나무가지가 떠내려와 걸리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져 흘러가기도 하며 뱀이 헤엄쳐가고 개구리 올챙이 물고기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강은 유유해요. 그냥 흘러만 갑니다. 버들가지가 물에 늘어뜨려져 흔들흔들 체질을 해도 물결만 살랑살랑할 뿐이지요.

누구나 계곡에 가면 시원하고 좋다며 휴식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자연스럽기 때문이지요. 물이 흘러 바윗돌에 부딪치면 부딪치는대로 흘러내려가고 조그만 길이 있으면 그런대로, 넓으면 넓은대로, 좁으면 좁은대로 흘러갑니다. 무언가 따라 내려오다 걸쳐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물따라 내려가지요.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산스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강처럼 계곡처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다.

각양각색의 만물이 모여사는 이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 자체로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묘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화산스님에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했다.



· 1919년 경남 양산 生
· 17세때 통도사 자장암서 허몽초스님을 은사로 득도
· 방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 일본 임제선문학교 졸업
·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통도사 강주 역임
· 현재 대구시 수성구 보광원에 주석

—가뜩이나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특히 요즘 더 시끄럽고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의료분쟁이다, 금융대란이다 하여 국민들은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져 갑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일소시키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일상생활가운데 해법이 있는데 일상생활속에서 찾지 않고 생활을 떠나 멀리 찾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생활하는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그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묘법을 멀리 찾을 것이 없어요. 화화초초(花花草草), 풀마다 꽃마다 다 때가 되면 스스로 만발해서 대자연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체득하지 못하고 그것말고 별도로 있는 줄 알아 불법을 찾고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을 나 아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그래서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네가 입고 있는 옷속에 밝은 보배구슬이 들어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지요. 보배구슬만 찾으면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아느냐.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네 옷속에 있다. 네가 입고 있는 옷속에 들었건만 들었는줄 모르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법화경〉에 이러한 비유가 있어요. 각별한 친구로 지내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고 한 친구는 항상 곤궁해요. 하루는 가난한 친구가 정승을 하고 있는 질사는 친구를 찾아왔어요. 도움을 청하니 정승을 하는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내가 전에 너에게 준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어찌하고 아직까지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가난한 친구도 깜짝 놀라 되물어요, 언제 주었느냐. 지난번 나를 찾아왔을 때 너에게 보배구슬을 사는데 보탬이 되라고 주었다. 네가 밥을 먹고 곤히 잠이 들어있고 나는 일을 보자니 나가야 되는게 네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 깨울수가 없어 잃어버릴까봐 네 옷깃에 보배를 꿰대 넣어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나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옷깃을 찾아봐라. 해서 옷을 들치고 보니까 옷깃안에 보배구슬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몸에 보배구슬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곤궁하게 산 거지.

이 이야기는 뭘 비유한 것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자신속에 있는 본성을 찾으면, 즉 마음만 잘 쓰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무명속에서 헤맨다는 뜻이죠.

요새 계속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문제의 해법을 남이 주려니 하고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풀립니다. 각자가 자기의 행할 바를 찾아서 자기 일만 하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몰라요. 이 세상일은 대가없이 공짜로 얻어지는게 없어요. 대가를 꼭 치러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대가 치르지 않고 얻으려 하고, 잘 안되면 남을 탓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지는 겁니다.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기 보다는 자꾸 남과 비교하여 더 많이, 더 높이 가고자 하여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여 남이 하는 것을 못하면 불안해 하고 남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아야 안심을 한다고 합니다. 소욕의 기쁨보다는 무한의 욕구와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추구하며 사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경책의 말씀을 주십시오.

▲장자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학의 다리를 베어가지고 오리 다리에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해 지는가. 절대 만족해지지 않아. 오리다리가 짧다고 해서 학의 다리를 갖다붙여주면 슬퍼해, 괴로워. 맞지 않거든. 오리는 짧은 그대로가 좋거든. 또 객관으로 볼때도 학의 다리가 너무 기니까 오리다리를 베여 붙이면 균형이 맞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예요. 짧으면 짧은대로 균형이 맞고 길면 긴대로 균형이 맞거든.

〈부자합집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경책으로 삼으세요.

"탐욕을 끊지 않으면 불에 마른 나무를 지펴 주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응당 이를 제거해야 한다.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리니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의 싫증낼 줄 모름도 또한 그러하며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 때 찰 때가 없노니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의 싫증낼 줄 모름도 또한 그러하다. 이같이 온갖 욕망을 좋아하면 탐욕의 불꽃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니 마땅히 청정한 지혜의 물로 이를 꺼서 남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신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싶거든 우선 내 주위사람부터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내 주위라 하면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주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가까운 주위 사람부터 즐겁게 해 주고 편안하게 해줘 보세요. 남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진정으로 편해지는 사람이 나입니다.

—하심(下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하심이란 것이 실천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집에서도 중이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게 하심(下心)공부입니다. 하심공부는 더 수승한 공부를 성취하기 위한 밑천이 되는 수행입니다. 하심공부는 마음을 다루는 공부예요. 하심을 일반사회의 말로 하면 '겸손'이지요. 요새 툭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자존심을

天蓮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 대가 치르지 않고
> 얻으려 하고
> 잘 안되면
> 남탓하기 때문에
> 사회가 점점 혼탁

못되게 쓰면 안되는 법이지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면 감정이 뒤죽박죽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죽고 타인도 죽고 다 죽게 되지. 그런 죽은 사회가 될 것이 아니라 활력있고 영원하게 너와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심에 있습니다.

나는 잘났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남들은 모른다 그런 생각이 겹쳐지고 겹쳐지고 그것이 쌓인 것이 제가 잘났다는 우월감, 아상입니다. 그 생각을 놓아버리세요. 작은 자기를 버리고 큰 자기를 찾으세요. 이 마음은 넓고 광대하고 크고 영원한 것이니 습관적으로 익혀논 자존심을 버릴때 도리어 큰 도량을 갖게 됩니다.

ㅡ시대가 혼란하고 어지러우니까 불안하고 갈피를 못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중심을 잡고 근본을 지켜나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세태에서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마음을 다룰 수 있어요. 마음이란 것은 검은 것도 아니요, 흰 것도 아니요,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형의 것이예요. 통상적으로 마음이라 하지만 불교차원에서 말하자면, 즉 부처님에게 비유하면 청정법신비로자나불이 마음이예요. 일체 중생의 마음이예요. 청정법신비로자나불체는 어느 사람 안가진 사람 없고 어느 중생 안가진 중생이 없어요. 마음에는 자유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지요. 〈화엄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만법의 근원이요, 일만가지 기묘한 모든 것을 창출해 내는 묘법의 원리라고, 모든 것을 창출해 내는데 마음이 없으면 안되지요.

그래서 이 마음은 넓기가 끝이 없고 어디까지 하는게 아니고 아무리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달마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지요.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으니."

마음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란 한량없이 넓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구나 알면 통일도 가능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적을 없앨 수도 있지만 적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그 적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지요. 본마음은 이렇지만 인간은 업보로서 육체를 타고났기에 업을 짓게 되니, 수행을 해 마음을 닦아 마음이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게되면 저절로 청정해져서 해탈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몸은 불행할 수 있는 세가지 결점이 있어요. 그 첫째가 생명을 죽이는 살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은 다 살려하는데 살생을 하지 말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 첫째 계율이지요. 또 몸뚱이 가지고 하는 악한 짓이 도둑질과 사음(邪淫)입니다. 자기 몸뚱이지만 자기 몸을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에 빠지지 않도록 추스리기가 어려워요. 꼭 남의 것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예요. 투기라든가, 자기 분수 이상의 횡재를 노리는 것도 해당합니다. 또 그저 배고픔을 면할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배가 터지도록 과식하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이라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짓는 네가지 구업이 있어요. 입이란 게 그냥 구멍만 뚫려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정어(正語)를 해야 돼요. 악구(惡口) 즉 욕을 하고 험담을 하는 것도 안돼요. 우리 한국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도 맞아죽을 놈, 빌어먹을 놈 하고 욕을 하는데 아무리 별 뜻 없이 하는 이러한 욕에도 과보가 붙기 마련이예요. 양설(兩舌) 즉 이간질시키는 말, 그리고 기어(綺語) 말을 교묘하게 꾸며 비단같이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인데 아주 나쁘지요.

몸의 세가지 입의 네가지 이것만이라도 항상 삼가하도록 주의해 보세요. 거창하게 멀리 생각할 것 없어요. 이것부터 지키고 닦는다면 마음이 순화됩니다.

ㅡ불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오래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할때 나도 행복해 진다고 강조하시는 화산스님.

공동체 삶의 묘법은 '상대 인정'
"남 즐겁게 하면 나 저절로 편안"

된 습기(習氣) 습관(習慣) 탓인지 인욕, 보시 등을 늘 이야기하지만 알고있는 지식과 실천은 따로따로 인 것 같아 보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통 남에게 물건을 주는 것을 보시라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부처님의 걸림없는 법을 설해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예요. 불안하고 우울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편케 해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나아가서 한 물건도 내가 가진게 없다는 것, 다시말해 한 물건도 사람 사람이 가진게 없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예요. 진정한 보시란 아무 것도 일체중생의 것이 없다는 걸 알고 마음에 구하는 바 없이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물건이 없어도 무식한 사람도 보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힘이 부족해서 물건을 들고 가다가 팔이 아파 허덕허덕할때 좋아가 짐을 들어주는 것, 어떤 사람이 길을 물을 때 내가 갈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소중한 보시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가지씩 찾아서 보시를 한다면 이 사회는 바로 정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가 공덕쌓는 일인줄 알면서도 그것은 불경속에 있는 말이라고만 알고 내 생활에서 실천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ㅡ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55년동안의 적대감과 대치를 접고 남북이 서로를 알고자 하고 한걸음 다가서고 있는 이때 국민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일러주십시오.

▲우리 국민에게는 통일이 절대과제지만 의식전환없이 준비없이 통일이 급속하게 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부터 통일이 돼야 합니다.

국민들도 북한 사람들을 남이 아니고 우리 식구 한 민족, 같은 피를 나눈 겨레로 생각해야 합니다. 북한이 굶어죽는다 하니까 양식보내주고 비료 보내주고 하는 것은 참 잘 하는 일이예요. 과거에는 서로 적대하는 악순환속에 동족끼리 피를 흘리고 원수가 되었지만 그동안의 어두웠던 길을 청산하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따뜻한 동포애로 화합이 돼야 통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어요. 익을 때를 기다려야지.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때 통일은 오게 마련입니다.

또하나, 우리 나라를 이렇게 보존해 오도록 희생한 선조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이준 윤봉길 안중근 의사 등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존립하는 겁니다. 정치·경제·공무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무슨 일을 할 때 과거를 한번씩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 지도자들 좀 청렴했으면 싶어요. 이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오는데 무수한 선각자 애국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 애국선열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청렴하게 살았으면 싶어요.

근본이 흔들리면 안돼요. 근검절약하고 본분 지키면서 제 할일 열심히 하면 잘 살게 마련입니다.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천재 스님

스님을 알게 된 때는 치문반 시절이었으니까 한 스무 해가 넘는다. 그가 천재가 되기까지 내력은 잘 알 수가 없다.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였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천재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단식을 두세 차례 성공하고부터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물만 매일 마시고 지내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한 결과 놀랍게도 불망지(不忘智)에 가까운 기억력이 되살아났다는 것이다.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단식을 마친 그는 얼굴에서 환희심에 찬 미소를 잃지 않게 되었다. 번뇌라고는 한 티끌도 없는 모습이었다.

T.V 프로에서 천재 소년 등을 본 적이 있으나 실제로 함께 지내보기는 처음이었다. 책을 한 권 외우는 것은 예사였다.

서장(書狀)을 한 권 끝내는 날에는 서장을 천수경 염불하는 속도로 무척 빠르게 외우기 시작한다. 아침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외운다. 옆에서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였다.

얼굴도 준수하게 생겼고 체격도 건장한 편이었다. 군산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책 한권 외우는 일 예사
일본서 공부하며 환속

야구 선수였다고 한다.

무슨 마군(魔軍)의 시샘이 그리도 많았는지, 착하고 천재인 그에게 마군이 늘 대기하고 있는 듯 하였다.

무위법(無爲法)에 들려는 찰나, 그때마다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마군중(魔軍衆)이 나타났다는 불보살의 본생담 이야기와 비슷했다.

그가 어느 날 가야산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라진 때에는 대중들이 산을 헤매며 찾느라고 부산스러웠다. 수색작업을 하다가 한 스님은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부상을 입고 등에 엎혀서 절로 내려왔다. 그는 산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떠났다. 시계를 책상 위에 풀어놓은 채로 그냥 떠났다. 이틀 후 그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위 아래서 좌선을 하고 묵묵히 앉아 있는, 도심(道心)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이제 보니 대중이 괜히 소란을 피운 것인지도 모른다. 공부를 하려는 순수한 생각 밖에 없는 그를 세속법으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왈가왈부 야단친 셈이다.

그게 그의 특성이었다. 막힘이라곤 전혀 없었다. 옳으니 그르니 하고 따지는 걸 떠난 게 천재의 머리인가 본다. 시시비비는 이미 그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순천 송광사 보조국사의 도량에 가서 참선을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이번에는 웃옷과 신발을 벗은 채 걸어서 출발을 하였다. 미친 스님이 아닌가 하고 비구니 스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신발과 웃옷을 갖추어 주었으나 그는 또 그걸 오래 유지하지 못하였다. 런닝 셔츠 바람에 맨발로 걸어갔다. 아마 부처님께서 살아 생전에 맨발로 걸어다니신 걸 생각한 것일까. 세상을 걸림 없이 사는 법을 어느새 익힌 그는 그렇게 지냈다.

"중이 가사 장삼도 갖추지 않고 제 발우도 없이 방부를 드릴려구 왔어?"

송광사 주지스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는 할 수 없이 다시 해인사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일로 해서 강원생활을 계속하지 못할 뻔하였다. 은사스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중공양을 내고 대장경을 한질 기증하고 해서 간신히 넘겼다.

강원을 마치고 바로 중강(仲講) 스님이 되어 명강의를 하게 되었다. 학인들로부터 스승인 강주(講主) 스님에 못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뛰어난 머리가 주위를 놀라게 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일본어를 독학으



그림 · 문병성

로 공부하여 동경대학에 거뜬히 입학하였다. 모두가 혀를 내두르고 한 동안 입을 다물 줄 몰랐다. 실력이 남달리 우수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스님이었다. 하나같이 찬탄을 해 마지 않았다.

법상 위에서 상단 법문을 하신 성철스님께,

"법문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고 법담을 던진 이가 바로 이 천재 스님이다.

"왜? 이성철이다, 이놈아, 몰랐냐?"

하고 성철 스님이 급히 이 말을 던지고 법상 위에서 내려오신 적이 있다.

천재 스님에게 왜 그리 마군중이 많았을까. 그가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거뜬히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이미 양복이 그의 어깨 위에서 드리워져 있었다. 독일 아내를 둔 거사의 모습이다. 동양 문화에 흠뻑 빠진 그의 아내 역시 일본에 유학온 독일 여학생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천재스님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였다나 어쨌다나.

종립 대학 강단에 설 때에는 너무 일찍 빠른 출세 길에서 역시 왕따를 당하는 격이 되었다. 지금은 독일에서 지낸다던가 어떻다던가 하는데 하여간 아까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센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전고(2개월 100만원), 천신양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들을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

재앙 범접 못하는 민초들의 '이상향'

백두대간 속으로 〈18〉 청화산→대야산

용유리 비결서 말하는 '우복동' 길지
원적사 가장 오래된 원효 진영 보존

예나 지금이나 '전쟁·질병·굶주림·천재지변' 따위는, 인간의 생존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요소다. 얼핏보아 인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러한 위협 요소에 대한 극복의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닥치는 대로 불치병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끝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한 평균 수명의 연장, 즉 천수(天壽)의 개념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기아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고는 하나 이 또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일부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슈퍼 컴퓨터가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한다고 해도 하늘로부터의 물벼락은 도두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오늘날 존성기를 누리고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이라는 것도 전쟁 기술 개발의 부산물임을 생각하면, 지구라는 초록 별은 거대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닿게 된다.

그래서 인류는 늘 '이상향'을 꿈꾸어 왔다. 낙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유토피아라 일컫기도 하는 곳. 저기 지리산 어디엔가 있다는 청학동 같은 곳을, 마침내 우리도 바로 그런 산 중 하나인 '청화산'을 오른다.

청화산(靑華山, 984m) 오름길은 늘티에서 시작된다.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걸터앉은 백두대간의 등성마루이기도 한 이 고갯마루는, 속세로 마실나온 속리산이 사람들에게 곁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북으로부터 곧추서서 달려오던 백두대간이 속리산을 솟구쳐 올리기 전에 숨을 고르는 곳이기도 하다.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 그리고 충북 괴산군의 경계에 자리잡은 청화산은, 앞서 얘기했듯 이상향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땅을 사무치게 사랑한 한 사람이었던 이중환도, 이 산의 이름을 따 스스로를 '청화산인(靑華山人)'이라 칭했다. 그럼 우선 〈택리지〉를 통해, 이중환이 말하는 청화산의 풍모를 들어보자.

"청화산은 내외 선유동을 위에 두고, 앞으로는 용유동을 가까이에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수석의 기이함은 속리산보다 훌륭하다. 산의 높고 큼은 비록 속리산에 미치지 못하나, 속리산 같이 험한 곳은 없다. 흙으로 된 봉우리에 둘린 돌은 모두 밝고 깨끗하여 살기(殺氣)가 적다. 모양이 단정하고 좋으며 빼어난 기운을 가리운 곳이 없으니 거의 복지(福地)이다."

실제로 청화산은 산을 보는 눈이 트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한다. 육산이면서도 등성마루를 따라 도드라진 바위들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꽃봉우리인 것 같고,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산기슭은 뺏뺏이 풀먹인 선비의 도포자락인 것 같다. 산자락 어디에고 속된 기운 같은 건 털끝 하나라도 붙어설 자리가 없는 산인 것이다. 그렇다고 범인의 접근을 가로막을 정도로 까탈스럽지는 않다. 특히 정상 못미쳐서 사방이 탁 트이는 전망대 바위쯤에 이르는 순간은, 전신의 핏줄을 세워올리고 소리를 좁아올리던 관소리꾼이 일순 소리를 놓고, 합죽선을 확 펼치며 사설을 풀어놓는 장면인 것도 같은데, 아무리 비움을 여야 할 값이더라도 이곳에서는 짐도, 욕도, 마음까지도 다 놓아 버리고, 흘러가는 구름인 양 지나가는 바람인 양, 그렇게 쉬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서 동남쪽 기슭을 따라 눈길을 주면, 도인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가파른 기슭에 자리잡은 절을 볼 수 있다. 원적사(圓寂寺)다. 신라 무열왕 7년(660)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는 절이다. 창건 이후의 자세한 내력은 전해지지 않으나,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원효 스님의 진영은 언제나 새벽 밝음으로 도량을 지키고 있다. 법당 이외에 3채의 요사를 갖춘 현재의 모습은 1987년에 서암 스님이 이루어 놓았다.

자, 그럼 이곳에서 왜 청화산이 도참사상적 혹은 풍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가를 살펴보자.

정감록(鄭鑑錄)으로 대표되는 감결(鑑訣)이나 비결(秘訣)을 신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상적 삶의 공간이란, 부귀영화를 보장하는 말 그대로의 복된 땅은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까치나 매미가 일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듯이, 그렇게 한 세상 최소한의 먹을 것 걱정 없이, 전쟁이나 천재, 왕조의 흥망성쇠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일 없이 살 수 있는, 피난의 땅일 뿐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 하나 있었다면, 언젠가는 '새 날'이 열려, 피난의 땅마저도 필요없어지는 그런 세상 만나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청화산이 바로 그런 땅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복동(牛腹洞)'이다. 소의 뱃속처럼 편안한 땅이라는 말이다. 청화산 아랫마을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일대가 바로 그런 마을이라고 한다. 어떠세? 형제봉에서부터 속리산 천황봉, 문장대에서 청화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형세는 흡사 활의 모양처럼 휘돌아 흐르는데, 활시위에 해당하는 맞은편의 산줄기는 청화산 동남쪽으로 흘러내려 화산 마을의 시루봉을 세우고는 청화산 아래에서 시작되는 병천(甁川)을 사이에 두고 그 너머의 도장산(道藏山)과 마주한다. 그리고 도장산은 속리산의 남쪽 들머리인 갈령과 형제봉으로 이어진다. 외부 세계로 열린 부분이라고는 용유리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병천(농암천으로 이어지는데 계속 흘러내리며 쌍용계곡을 이룬다)밖에 없으니 과연 그 형세가 소의 뱃속을 닮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복동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곳 말고도 많다. 속리산 언저리 구병리도 그곳이 곧 우복동이라고 굳게 믿는 정감록파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산은, 부랑하는 민중에게는 희망의 거처였고, 격랑에 표류하는 시대에는 개벽의 등지였다.

흔히 말하는 십승지지(十勝之地)도 우복동과 같은 의미의 공간인데, 참고로 계룡산권의 유구·마곡, 부안의 변산, 합천의 가야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가 백두대간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를테면, 태백산과 소백산 언저리의 봉화·춘양, 영월, 예천, 속리산 자락의 보은, 덕유산에 기댄 무주·무풍, 지리산의 품에 안긴 남원·운봉 등.



◇대야산이 빚어 놓은 가경 중 하나인 용추계곡의 용추.



◇크고 작은 바위가 숲을 이룬 대야산 정상. 속리산과 희양산 사이에 자리잡은 백두대간의 산들 중 가장 빼어난 자태를 지니고 있다.

청화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간간이 나타나는 바윗길과 경쾌한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조항산(951.2m)에 이른다. 괴산군 청천면과 문경시 농암면에 걸터 앉아 있다. 크고 작은 바위를 다보록이 안고 있는 정상에서의 조망은, 지나온 속리산과 청화산, 앞으로 가야할 대야산과 희양산 자락을 아우를 만큼 빼어나다.

이어지는 대야산(930.7m)은 속리산에서 희양산 사이 구간 중 으뜸의 산악미를 보여주는 산이다. 서쪽 기슭으로는 희양골, 동쪽 기슭으로는 월영대, 용추계곡, 용소와 같은 가경을 빚어 놓았다. 정상 부위의 기묘한 암봉과 동쪽으로 급전직하하는 아슬아슬한 흐름은, 수림과 계곡과 조화를 이루며 산이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연출한다.

다음 번에는 봉암사가 화두를 뚫고 앉은 희양산으로 간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스님 죄송합니다"

순 콩으로만 만들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ISO9002 획득 !!

맛을 책임지겠습니다.
재료의 정갈한 선별과 천연향료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콜레스트롤 0%, 방부제 0%,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다양한 채식제품이 있습니다.
야채햄, 콩로스트, 버섯비프, 콩비엔나, 천연조미료, 알칸콩단백, 라면, 과장면, 무알콜맥주 등 ....

〈사원모집〉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아이템. 변치않으며 일하고 최고의 보람을 맛볼 준비된 가족을 찾습니다.
- 모집인원 : 남녀 각00명(신입·경력)
- 근 무 지 : 서울, 부산
- 제출서류 : 본사 소정의 입사지원서(또는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한통
- 문 의 : 02)455-8318/입사지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Vegefood 택배주문 (051)518-3288 www.vegefood.co.kr
전화 주시면 팜플렛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100% 채식전문기업 베지푸드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전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달림법(방출 위해 작성 독경 염불) 반혼1재~6재 천도 발인 화장 매장
- 49재(시령 대령 관욕 지장청 시식 봉송 소대)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화선법(간화선 묵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목탁 요령 축비 징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영반
- 화엄시식 종사 영반 점안식 삼재풀이 화혼식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빙정토국제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회행간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겨울나무 —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싹을 키웠지
꽃도 키웠지
단풍도 들었어

첨묵으로
부서져 내리는 그 어깨 위에서
바람소리로 외쳤어

기다림이야

아직도 울 수 없는
사랑이야

「한맥 문학 7월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당선 된 겨울나무 외 4편」



원장 이 영 숙

■ 대주,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탤(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사 과 문



금년에 저희 솔과 학에서 지장기도법을 발행하면서 청화 큰스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희들 임의대로 머리말 글과 맨 뒷장의 글을 실은데 대해서 진심으로 참회하옵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책은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솔과 학 대표 김 재광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1)470-3116

마음으로 지은것 마음으로 푸세요



그림 · 최주현

각 지원에서 오신 여러분과 너무 오래간만에 한자리 한거 같아요. 내가 말하고 난 뒤에는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게 되니까 미리 질문부터 해요. 하하하. 생활하는 그 속에서 다 나오니깐요.

질문1: 대구지원에서 온 최선영입니다. 참나와 거짓 나는 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참나를 계속 지속시키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마음공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님: 허허허….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정신이 없으면 무효야. 육신은 송장이 돼서 무효란 말이예요. 정신과 마음이 합쳐져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은 언제나 빼놓고 이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걸 마음이라고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는 거죠. 정신세계를 모르면 앞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요.

과학이 발전이 돼서 로케트가 올라가고 컴퓨터가 일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이를 들어 비행기가 뜬다 해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비행기가 움죽거린다면 그건 집단의 일이에요. 이 공부가 그러한 공부예요. 자기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중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세계를 굴릴 수가 없죠. 중세계가 버스라면 버스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죠. 그 버스 안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계에 집중을 안하고 모른다면 물질계에도 발전을 못해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 과학의 뚜껑을 파헤쳐야 진짜 과학이 나올 수 있어요. 자유권의 과학이요. 지금 한창 자라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세계정세에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한 스무살 때쯤 그 접시 비행기가 뜨고 그랬어요. 그럴 때 난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접시 비행기는 자유권을 가진 마음으로써 그대로 움죽거리는구나 하는 거를요. 그러니 우리가 그 세계를 넘어볼 수도 없고 점프를 해서 넘어갈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만 하는데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어서 우주세계를 가려고 해도 한찰나예요. 또 여기 문 밖을 내다보는 거나 앉아서 댁에 집을 내다보는 거나 저 우주세계를 내다보는 거나 똑 같아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이 마음은 체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심안의 눈을 갖는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보려고 생각만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도가 아니요, 듣는 것도 도가 아니요, 뭐 이 사물에 모든 거를 다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말을 하는 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속을 아는 거, 어디서 온 줄 아는 거, 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신족통 이 모두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오신통 가운데서는 누진이라는 열쇠가 있어요. 거기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리죠. 그것처럼 이 진리를 벗어나야 진리를 굴리죠.

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물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천차만별의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에는 금이 모이는 데지 넝마나 무쇠가 모이는 데가 아니거든요. 또 무쇠전에 금이 갈 리 없고, 넝마전에 금이 갈 리 없고 깡통 공장에 금이 갈 리 없듯이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노동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공무원들 또 기사들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이렇게 자기의 차원대로 살고 또 모이게 돼 있어요.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여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죠. 누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서 모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금반지를 주웠다면 어디로 가져 가시겠어요? 금방으로 가져가죠? 그거 봐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해도 그 물질을 봐서 이게 어느 차원인가 봐서 차원대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우리들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남을 알겠어요?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이랬거든요. 너부터 모른다면 이 우주의 섭리를 다 모르느니라. 너가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섭리를 알며 상대성 원리를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생겼으니 너부터 먼저 알고 너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놓고 태양력을 받아서 천차만별의 용도로 다 써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겠죠.

질문2: 큰스님 감사합니다. 광주지원에서 올라온 박원주입니다. 큰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큰스님을 이렇게 가까이 뵙게 돼서 무척 기쁘구요. 저희 가문에 영광인 것 같습니다.(대중 웃음)

자기가 지은 얽히고 설킨 업보 근본에 되놓아야 없어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환희심으로 아주 충만할 때가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떨 때는 힘이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게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렇게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일러 주십시오.

스님: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넓게 써요. 왜냐하면 그걸 표현하자면 잘 되는 것만 있고 안되는 게 없으면 진리가 아니예요. 꼭 상대성이거든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갔다 하면 꼭 내려야 되죠. 그리고 내렸다가 또 타고 올라와요. 잘되는 것만 있다면 이 진리는 끊어져 버리죠. 모두 여러분의 마음의 차원에 의해서 잘되는 것이 있고 중(中)이 있고 하(下)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뭉글려가면서 자기 마음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지면서 하(下)로 사는 사람, 중(中)으로 사는 사람, 상(上)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얼 른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계속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죠. 내려서 볼일 다보고 또 타고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종점과 시발점이 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나를 가르치기 위한 거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안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고, 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이것은 한생각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한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생각에서 굴려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엉키고 설킨 것도 내 한생각에 풀 수가 있죠. 한생각은 한 찰나니깐요. 그러나 우리가 얼킨 거를 풀려면 무척 노력을 하고 앨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거는 전체가 마음으로 죄업이 되고 업보가 되고 유전성이 되고 인과성이 되고 세균성이 되고 모두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영계성도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마음으로 풀어야지 딴 걸로는 안돼요. 도저히! 그래서 일이 닥치면 독 안에 들어서 벗어날 수 없듯이 대치를 못해서 꼭 당하고야 말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대치를 하려면 모든 거를 그 한 용광로에 놓을 수 밖에 없어요. 용광로라고도 하고 자가발전소라고도 하고 컴퓨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서의 입력된 모든 걸 지금 현실에 나오는 데다 다시 넣는다면 앞서의 입력이 없어질 테니깐요. 안 그래요? 그래서 팔자 운명은 없다라는 얘기구요. 즉 번뇌도 없다. 먼지 붙을 게 없다, 병고도 없다. 즉 모든 게 없다로 돌아가요.

왜냐? 그건 마음 먹기에 달린 거거든요. 얽히고 설킨 업보가 하루 아침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예요. 입력이 됐던 것이 하나 하나 나오는 대로 거기에다가 놓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욕심처럼 금방 하늘에서 떨어진 거 모양으로 싹 가셔서 도깨비 장난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자기가 지은 거, 얽히고 설킨 거를 제거하려면 하나하나 인내있게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허탈리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들어오고 나가는 건 그 구멍밖엔 없다고 믿으세요. 털구멍이라는 그것도 방편이에요. 지금 방편으로 말하자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다섯 가지 오신통이 바로 컴퓨터라고 해도 돼요. 세상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질서가 지켜지고 사람이 살아요. 길고 짧은 게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구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길고 짧은 게 없이 평등한 공부를 하면서 길고 짧은 거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평등한 거를 먼저 알아야 그 평등한 속에서 둘이 아니게 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은 크든지 작든지 내가 큰데 들어가면 크게 되고 작은 데 들어가면 작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내 아님이 없느니라' 했어요. 원하는 자에게 전부 무조건 주기 때문이죠. 마음이 적은 데 들어가면 적은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소한테 들어가면 소가 되는 거고, 돼지한테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거죠. 사람도 돼지로 됐다가 소로 됐다가 말로 됐다가 뭐 별게 다 되니깐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지거든요. 자꾸.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돼지가 됐다, 소가 됐다, 사람이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애가 됐다, 늙은이가 됐다가 또는 새가 됐다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니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툼이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공' 한 중심에 모든 걸 맡겨 놓아라

☞ 15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하! 안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구나. 양면을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되긴 됐는데 안되는 것도 있더라 이럭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안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스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죠. 내 모습을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당신 그림자가 내 그림자를 보고서 웃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 고깃덩어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즉 모습을 보고 따르지 말아라 이 소리죠. 네 모습을 네 모습이라고 하지 말아라, 육신은 자생중생들의 집합소니라, 집이니라. 그리고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그러니 진정한 마음으로 둘 아니게 믿으세요. 알았죠?

질문3: 저는 대구지원 청년회 한정애라고 합니다. 큰스님을 직접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내 한마음 주인공은 무조건적인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하는 자리인지, 큰스님의 크나큰 신 감로수 발원합니다.

스님: 예를 들어서 큰 불기둥이 하나 하늘을 꿰고 땅을 딛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고 돌아가는 수레가 그 불기둥을 가운데다 끼웠기 때문에 수레가 돌아가는 거예요. 수레는 쉴 사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요.

그러니 주인공을 내가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이가 지금 말하게 된 것도, 살아서 이렇게 움죽거리게 된 것도 이미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종교를 밀고 안 밀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벌써 그렇게 살아서 움죽거리는 거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주인공이라 하는 뜻은 자기의 주인이면서,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공하다는 뜻이거든. 쉴 새 없이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인간 자체가 수레라고 해도 돼. 수레가 돌려면 중심이 없이 어떻게 수레가 돌아가나? 그 힘을 배출해 주지 않는데. 하다못해 자동차도 중심을 끼워주니깐 이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중심을 끼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나. 그러듯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된다. 자기 뿌리에 꿰어서 바로 이 싹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깐 말이야. 그래서 뿌리와 뿌리끼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통신이 되고 또 말과 말이 통신이 되고, 아래서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정맥 등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서의 인간이 다 이렇게 움죽거리고 살고 있단 얘기야.

자기가 주인공이 없다면 지금 몸도 정신계도 없어, 무효야. 내가 없다면 다 무효야.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어. 그러니깐 '꼭 알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 그냥 갈 수는 없다.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겠다.' 좀 이러란 말이야. 모든 게 일체 간물만생이 다 중심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계도 그래요. 모두가!

질문4: 저는 부산지원 청년회에 다니고 있는 김현랑입니다. 저는 아직 초발심인데도 이 자리에서 스님께 질문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인연에 대해서인데요, 요즘 보면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또 부모도 자식을 막 팔아먹고 하는 그런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어떠한 인연으로 일어나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 얼마 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또 죽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보통 어릴 적부터 자라온 가정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모인 청년 법우님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법우들이 이 마음도리를 잘 닦아서 선연으로 만난 인연과 배필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화목하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스님의 자비하신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되는 것도 되는 것
되는 것도 되는 것이니
양면 다 알아야 해요

스님: 이거는 집이가 아무리 그럭하고 싶어도 내가 대신 내가 뚱 눠줄 수도 없고 집이 병 앓는 걸 대신 앓아 줄 수도 없고 또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 줄 수도 없고 대신 잠자 줄 수도 없어.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이 도리의 섭리를 자유자재하려면 자기만이 자기를 또 그렇게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 오줌통에다가 집게로 담아서는 뚜껑 덮어놓고 이렇게 죽였어. 그런데 오십 살이 다 된 부부가 형제를 낳아 기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스님이 가다가 보시고는 그 부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저 애들이 서당에 갔다 올때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는 깨벌레고 하나는 거미다. 그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나온 거니까 절대로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되니까, 철사로 이렇게 망을 해서 둥그렇게 병아리집 모양으로 해서 놓고는, 거기다가 가마 떼기를 깔아서 조금만 내놓고 그 안에다 간 겹불을 질러서 놓고, 그러고서 애들이 올 때가 되면 당신 스스로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말라고 일러뒀습니다.

아! 그래서 그대로 하고 기다리니까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하고 들어오더니만 그냥 막 악을 쓰고 울고 불고 엄마 아빠 찾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깐 '이 년놈들 어디 갔느냐' 이거야. 이 년놈들, 요 때에 원수 갚을 텐데 어디로 갔느냐고 그냥 펄



그림 · 최주현

종점과 시발점이 둘 아닌 한자리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의세계에 모든 통신을 하고 또 유의세계는 말로 하고 몸으로 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무의세계에 중용은 한 찰나에 오고 가면서 일을 해.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모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차원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나가, 차원대로. 그래서 서로 우연이라는 건 없어. 잉태를 해서 애를 날 때도 그 어른들 차원에 따라서 잉태가 돼. 종자가 있지 왜? 대추 종자라든가 무 종자라든가 종자가 있듯이,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열리듯이 그거는 피치 못해.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을 진 대로 그 똑같이 지은 그 차원 대로에 가서 인연이 되거든. 그러기 때문에 소리가 나게 돼. 깡통끼리 모였으면 깡통끼리 소리가 나…, 그냥 조금만 뭐라 해도 소리가 나지. 그와 동시에 인과를 지었으면 또 업을 지었으면 서로가 그 업 진 사람들끼리 원수들끼리 만나고 그런 거지.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지.

옛날에는 깨벌레하고 거미들이 너무 많아서 오줌을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줌에다 넣어서 죽였다고, 그것이 하루만 깡통으로 잡아도 그 이튿날 보면 펄 뛰고 울고 그러더니 차차로 시간이 지나니깐 깨벌레와 거미로 바뀌는 거야. 그 부모는 너무 징그러워서 나오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와 보니까 그 양쪽에 두군데다가 해놨는데 하나는 깨벌레고 하나는 거미인데 그냥 전부 널부러져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그 스님께서 살려준 거지, 그 깨벌레하고 거미하곤 다 그 스님께서 다시 그 옷을 벗겨 천도를 시키고 두 부부는 거기에서 모두 달려 들어서 뜯어먹을 텐데 졸어 먹히지 않도록 살려 줬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서 부처님 앞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생을 보냈대요.

그러니 모든 인과응보란 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 이 몸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인과도 있고 유전도 있고 영계성도 있고 모두 거기에 뭉쳐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것이 다 사라진다, 이 소리지.

그러니 다리가 무너진 것도 그래. 자기의 정신계를 알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면에서 다 그래요. 일거리를 어느 회사로 주게 되면 이것을 아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돈을 줘야 되거든. 그런데 싸게만 자꾸 하고 돈을 덜 주니깐 일하는 데선 충분치가 못하니까 그거를 받아가지고선 또 자기가 다 못하니까는 하청을 주게 된단 말이야. 하청을 주니깐 하청 받는 사람이야 뭐 그냥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서로 붙어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깐 내 말은 그거지. 지금 이렇게 개화되고 이렇게 밝은 세상에 다리 난간마다 위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드르르륵 울리게끔 장치를 해놓고선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걱정없는 거거든. 그런데 왜 그것을 사람이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응? 어디가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모르게끔 되니 이건 불의에 사고를 일으키지 않어? 또 그 시간에 마침 또 그렇게 가는 수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것도 우연히는 아니야, 모두가. 그냥 가다가 자빠져 코가 깨져도 그건 우연이라는 게 없어, 철칙이야!

자기가 알지 못하게 죄를 지으면 알지 못하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짓는다면 알고 받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절대라고 생각해. 모든 거 잘못되고 잘 되는 건 그 공한 중심에다가 다 맡겨놔라, 네가 죄짓는 게 아니다. 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공생이 아니야? 더불어 같이 먹잖어? 그러고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화하고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더불어 같이 살아나가는데 뭐이 내가 따로 있어. 내가 따로 질 죄가 있나? 생각해 봐. 그렇다고 해서 마구해서는 안되지, 내가 질 게 없으니깐 그냥 내가 막해도 죄가 안된다더라 하고 이럭해선 안되지, 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려서 그 불기둥 즉 말하자면 중심주에다가 모든 거를 놔라 이거야, 거기다 맡겨라 이거야, 돌아가는 수레가 바로 우리 돌아가는 몸이 다 거기에 꿰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두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깐 마음을 잘 쓰기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잘 대치를 해서 쓰느냐도 그건 지혜에 달려 있고 문리가 터지는데 달려 있으니까. 문리가 터지지 못하면 아이구, 이거는 금방 안된다고 이러면서 인내가 없이 그냥 파헤쳐버리고 말고 이렇게 한다면 비유하지면 그건 부산을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다가 내가 아휴! 가다가 진력난다 이건 그만 둬 버리자, 이런다면 부산까지 갈 수가 없지, 그런 거야.

질문5: 저는 마산지원에서 온 청년회 공형숙입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 바로 위의 직속상관이 그 위의 상관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를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사에 대해서 막 헐뜯고 또 그 상사와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항상 옆에서 보게 되면 저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사람이 굉장히 미워지고 그럽니다. 사실은 다 한마음이고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그 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일단 그 사람이 먼저 미워지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감싸안을 수 없어서 좀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스님: 잘 말했어. 뿌리는 한 뿌리지만 모습은 다 각각이야. 나무 이름이 다 각각이듯 안 그래? 근본이야 둘이 아니지만 그 모습은 제각기 천차만별이다 이거야.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 그 상사들끼리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 직원들한테도 이익이 별로 없지. 그것도 상사다 직원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잖어, 그지? 마음과 마음이 가설이 돼있으니 내 버튼을 누를 때에 '저기도 불 좀 들어오게 해. 응? 같이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너 밖에 없어.' 하고 버튼을 누를 때에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있거든. 알겠어?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것대로 들어오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버튼 누르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불이 들어오게 돼있어. '저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좀더 다복하게 지내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주인공 당신밖에 없어!' 하고. 그러고 차차 지켜봐, 화목해지지. 그러니 모든 게 진짜로 불러서지 않고 믿는다면 아니되는 게 없는데 진짜로 믿지를 않어. 안되면 아이구! 이것도 또 그냥 아무 것도 아니야. 주인공이 뭐 말라빠진 주인공이야, 이러거든. (대중 웃음)

그런데 자기를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지 딴 놈이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주인이자 공했다 이거거든. 몸과 정신과 둘이 아니게끔 돼있는 자체가 한덩어리가 지금 자기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게 돼버려. 허허허.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그냥 죽으나 사나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어.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자기 말이야.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거야.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어. 그러니 모두 보이지 않는 데 연결이 되고 가설이 되고 그랬으니까, 또 가설이 된 까닭에 내가 한생각을 낸다면 전과가 통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있다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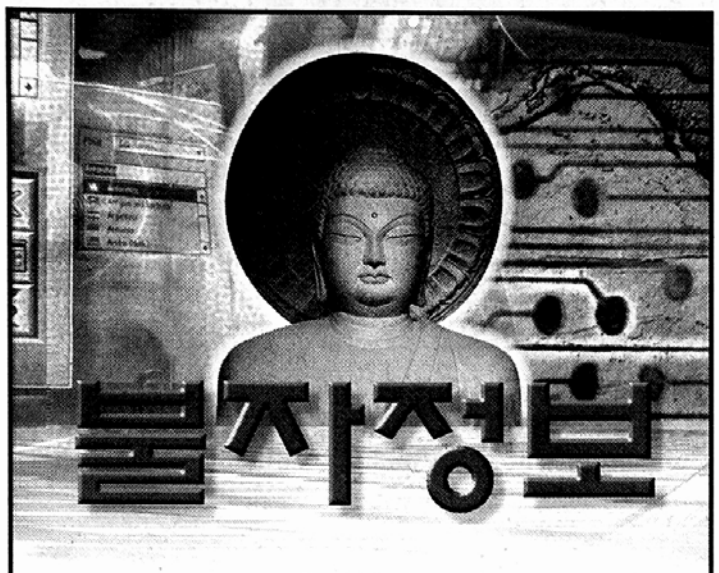
살아나가다 보면 가정에서나 친구들하고도 그렇고 사회로 나가도 그렇고 뭐 한두 건이 아니잖어? 그런 건을 누가 해주나? 누가 해주는 사람 없어. 뺏아가는 일도 없고 갖다주는 사람도 없어. 오직 자기만이 그걸 대치하고 나가야 돼. 길에 가다가도 누가 싸우면 저거 싸우지 않게끔 하는 것도 너밖에 없다.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지나가다가도 그럴 수가 있어. 그거를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점에서 어떠한 거든지 용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벌써 보는 순간 가설이 돼있는 거야. 보는 순간, 듣는 순간! 그러니 한 사람이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내 몸 안에 있는 중생부터 조복을 받아야 그 조복받은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 응신이 돼버려. 그래서 모두 구제하는 거야.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말이야.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구제하고 보이는 중생도 구제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말이야. 알았어? 음. 알았습니까? 선생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나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고 앞으로 자기가 뿌려놓은 거를 자기가 다 맘대로 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깨닫는다, 뭐 성불한다 이런 이름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자유인이 되자 이거예요, 무슨 성불을 하고 부처가 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름해서 부처야. (대중 웃음)

※위 법문은 1994년 10월 23일 청년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당뇨 · 간질 · 관질염 완치
한국불교 태고종 **서산사**
주지 진성
0667)762-2204(fax겸용)
761-5799
011)696-4848
전북 광양읍 칠성리

강좌

역학 강의합니다
▶ 과 목 : 서주 · 관상 · 육효
▶ 교 재 : 千江月(봉인저) 복서정종
▶ 과 정 : 4개월
▶ 장 소 : 관음사 포교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천년을 이어온 중국 정통역학
· 불교 도교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출장도가능
02)396-6079/016)852-5255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강의내용 : 예불,아침쇳송,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 태공, 도량석, 도량게, 복청게, 천수바라 태징 찍는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계 개인지도 가능
031)865-4893
011)661-9119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역학개인 전수
· 책없이 손으로 짚어내는 역학을 전수합니다.
· 간단하고 편리하게 손안에 숙지하여 중생의 옳은길을 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 도를 얻는 스님이 잘 짚은 이 비전은 부처님 氣가 있어야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011-695-2320

구인구직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에서는
연락주십시오
· 서울, 경기, 부산 원함
· 교통 좋은 곳을 원함
011)337-5009

기도하실 분
수양 · 공부 · 참선 · 기도 최적
산세 좋고, 웅장한 바위,
약수가 있으며, 천년된 미륵
석불 있음. 기적같이 소원 성취
할 수 있는 영험도량임.
경기도 여주 **미륵사**
031)884-4883
018)527-1393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휴양
▶ 산림욕, 약수, 참선, 기도 최적
▶ 경관이 수려한 현대식 목조주택
▶ 오랜 지병 즉각 효험
강원도 홍천 건강샘터
033)435-6166
석 련 암

불교용품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기타

명당(음 · 양) 氣 탐지기
특허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보급가 60만원
※ 추석때 집터, 묘터 한번만 사용하셔도 본전을 뽑을 수 있다
TEL:053)982-4976/011)813-3679

뉴질랜드 유학
▶ 초 · 중 · 고등학교 유학및 랭귀지 스쿨, 단기 어학연수
▶ 대학입학목표
(AUT,UNITEC--대학부설 어학원 추천)
▶ 홈스테이및 가디언쉽제공
(불자가정 및 현지인)
▶ 골프유학 및 연수
우 등 불 유 학 원 Email:rafaga@world-net.co.nz
HP:64-9-021-2132666/FAX: 64-9-416-4252(뉴질랜드연락처)
PH:64-9-416-4252~3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도도량)신비한 맥반석약수
뇌졸증, 중풍, 당뇨병, 위암
간암, 위장병, 피부병, 관절
병고자는 기적같은 성취
※ 불사 평생함께 하실 처사님, 보살님 구함
기도하실 스님 모집합니다.
051)244-3360
053)985-5669
011)9554-6900

21세기 포교문화 지식정보화시대 시급한
인터넷 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별싸비스 상담전화
02)2242-0331/485-3998
http : //www.cmhouse.net
E-mail : cm@cmhouse.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인터넷사용인구가 2000만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교등이 불교단체 사찰 포교원등 고유 명칭을 도메인주소로 불법등록을 하고있는 사례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읍니다. 도메인주소는 상표등록과도 같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사찰·한옥 석공사
사찰 · 한옥 · 석불 · 석탑 · 석축 조경
단청, 디집, 불단, 요사채
설계 시공 (전문업체)
전국 출장 양택 음택 현지답사 상담하여 드립니다
042)242-9990~3/011)209-3688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6-3번지
연화종합토건 (주)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버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팜플렛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페인트 제거제(단청)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염성, 방부제
※ 영업사원 모집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사찰안내

사찰 안내
◆위치 : 남해바다 (전남고흥)
◆부지 : 3330평(종교부지 임야)
종교부지는 1천평 토목공사 완공
◆건평 : 16평 2동
◆특징 : 정동향 남해바다와 100m 근접, 암반수 절도량까지 차량출입가능, 기도도량 연수원 고시원 적지
◆가액 : 1억 8천만원
(답사상담후 결정)
02)488-0077/011)9058-7000

토굴터및 사찰용도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하계면 소재
◆대지 : 220평
◆건평 : 30평
◆건물 : 신축, 전통한옥2채 황토로 지음, 준농림지 605평
055)246-4929
011)566-5882

포교당 안내
◆ 위 치 : 상계동 당고개
아주 조촐한 포교당
(산이깊은절)을 인수할 인연깊은 스님을 기다립니다.
◆ 근린상가 5층에 3층
약32평 법당, 방2개, 세면장
옥상소재
02)939-7121/011)9972-7121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미륵사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미륵부처 3분 모셔져 있음.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9646-3220

사 찰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내
◆대지 : 200평
◆법당 : 40평(2층)-전통사찰건물임
◆요사 : 50평(1층) 뒤는 산세가 좋으며 앞은바다가 보이는 역사깊은 전통사찰임
◆가격 : 5억 5천 (융자가능)
◆위치 : 대구광역시근교(40분소요)
◆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지실 : 15평
◆요사 : 40평 ◆나한실 : 20평
조용하며, 산세좋은 기도 참선도량임
◆가격 : 3억 5천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양도, 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상담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부산
◇법당 : 11평
◇산신각 및 요사 : 25평
◇부지 : 400평(국)
◇가액 : 3억 3천
◇특징 : 시내중심지에 위치한 명산에 자리잡은 기도도량임
※ 일반인 및 대리상담은 사절함.
(서울) 0502)999-1133
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 안내
◇위 치 : 군산시 성산면
◇법 당 : 20평 (목조)
◇요 사 : 50평
◇산신각 : 3평
◇종 각 : 2평
◇부 지 : 750평
◇가 액 : 4억 5천
0502)900-5775
011)675-9828

사찰 안내
◆위치 : 상계동
◆특징 : 주택가이면서 주변에 녹지가 있어서 전원 주택같은 집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이 한눈에 들어와 전망이 좋음
임법당, 전철역에서 10분거리, 버스종점에서 5분거리
◆가격 : 1억 8천 5백만원
02)937-6909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제/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및 포교원 안내
◆위치 : 경기도 군포시
◆대지 : 120평(25×10×8m)코너
◆건평 : 120평 붙기구 5천만 무상 제공(포교원 최적)
◆가격 : 융자 포함 매5억2천만원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홍탱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1)953-3478/951-3308
011)453-4618

사찰 안내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가액 : 보증금 4천만원
월20만원
031)868-0516
02)303-9788
016)335-8257

사찰 안내
선착순 한분스님에게 시설비 · 관리금 않받습니다.
◆위치 : 중랑구 상봉2동 107-60호
◆건물 : 2층 58평, 법당35평, 방3칸, 입식, 주방1칸, 에어컨 설치, 목욕실, 각방기름보일러
◆특징 : 개금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산신전 및 법당일체조성, 즉시법회가능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 60만원만 있으면 모든 시설 무료로 줍니다.
이유 : 스님의 몸이 안좋은 관계로
02)439-9409 / 011)712-8533

지리산 명당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천왕봉 좌청룡 주령
◆평수 : 1488mm(약450평)
지목 야전임야 (현재 대밭)
◆특징 : 남향 산과 계곡 좋음
큰도로에서 300m 위치하여 조용함
◆가액 : 5500 만원
011)9943-4561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내 166번지
◆부지 : 500평, 법당1채 요사채2개, 목조건물
◆가격 : 2억 (가격 절충)
055)834-3282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영월군 주천면
(주천강 및 평창강)에서 1km지점
◆평수 : 3만 7천평
(임야 3만3천5백, 전 3천7백)
◆특징 : 사찰 부지 납골당 적격지
◆가액 : 현지답사후 결정
043)645-2811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 요양원 · 수양원 · 콘도 · 별장
◆ 소공원 하실 분, 국립공원 입구
◆ 남 덕유산 맑은 물 계곡이 휘감아 흐르는 연화봉으로
◆ 둘러싼 가운데 3,000 여평의 땅이 있읍니다.
◆ 진입로 포장 · 계곡 교량공사 중이니 귀하가 하신다면 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 가격 : 답사후 절충 ①2,590㎡, ②1,625㎡, ③5,024㎡ 필지별 분할 매입 가능
055)944-7049/016)750-7049

포교당 안내
◆ 위 치 : 수원
◆ 평 수 : 80평 방3개 샤워시설
◆ 특 징 : 아미타불 삼존불 등불 有, 108지장전 有 사찰의 모든시설 일체
◆ 가격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일체포함 5,500만원
019)310-8818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청양
◆부지 : 300평, 법당2층 30평, 요사채 80평
◆특징 : 포교당 적합, 읍내소재지 터미널에서 5분정도
◆가격 : 3억 5천만원
041)943-8454

포교원 안내
◆위치 : 마포구 망원동(11월 5호선 개통 망원역 마포구청역 중간)
◆평수 : 2층 법당, 방, 주방 약 20평
◆가격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호적근 절충
02)323-44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산신탱화 40평, 방2개 부엌1개
◆ 가격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9)211-8533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적요지
◆대지 : 250평이상(국유지포함)
◆ 건물 : 법당40평 요사채70평 주택4가구
◆ 특징 : 교통편리(지하철 5분거리) 포교최적, 산세수려(靑山) 신도1000세대(현재)
◆가액 : 답사후 결정
051)208-1122
※ 부산시내 사찰신축. 실버타운적지 부지3000평 있음

수양원 · 기도처
◆위치 : 충북 단양군(구인사 근처)
◆부지 : 1160평
◆건물 : 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전통 한옥으로 "ㄱ"자로 꺾어 지은 집 30평 한채. 옆댓평 토굴 한채 (나무와 흙으로 지음)
※평생 살려고 지은 집입니다 (2년됐음)
※소백산 줄기로 산세가 수려합니다
◆가액 : 1억 3천 만 원
· 서울 근교 암자 및 부동산과 교환가능
02)3216-2573/016)852-5255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정읍
◆평수 : 1600평(종교용지300평, 대지300평) 2500평 추가 매입 할 수 있음(복지시설 가능)
◆건물 : 현대식 법당 40평,요사 23평 부속건물 30평 조경완비
◆특징 : 천불불사 할수 있음. 시내10분거리 버스종점
◆가액 : 1억 8천 8백만원
011)671-0987

불자 세상보기

이혼소송 하루 113쌍
황혼-충동이혼 급증

법원행정처 '연감' 발표

이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70대 노인에서부터 20·30대 젊은층까지 이혼소송을 내는 계층의 연령별 구분이 무너지고 있다. 이유도 다양하다. '더이상 못참겠다'는 권리주장형에서부터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합의형, 또 '정말 이럴거야? 그래 헤어지자'는 식의 충동형에 이르기까지.

법원행정처가 11일 내놓은 '2000년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확인사건은 12만6천5백건이었고, 이혼소송 사건은 4만1천55건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하루 평균 346쌍이 쌍방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갈라섰고, 113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을 낸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이다.

얼마전 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인 70대 할머니는 "남편의 구타와 외도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 및 1천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조정 신청을 법원에 내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70대 할머니는 이달초 법원으로부터 이혼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참고 살았지만 더이상 남은 인생을 불행하게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여성이 10년 전에 비해 21.2% 높아진 64.2%에 달하는 등 아내가 적극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과 맥을 잇고 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이 남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비율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은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협의이혼도 크게 늘었다. 10년전 4만여건에 불과하던 협의이혼 건수가 12만 여건이나 된다. 복잡한 재판이혼과는 달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만 확인하면 몇 분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하니 계약파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협의이혼 중에는 충동이혼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편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혼수가 변변찮다는 이유로,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20·30대 부부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관경〉에 이런 대화가 있다. "어떤 법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것이며, 어떠한 법이 가장 가난한 것입니까" "어머니 계실 때를 가장 부한 것이라 하고, 안 계신 때를 가장 가난한 것이라 한다. 어머니 계실 때는 한낮이며 안 계실 때는 저녁이다. 또 어머니 계실 때는 모든 것이 원만하나 안 계실 때는 공허하다."

가정의 기초는 남편과 아내다. 가정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연히 사회도 무너진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맞지 않는 상대끼리 희생을 강요하며 사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내와 노력도 하지 않고 부부의 연을 깨뜨리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육방예경〉 〈아함경〉 〈옥야경〉 등 여러 경전에 나타나 있는 부부간의 도리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새삼 아쉽게 느껴진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65세 노령인구 7.1%
한국도 고령화사회

우리나라가 마침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에 따르면 7월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65세이상 노령인구는 총인구의 7.1%(337만 1000명)로 높아졌다. 또 2022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은 노령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평균수명도 증가했다. 97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지난 71년 조사 때에 비해 남자는 11.6년, 여자는 12년이 늘어났다.

그러나 출산율은 감소해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수가 70년 4.5명에서 98년 1.48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젊은 노동력 인구도 감소해 15~29세의 젊은 노동력 인구가 올해 총인구의 24.3%에서 2020년 19.5%, 2030년에는 17.7%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제왕절개율 43% '세계 최고'

우리나라 산모의 43%가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는 우리의 출산문화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이같은 수치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제왕절개율 10%의 4배가 넘고, 세계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20%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제왕절개가 이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는 출산에 대한 산모들의 그릇된 인식과 병원들이 이를 권유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산모나 배우자들은 자연분만을 통해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기보다는 미용이나 원하는 날짜에 분만하기 위해 수술을 요구하고, 병원측도 정상분만보다 3배 가까이 되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제왕절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이 출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또 수술은 산모나 태아가 자연분만을 하기에 위험이 따를 때 긴급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지, 미용이나 택일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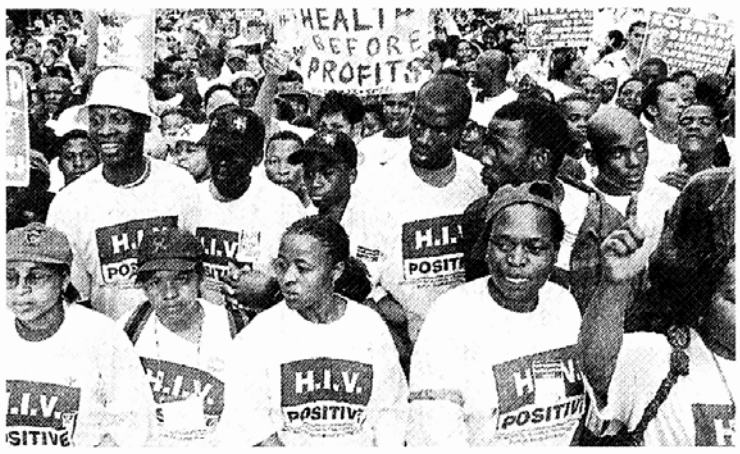
〈중아함경〉에 나오는 사리불존자와 구치라존자의 대화를 보자. "무엇이 앎(識)이라 말합니까?" "사물과 사리를 분별하고 법을 분별하는 것을 앎이라 한다." "지혜와 앎은 하나입니까? 별개입니까?" "지혜와 앎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제왕절개 분만은 마취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 산모의 건강회복이나 안전분만 측면에서도 자연분만보다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뱀·개구리 등 잡거나 먹으면 형사처벌 받아

앞으로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7일 밝힌 환경부의 의중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희귀 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 정부가 이런 고육책을 내놓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동물을 '보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밀렵이 성행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그릇된 '몸보신' 문화를 더이상 그냥 놔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몸에 좋다면 동물이든 벌레든 뭐든지 잡아먹는 끝없고 뒤틀린 욕망을 버리는 것이 급선무다.



"에이즈 치료약 값 내려라"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국가의 경우 성인 4명 중 1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5, 6개의 초대형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자사 이익을 위해 후진국 에이즈 환자들이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높은 가격으로 치료약을 유통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제13회 국제에이즈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는 9일 에이즈 치료약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을 벌였다.

"일상이 지겹다" 중학생 2명 한강투신

일상이 지겹다고 지난 9일 중학생 2명이 한강에 투신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일이다. 속된 말로 얼마 살지도 않은 중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잡아함경〉에 "성내는 마음을 죽이면 편안히 누워 잠잘 수 있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성내는 마음은 악의 뿌리이니 그것을 죽이는 이를 나는 칭찬한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어린 청소년들이 '마음의 악'을 뿌리뽑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우리 모두에게 또다른 가르침을 준 사건이다.

시론

우리사회 어디로 가나

요즘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위와 파업을 보면 이러고도 나라가 온당할 수가 있을까 걱정이다. 근자에 공직사회의 연금법 개정 반대, 민주노총의 공권력 규탄 가두시위, 한국노총의 주 40시간 5일 근무제 쟁취 총파업이 있었고, 롯데호텔은 파업이 계속됐다. 그리고 건국 이래 초유의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금융노조의 파업이 있었으니 말이다. 이들 파업이 가까스로 끝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파업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집단 이기 파업과 시위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은 재향군인회를 포함한 참전단체 연합회의 임원들이 여당과 정부에 대해 참전 군인 보상 확대를 요구한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의 폐업이나 금융파업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라가 먼저 있어야 민주화고 무엇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몇십년을 참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신준식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왜 우리 사회에 이러한 갈등현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가. 그 중요 요인은 정치권의 말바꾸기와 일시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정부가 신뢰를 잃은 데에 있다. 정직이 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또 근시안적인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누구도 정부와 정치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불신만 쌓여있는 상태에서 사회통합과 조정기능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대인들에게는 지난 시대에 비해서 지식도 많고 정보의 양도 많고 그것을 얻는 속도도 빠르다. 따라서 비판 의식이 높고 행동성도 강하다. 또한 사회는 더욱 타산적으로 되어간다. 이와 같이 개인의 속성이나 현대사회의 성격을 보면 개인의 욕구분출 내지 이익집단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많다. 그리고 사회가 급변할수록 단순 모방이 쉽게 일어난다. 대체로 아이는 어른을 모방하고 하층은 상층을 모방하고 일반 시민은 지도자를 모방한다. 돈있고 권력있고 권위있는 자를 모방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돈있고 힘있고 권위있는 자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분명 아니다. 애국심과 도덕성에서는 평균이하다. 오히려 부정적 모범을 보이고 있는 자도 많다. 심지어 지도급 인사 중의 상당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가지 예만 해도 그렇다. 즉 지난 4.13총선 때 밝혀진 선량을 꿈꾸는 자들의 병력문제나 세금문제에서 그러하였다. 법을 만드는 선량들의 약 4분의 1이 어떤 이유로든 군대를 '가지 않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까지도 안 보낸 사람이 꽤나 있었다. 정당한 경우는 예외이겠으나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지도자로 혹은 애국자인양 자처하고 행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수준이 만든 잘못이다.

우리 사회는 정도가 잘 통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 껏 살면 돈도 권력도 권위도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많은 개인과 집단이 참고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투쟁하여 얻어 낼 것은 얻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갈등을 증가시키고 그 갈등을 격렬하게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가정책 공정성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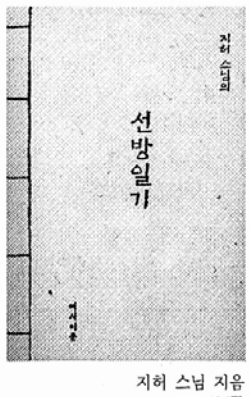
그렇다면 진정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국민적 불신이 깊은 현실에서 공식적 통제보다는 비공식적 통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힘있는 지도자들이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의 모범적 자세에서 국가의 정책은 공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思無邪"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괴와 술수가 개입되고 정략적이고 당략적인 정책이어서는 안된다. 솔직하고 진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라면 당장에는 몰라도 언젠가는 인정을 받게 되는 법이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 정책은 더욱 그러하다. 국가 정책은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뒤따라야만 사회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겉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믿지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켄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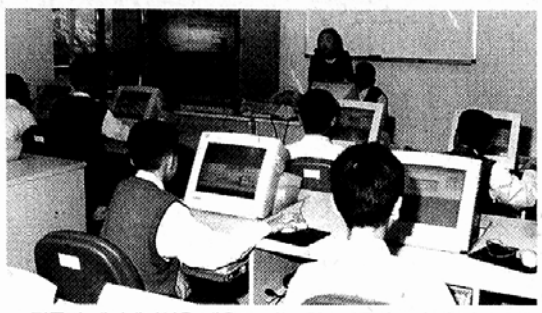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춤·연극·만화 '끼' 있는 사람 모여라

목동청소년회관 문화학교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학교'가 개설된다.

목동청소년 수련관은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주에 걸쳐 매주 토·일요일 양일간 수련관내 문화의 집에서 '1318 문화예술 전문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취미의 차원을 넘어 청소년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교수진들을 종합예술학교 학생 및 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과 기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진행될 이번 문화예술학교는 △창작무용 △에니메이션 △재즈댄스 △연극만들기 △만화그리기 △판소리 △사물놀이 등 9개 강좌로 나뉘어진다. 각 반당 20명 내외이며, 참가신청은 22일 오전 9시 목동청소년 수련관 1층 극장에서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2646-681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건강백과

여름철 운동요령

여름철에 실시하는 운동은 적당량의 수분과 염분의 공급이 필요하다. 물은 몸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마시되, 염분 공급은 소금을 직접 먹는 것보다 냉면 육수, 콩국수 국물 등 염분이 섞인 물을 마시든지 물 1ℓ에 소금 1~2g을 타서 마시는 것이 좋다.

♦여름철 운동,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다

1) 스포츠 음료를 상비해야 한다.

여름에 운동을 하면 갈증이 나는데 이럴 때마다 물만 마시는 것은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채우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여름철 운동 중에는 10~15분마다 스포츠 음료를 100~200㏄ 정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소금물을 마실 경우에는 소금의 농도는 0.2~0.3%면 적당하다.

2) 땀을 흘린만큼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땀 흘린만큼 수분 · 전해질 보충

오전 10시 전 오후 5시 후 적당

운동하기 전후의 몸무게를 비교해 줄어든 몸무게만큼 수분을 보충한다. 땀의 배출로 3% 이상의 몸무게가 감소했다면 매우 위험하다.

3) 꼭 운동복을 착용해야 한다.

덥다고 맨살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피부가 태양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운동시 얇은 옷은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땀의 증발을 도와 쾌적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

4) 직사 광선이 내리쬐는 대낮은 피해야 한다.

덥고 습기가 많은 날에는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땀의 발산이 어려워 체온이 급상승하기 쉬우므로 너무 무리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한시간 이내로 한다.

여름철 장시간 운동은 탈수와 일사병을 초래하므로 아침 저녁 선선할 때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30분~1시간 가량 하는 것이 좋다.

"멜로디에 불심 담았어요"

10집 테이프 낸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 정유탁씨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묵묵히 새싹불자 포교에 매진해 온 이들이 있다. 어린이 찬불가만 전문적으로 만들고 보급해 온 '좋은 벗 풍경소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6월 10집 테이프를 발매한 '좋은 벗 풍경소리'는 95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쾌한 동요로 바꿔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며 신심을 기를 수 있는 음성 공양을 펼쳐왔다. 그동안 발표된 곡은 무려 160곡을 헤아릴 정도다. 또 음반 불사에 참여한 음악가도 현대 찬불 동요 제작의 효시라 일컬어지는 운문스님을 비롯 덕신스님, 이종만, 유익상, 정유탁씨 등 40여명이 넘는다.



◇이종만씨



◇정유탁씨



◇풍경소리가 최근 출시한 찬불동요 10집.

어려운 살림속 7년간 160곡 창작
찬불동요로 새싹불자 포교 한 몫
종단 후원 필요…산사음악회 계획

95년 1집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찬불 동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외면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엿하게 교계의 어린이·청소년 수련회에서 찬불가 교재로 사용될 만큼 인기가 높다. 이중에서 정유탁씨가 작곡한 '절에 갔었네' '육환장' '내가 다니던 시골길' 등은 어린이들에게 애창 동요로 자리를 잡았다. 찬불 동요가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알려지기 까지에는 '좋은 벗…'를 이끌어온 찬불동요 작곡가 이종만 실장(42)과 역시 함께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정유탁(27)씨의 공이 컸다고 주위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95년 12월 1일 찬불가 제작을 통한 어린이 포교를 목적으로 '기획 숲'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좋은 벗…'는 재정난으로 인해 많은 우여 곡절을 겪었다. 견지동에서 출발한 사무실도 현 위치인 마포에 자리잡기까지 열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주소를 바꿨다. 또 7백만원이나 드는 음반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종만 실장은 생계도 뒤로 한채 동분서주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10집 음반도 어려운 사정을 뒤늦게 전해들은 청도 운문사 스님들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빛을 보기 힘들었다.

이종만 실장은 "10집 음반을 출시하기까지 주머니 돈을 털어 보내주신 3백명의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음반 작업은 아마 벌써 중단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어린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종단 차원에서 찬불 동요를 적극적으로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좋은 벗…'는 음반 작업 이외에도 악보집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97년부터는 회원들의 소식과 행사 계획을 담은 소식지도 함께 만들어 오는 등 포교의 사각지대에서 찬불동요를 대중화하는데 한 몫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테크노 음악 등에 길들여져 있는 신세대 새싹 불자들의 기호와 유행에 뒤진다는 아쉬움도 있다.

10집 음반의 출시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좋은 벗…'의 이종만 실장과 정유탁씨는 이달 안으로 교계 어린이 및 청소년 관계자들을 초청한 '특별 좌담회'를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또 10집 발매 기념으로 올 가을에 산사 음악회를 기획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내놓은 음반 가운데서 인기곡들만을 모은 '베스트 음반'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청소년 단신

조계사 학생회 여름캠프

조계사 중고등학생회는 27일~30일까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책박물관에서 '청소년 여름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법흥사 참배 △동강 환경정리 봉사 △민속놀이 △산행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02)734-8179

방학중 자원봉사자 모집

청교련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자원봉사를 할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문화재 보호활동 △현충원 묘역정화 △농촌 일손돕기 △독거노인 보조 △교통실태조사 등을 펼치게 된다. 일정기간의 봉사가 끝나면 특별활동 이수증도 발급받게 된다. (042)488-0732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 열어

문화재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에서 '고궁 청소년문화학교'를 개설한다. 이번 문화학교에서는 궁궐의 연혁 및 역사, 전통건축과 조경, 궁중유물의 이해 등을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강의한다. 월요일은 창경궁, 화요일은 창덕궁, 수요일은 덕수궁, 목요일은 경복궁, 금요일은 종묘 순으로 진행된다.

백두대간 국토순례 행진

진각종 통리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백두대간을 따라서'를 주제로 한 제1회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안동 하회마을을 출발해 영주, 풍기, 단양, 제천을 거쳐 홍천까지 도보로 이동하게 된다.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⑬ 송하의 직지사 · 마곡사 편액



◇직지사 일주문 편액



◇마곡사 심검당 편액

송하 조윤형(松下 曺允亨/1725~1799)은 원교 이광사(圓嶠 李匡師)의 스승인 백하 윤순(白下 尹淳)의 사위이다. 또 시, 서, 화의 삼절(三絶)로 불리는 자하 신위(紫霞 申緯)의 장인으로 첩파(帖派)의 맥을 이은 조선 후기의 명필이다. 그는 본래 벼슬을 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글씨로 1766년에야 벼슬길에 올랐는데 임금의 지우를 입어 예조정랑, 책례도감상례, 안악군수, 성주목사, 호조참의, 공조참판, 지돈녕부사 등을 지냈다.

송하는 어려서 원교에게 글씨를 배웠으며 각 체의 글씨에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시체(時體)를 본받아 획법이 굳세고 예스러운 해서와 원교를 본받은 초서를 특히 잘 썼으며 팔분(八分)에도 장기가 있었다고 한다. 글씨로 벼슬을 할만큼 당대 명필로 이름이 높았던 송하는 당시 공관의 금석과 편액을 도맡아 썼다고 하는데 사찰 편액으로는 공주 마곡사 〈심검당〉, 김천 직지사 〈황악산직지사〉 편액 등이 남아 있다.

김천 직지사 일주문 앞쪽에 걸린 〈황악산직지사〉 편액은 가로 두 쪽의 나무판에 다섯 개의 큰 꺾쇠를 박아 이어 붙이고 좌우에 꼬리를 단 변죽에는 소박한 연화문의 단청을 했는데, 액판 좌측에 '경인하절(庚寅夏節)'이라는 전서로 쓴 관지와 '조윤형인(曺允亨印)'이라는 도서가 있다. 이 편액은 그가 45세되던 1770년에 쓴 것으로 이전의 일주문에 걸렸던 것을 현재의 일주문을 건립하면서 옮겨 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운필이 유여(裕餘)하며 결구가 전실(典實)한 해행(楷行)이다.

공주 마곡사 〈심검당〉 편액은 가로 두 개의 폭판을 이어 붙이고 마름모꼴의 도형으로 단청된 변죽을 했으며, 액판 좌측 아래에 '송하(松下)'라는 관지가 있다. 편액의 글씨를 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황악산직지사〉 편액과 같은 시기에 쓴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글씨가 성남 봉국사에도 번각되어 걸려 있다. 편액의 글씨는 획법이 활시위를 당기는 듯 강건(強健)하며 활달한 운필(運筆)의 해행(楷行)이다.

황악산 직지사 여유있고 부드럽게 쓴 해서

마곡사 심검당 활시위 당기듯 활달한 필체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세계 50국 청소년 경주서 불교체험

9월 25일부터 청년문화캠프

세계 50여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경주에 모여 캠프를 열고 불국사, 석굴암 등 한국불교문화재를 둘러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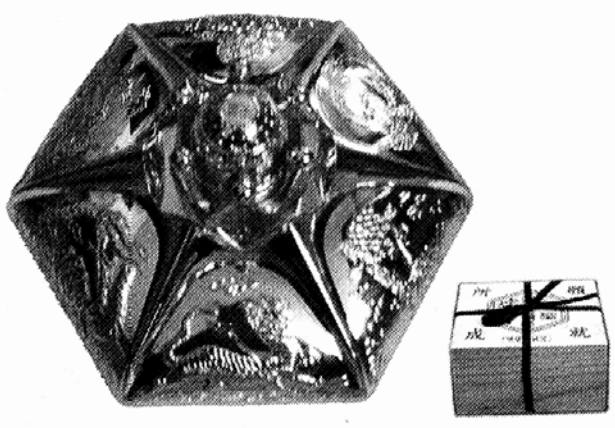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공동주최로 9월 25일부터 5박 6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청년 문화 캠프'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110명의 국내외 청소년 과 청년들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의 사찰 역사조사 △불상과 탑 등 불교문화재 연구 △불상의 종류와 형태 분류 △민속마을 탐방 등 다수의 불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다.

김주일 기자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 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줄것이며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오던 어느날 밤 꿈속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대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드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심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 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고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소식없던 식구가 연락이왔다.
· 말생만 피우던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다친곳이 없었다.
· 안되든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되었다.
· 가정에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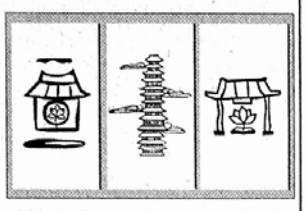
◆사용처◆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제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상담전화◆ 051)865-9933
051)861-1010
홈페이지 :www.6kibang.co.kr

◆생각지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숭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신상품 및 추천상품

죠온열 건강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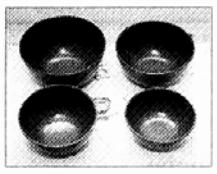
원하는 온도조정(36.5℃에서 70℃까지) 가능
가격: ₩105,000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꽂이



가격:
₩60,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폐 형 :₩20,00원
무개폐형 :₩15,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다 구 (茶具)

다구라 함은 차를 맛있고 향기롭게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한 그릇 및도구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관 (茶罐 :차주전자)**
물과 잎차를 넣어 우려내는 도자기 주전자. 보통 주전자와 같이 손잡이가 위에 둥글게 붙은 것과 몸 따로는 주둥이의 반대편에 붙은 것이 있다. 주구의 안쪽은 거름망이 있어서 차의 찌꺼기가 주둥이를 타고 나오지 않게 한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다완 (茶碗 :찻잔)**
찻잔(다완)은 다관에서 우려낸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을 말하며, 시대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전한다. 구는 원통형의 통잔, 완은 사발형의 가루차용, 종은 작은 반구형의 잎차용을 이른 것 같다. 찻잔은 약간 두툼하여 쉬 뜨겁거나 쉬 식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잎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의 안쪽은 백색이 좋다. 잎찻잔은 보통 3개(5인기)와 3개(3인기)로 손잡이가 없다.

■**차시 (차숟가락)**
마른 차 잎을 다관에 일정량 떠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주로 대나무나 먹감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작측, 차살피라고도 한다.

■**차탁 (차반, 잔 받침)**
찻잔의 물흐름을 받쳐주는 받침. 찻잔 받침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매모양 등으로 주로 도자기나 나무재료이다.

■**숙우 (熟盂 : 물식힘사발)**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적당량 부어 알맞은 온도로 식히는 사발이다. 물을 붓기 좋도록 귀가 있어 귀사발또는 물식힘 사발이라고도 한다.

■**다포 (茶佈 : 찻상포)**
찻상 바닥의 깔개 혹은 찻상 위에 덮는 것으로 삼베나 무명을 사용하여 물기가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차통**
차통은 차의 변질을 막고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석, 양철 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모양은 통형, 기둥형, 단지형이 많다.

■**다선 (차솔)**
대나무 껍질을 잘게 쪼게어 만든 것으로 찻사발에 가루차와 끓인 물을 붓고 휘저어서 융합 시키는 기구이다. 차선은 보통 80본,10본, 120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차선(80본)으로 100회 정도젓는다.

■**찻상**
다구들을 올려서 행다를 하는 목재로 만든 상. 사각, 육각, 팔각, 원형,서랍형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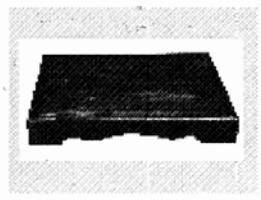
■**개인다기**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과 거름망, 잔 뚜껑으로 구성된 다기.

■**탕관 (湯罐 : 물 끓이는 솥)** 물 끓이는 그릇으로, 신라 때에는 돌 솥도 있었다. 지금은 의식 다례가 아니면 화로나 탕관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전자나 전기포트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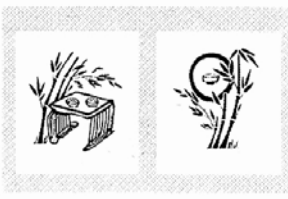
■**여행기**
회수기 개수그릇이라고도 불리우며 처음에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차를 우려낸 다음 숙우나 찻잔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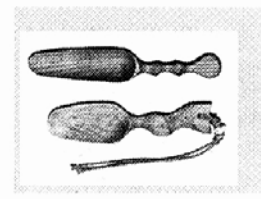
끝으로 다기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다기는 진열용이 아니다. 다른 도자기 제품처럼 예술성과 골동품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생활 자기임으로 유명도예가의 고가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려면 편리한 기능과 도자기 제품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하고 쉬 싫증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 좋다.



찻 상
재질 : 소나무 원목
가격 :₩5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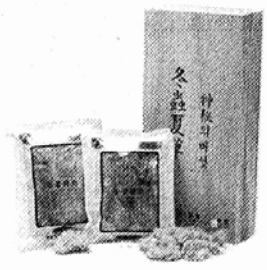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차 시
제품에 따라 모양이 다름
가격 :₩15,000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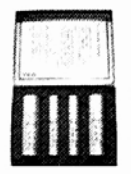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석씨향방 오분향, 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대나무 숯 염색천



■크기 : 44인치 X 5.5야드 ■가격 : 60,000원
■색상 : 진회색/회색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순금도금 은 하란야메달



- 용도및효능 : 남녀공용 브로치형 배당
- 재질 : 천연자수정大부작 은메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 효능 : 정화치유에너지가 발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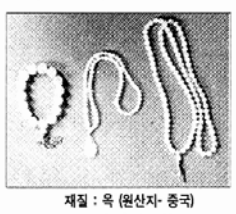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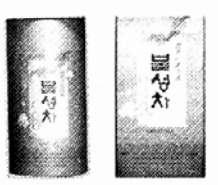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불 성 차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삼보죽염 낱개 1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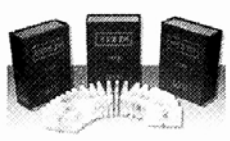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인시대,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에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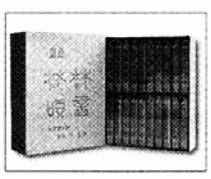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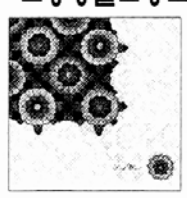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러퍼져
희망찬 미래를 염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1세트 : 10개입
■가격 : 25,000원

쑥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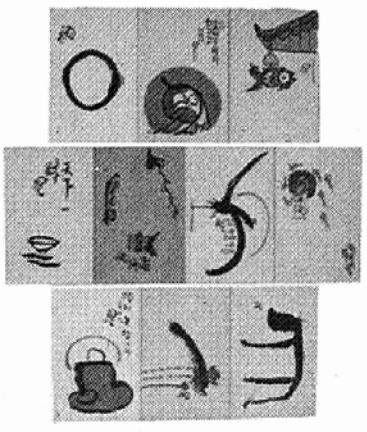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불교 그림 엽서

■소중한 마음을 불교그림 엽서에 담아 보내세요.
■가격 : 1세트(10장) 2,500원 / 4세트(40장) 10,000원



수안스님 그림엽서1



수안스님 그림엽서2

석정스님 그림엽서

일장스님 그림엽서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	12,000원
· 나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바른 신앙

서울 영등포의 B씨는 아내에게 '종말이 곧 올테니 애를 낳지말라'며 낙태를 시킨 뒤 자신도 기치료에 연연하다 숨지고 말았다. 고교교사 Y씨는 집을 담보로 잡히고 2천500만원을 헌금한 뒤 교직에서 물러났고 육군본부 대령 C씨도 거액의 대출사기에 가담했다가 전역했다. 이들은 모두 1천6백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천존회의 종말론과 기치료 수법에 현혹돼 씁쓸한 말로를 맞았다.

교주의 말에 홀려 사기행각을 벌이고 전 재산을 헌금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 의사, 기자 등 소위 배울만큼 배운 지식층 사람들도 대다수 포함돼 있어 '바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한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경책하는 기회로 삼아보자.

법 믿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은 "수행자들이여, 마음이 삿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며, 생각이 악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불반니항경〉

▨이 세상에 내가 받들어 섬길 만한 이가 없으니 이제 나는 깨달은 법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받들어 섬기면서 의지해 살아가리라. 〈잡아함경〉

▨법을 믿을지언정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잡아함경〉

▨스스로 법등에 불을 켜고, 스스로 자기에게 귀의하라. 다른 등에 불을 켜지 말고, 다른 법에 귀의하지 말라. 〈중아함경〉

▨저 뱃사공은 배를 손보고 활 장이는 뿔을 다루며 교묘한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몸을 다룬다. 마치 저 깊은 샘물이 속속들이 맑게 트인 것처럼 법을 듣는 마음 그와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뻐하나니. 〈출요경 수품〉

▨평상시의 마음도 특별한 경우를 만나면 흐트러진다. 특별한 경우에도 평상시의 마음을 가지도록 배워야 한다. 〈중아함경〉

▨너희들은 말법시대에서 마땅히 무량겁에 걸쳐 모아진 이 가르침의 곳집을 잘 열어 사람들에게 주며, 널리 사부대중을 분별해 해설함으로써, 이 바른 가르침의 씨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느니라. 〈지세경〉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좌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부리기와 옷입기 등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장아함경〉

▨부처님을 믿는 사람, 끝내 다른 천신(天神)을 믿지 말라. 법을 믿는 사람, 남을 해치고 미워하지 말라. 스님들을 믿는 사람, 외도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 두려움 없으리라. 〈대반열반경〉

▨믿음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계행을 가져야 하며, 법을 자주 들어야 할 것이며, 인색함을 버리고 항상 희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지혜로써 법의 깊은 뜻을 살펴야 한다. 〈잡아함경〉

▨믿음이 있어야 거센 물결을 건너고 게으르지 않아야 바다를 건너며 수행에 힘써야 고통을 떠날 수 있고 지혜로워야 청정함을 얻느니라. 〈별역잡아함경〉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물을 소중히 여기듯이 수행자는 경전을 소중히 여겨 부모 섬기듯 해야 한다. 〈장아함경〉

▨법(法)의 거울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니라. 기쁜 마음으로 법을 믿으라. 법은 참되고 바르며 열반에 이르게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믿는 것이니라. 〈장아함경〉

▨내 법을 완전히 이해하거든 법답게 받아 지키고, 만약 이해하지 못했거든 나에게 묻거나 지혜있는 수행자들에게 물어라. 〈증아함경〉

▨스스로 믿고 남을 믿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더욱 더 어렵다. 〈왕생예찬게〉

▨법을 들으면 다섯 가지의 공덕이 있느니라.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법을 들어서 그것을 읽고 외울 수 있고, 생각이 삿되게 흐르지 않고, 믿음이 생기며, 진리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느니라. 〈증일아함경〉

▨불법은 미묘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온갖 언설의 미칠 바가 못된다. 이는 화합도 아니요, 화합 아님도 아니니, 체성(體性)이 고요하여 갖은 모습을 떠났느니라. 〈화엄경〉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이의 백 년은 진리를 깨닫고 사는 이의 하루만 못하다. 〈법구경〉

신행 캘린더

7월19일 (수)

■ 진각종 유치원교사 연수회=진각종 교육원은 21일까지 총인원에서 '유아생활과 열린마음'을 주제로 유치원 교사연수를 갖는다. (02)913-0753

7월20일 (목)



◇ '신나는 여름방학이다.' 부다피아 캠프에 참가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보자.

■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현대불교신문사는 2박3일의 일정(20~22일)으로 초등학교 1~6학년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용주사와 목아박물관, 에버랜드에서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를 개최한다. 080-717-0114

■ 자양사회복지관 아동캠프=자양사회복지관은 22일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아동 캠프를 개최한다. 자연학습 및 갯벌탐사, 민속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02)458-1664

■ 서초서 경승실 개원법회=서울 서초 경찰서 경승실은 오후1시 개원법회를 갖는다. 서초사암연합회 경승단에서 주최하는 개원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 서초사암연합회 회장 혜덕스님 등 스님과 신도 4백여명과 관내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02)3460-5300 관문사

7월21일 (금)

■ '맑고 향기롭게' 어린이수련회=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은 23일까지 전남 담양군 법천사에서 초등학교 1~6학년생을 대상으로 '맑고향기롭게 어린이 수련회'를 연다.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은 이번 수련회를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는 날, 전통놀이 알아보고 해보기, 부처님 공덕 가슴에 새기는 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끈다. (062)267-0048

■ 전국 대학생 지리산탐사=진주환경운동연합은 3박4일간(21~24일) 지리산 백무동→세석평원→장터목→천왕봉→치밭목→조계골→대원사계곡에서 '전국 대학생 지리산 대탐사'를 실시한다. 011-9558-4638

■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 추진모임은 오후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장기수 환송법회를 개최한다. (02)734-6401

■ 봉정암 철야기도=용진신행회는 2박3일(21~23일)의 일정으로 설악산 봉정암 철야기도를 떠난다. 백담사, 오세암을 들러 참배하고 봉정암에서 철야기도 법회를 봉행한다. (02)2279-1191

■ 사찰생태기행=조계종 총무원은 1박2일간(21~22일) 수덕사, 인취사로 사찰생태문화기행을 떠난다. (02)741-4696

7월22일 (토)

■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보조사상연구원은 오후2시30분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에서 31차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동국대 우제선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이 'virodha(부정합 不正合)와 불교의 찰나설'에 대해 발표한다. (02)733-5311

■ 청소년 여름불교학교=금강경독송회는 2박3일간(22~24일) 경주 단석산 자락에 위치한 OK그린수련원에서 제8회 청소년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054)261-2231

7월23일 (일)

■ 백제유적 역사를 찾아서=터사랑은 엄마와 함께하는 교실 밖 역사공부 답사여행을 떠난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의 안내로 무령왕릉, 공주박물관, 부여박물관, 궁남지, 정림사터를 둘러본다. (02)725-1284

■ 신흥사 어린이 인연학교=완도 신흥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슴펴고 어깨 걸고'를 주제로 어린이 인연학교를 연다. (061)554-2634

7월24일 (월)

■ 청소년자원봉사활동=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부산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27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내고장 문화유산 가꾸기, 벽화 그리기, 맑고 깨끗한 부산 가꾸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051)898-2672

■ 진각종 청소년국토순례 대행진=진각종은 28일까지 '백두대간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제1회 청소년 국토순례 대행진을 벌인다. 국토대행진은 안동 하회마을을 출발, 영주-풍기-단양-제천을 거쳐 홍천까지 도보와 차량이동으로 진행된다. (02)913-0753

법회안내

효행학교서 법문



정락 용주사 주지는 27~29일 열리는 '효행 어린이 불교학교'에서 법문한다. (031)234-0040

'금강경' 불일강좌



오경 법련사 주지는 20일 오후2시 법련사 2층 문화회관에서 〈금강경〉 강좌를 진행한다. (02)733-5322

'현대불교와 과학' 강의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23일 오전10시 삼보정사에서 '현대불교와 과학'에 대해 법문한다. (02)913-2859

'불교학 개관' 특강

고순호 부산불교연구원 원장은 24일 오후 7시~8시10분 〈불교학개관〉을 중심으로 교리법회를 봉행한다. (051)462-3427

'불교의 미래' 강연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24일 오후3시30분 한국불교연구원 서울 구도법당에서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법문한다. (02)3411-6167

게시판

알림

▲A형 혈액기증자 급구="미현이 엄마를 살려 주세요."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재상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6살박이 미현이의 엄마를 위해 A형 혈액기증자를 급히 찾는다. (02)421-6077

▲물리치료실 무료개방=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11시~오후4시 골관절염, 오십견 등 만성통증자, 뇌졸중 등 운동치료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무료 개방한다. (02)852-0525

▲무료법률상담=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31일까지 오전10시~오후5시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02)985-0161

▲치매, 뇌졸중 노인 진료=인덕노인복지회관은 60세 이상의 치매나 뇌졸중 환자, 거동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물리치료, 여가활동, 인지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385-8205

▲독서지도 동아리=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2~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기 위한 독서지도 동아리를 2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1~2시30분 실시한다. (02)2282-1100

▲형사소송 문제 상담=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2시 형사고발 관련 법률 상담을 한다. 서부경찰서 현직 수사과장이 민원해결을 돕는다. (02)385-1351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개설=강남포교원은 28~30일 본원에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동참금 1만원.(02)539-2631

모집

▲영정사진 서비스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영정사진을 촬영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장애인돕기 자원봉사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거동이 힘든 독거장애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가사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주1회 2~3시간. (043)652-0900

▲문화강좌 수강생=낙동복지관은 탁구, 볼링, 에어로빅, 기체조, 서예, 한식·일식 요리사 과정 등의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051)271-0560

▲노인 프로그램 진행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미술활동, 스포츠마사지, 발 마사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02)365-3677

▲외국인 자원봉사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여름방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Hello 전화 영어교실을 지도해 줄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1)716-4215

▲노인 봉사대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봉사대, 교통봉사대, 복지관내 봉사대원을 모집한다. 선착순 30명. (02)852-0525

강좌

▲간병인 및 호스피스케어=충북 불교자원봉사센터는 제11기 직업 간병인 및 호스피스케어 교육생을 모집한다. 충북 청원군의 지장정사에서 8월16일부터 10월11일까지 8주간 이루어지는 이번 교육은 병원 비보호 환자를 위한 자원봉사 간병인 교육과 호스피스 전문요원 양성교육, 직업 유료간병인 교육, 입종시 불교의식에 따른 사후 처리법 등으로 진행된다. (043)254-2258

▲매직풍선 배우기=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19일 오후1시 매직 풍선 배우기 강좌를 연다. 무료. (02)2282-1100

▲사물놀이=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금요일 오후3시30분~5시 무료 사물놀이 강좌를 진행한다. 6개월 과정. (02)421-6077

부음

▲이근후 본지 논설위원(이화의대 교수)의 빙모가 8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천순기 불교복지보건대학 교학팀장이 지난3일 동아대학병원에서 별세했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99년도 합본집 (2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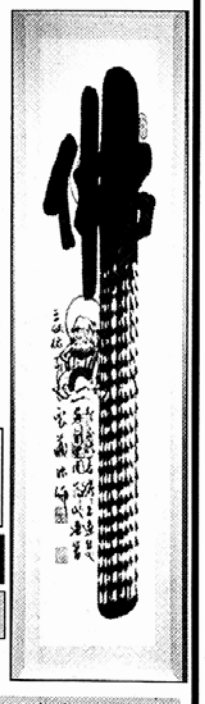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 잔여분을 판매합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0,000원 (발송비 별도/지역별 실비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墨家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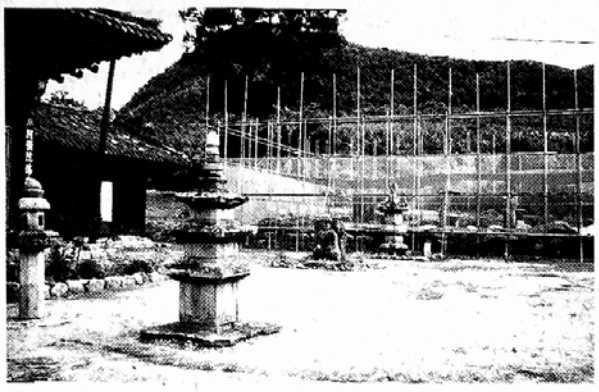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일반적으로 쓰는 인진쑥이 아니라 자연산 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생년간 자라면서 겨울에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고양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북분자(신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몸과 마음으로 견성·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각종 암과 불치병에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상황버섯·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등이 필요하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 주문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조사전 복원공사가 한창인 인각사 경내.

군위 인각사 성역화

대웅전 복원…지표조사후 종합정비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가 대웅전(조사전) 복원공사에 본격 착수하는등 성역화 불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군위군이 문화재청의 지도로 6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웅전 복원불사를 진행중(연내 완공예정)이며 조만간 조계종 문화부 발굴조사단등과 협의해 지표조사를 실시, 올해 안에 인각사 종합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8월8일 오전 10시30분 일연스님의 711주기 다례재를 봉행하는 인각사 주지 상인스님은 "지자체와 인각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이종백 前 군위군 의회의장)등과 협의해 도량 복원, 수련원 건립 등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 성역화 불사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위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인각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군위군은 인각사를 관광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배양하는 사적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 충렬왕 때 보각국사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11년(642)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보각국사 탑 및 비가 보물 제428호로, 인각사 경내가 경북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군위군 관계자는 화북댐 건설 예정지는 97년 6월 건교부가 약속한 그대로 인각사에서 3㎞ 상류 지점인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라고 밝혔다.

군위=김재경 기자

음성에 불교장묘시설 '정착'

충북 음성군이 불교 장묘시설의 시범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탑공원이 들어선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을 비롯 고심사, 용흥사, 음성납골공원 등과 함께 미타사가 대규모 납골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음성군이 납골시설 개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타지역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우려해 시설 유치를 꺼리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마음선원·고심사 영탑공원 조성 '호평'
미타사·용흥사도 1만기 납골시설 추진
"묘지난 해결" 郡서 자금지원등 적극 유치

충북 음성 가섭산 미타사(주지 명안)는 9일 납골공원에 높이 108척(41m)으로 동양최대 규모인 지장보살 복장식을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이날 기중기로 들어 올린 대형 박스 5개를 가득 채운 복장물에는 부처님 진신사리와 다라니, 경전, 금, 은, 칠보 등의 성물이 들어갔다. 점안식은 오는 10월 4일 대규모 문화행사와 함께 봉행된다.

미타사는 가섭산 아래 6만6천평의 부지에 높이 3m 높이의 납골(기단부에) 지장보살상 1만기를 봉안해 불심과 효심을 불러일으키는 불교 장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108척 지장보살상 뒤에 만불각이라는 법당을 세워 10㎝ 크기의 옥으로 만든 지장보살 1만불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5천8백평 규모로 지난 86년 문을 연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탑공원은 현재 700여기의 영탑을 조성, 나머지 200여기를 분양받고 있다. 초등학교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아 한마음선원은 진주·제주·중부경남(마산)지원에도 영탑공원을 조성해 분양중이다.

불교 전통 장례법인 부도탑을 최초로 현대화한 탑공원이 좋은 반응을 얻자 한국불교대원회 고심사도 95년 1천평 100여기 규모의 영탑묘원을 조성했다. 최근 납골시설 허가를 받아 낸 용흥사도 1만2천기의 영탑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음성군에 불교 납골시설이 잇달아 들어서게 된 것은 음성군의 적극적인 장묘제도 개선책에 따른 것. 음성군은 납골당 1천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사설 납공시설 및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에 나서는등 묘지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이 경부·중부고속도로에 인접, 수도권에서 가까운 잇점 때문에 납골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납골시설 허가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총인구를 4천만으로 계산할 때 소요되는 영탑은 1천만기 정도. 영탑 등 납골시설을 이용하면 매장한 경우보다 여의도 면적의 108배 넓이가 남게 된다. 매년 여의도 크기만한 땅이 묘지가 되고 일부 계층이 호화분묘로 말썽을 빚는 등 묘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교 화장제에 기초한 납골시설이 대안이 될 것이란게 장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음성=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9일 복장식을 거행한 미타사 108척 지장보살상(뒤쪽).

미륵정사 6년 통일발원 회향



◇통일발원도량인 하동 미륵정사 전경.

경남 하동 미륵정사(주지 묘연)는 17일 오전 11시 남북평화통일발원회향대재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6년 고행을 본받아 94년 7월17일부터 올 17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용맹정진기도를 계속해 온 묘연스님은 "굳이 제헌절을 택해 남북통일 발원회향대재를 봉행한 것은 남·북한의 모든 법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로 고루 효력을 발휘해 상생의 평화통일이 조속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는 축사 및 법어,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 만세 삼창, 육법공양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봉서사 영산작법 전수교육

지방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봉서사 영산작법의 전래 보존을 위한 연수교육 개강식이 11일 오전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에 자리한 봉서사 교육장에서 임명환군수를 비롯한 유정동 보존회장 영산회원 신도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봉서사 영산작법은 우리나라의 범패 시조인 진감국사가 신라 흥덕왕(8백30년)때 경학과 범패를 수학하고 돌아온 후 범패와 작법을 가르치면서 호남지방에서 매우 성행한 의식무용으로 봉서사를 중심으로 그 뿌리깊은 맥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오고 있다.

지난 87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산작법은 이후 완주군에서 원형보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사업비 1천7백만원을 들여 교육과 공개행사를 통한 전수활동에 힘쓰고 있다. 김재경 기자

개신교인 사찰납골당 반대

극락정사 건립 나서자 "혐오시설" 주민 선동

전남 보성 극락정사가 사찰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신교인들의 조직적인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락정사는 지난 6월 전남도와 보성군으로부터 보성군 겸백면에 2만3천여평 규모의 사찰 및 납골당 건립 허가를 받았으나 몇몇 개신교인이 일부 지역주민을 선동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5일 "주민과 사전 협의없이 혐오시설을 세우려 한다"며 반대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극락정사 주지 용담스님은 "허가신청을 내기 전에 7차례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군 개발위원회는 물론 지역의 각급 기관장 회의 때에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얻었다"며 "이렇게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통과된 사항을 놓고 이제 와서 몇몇 개신교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극락정사가 추진중인 납골당은 현재 설계를 모두 마치고 군의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영동 천국사 낙성
"100만 관음보살 조성"

충북 영동에 소재한 관음종 천국사(주지 해정)는 12일 낙성 및 비로자나불(360㎝) 점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혜웅,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심규철 국회의원, 박완진 영동군수, 유봉렬 옥천군수 등 사부대중 2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지 해정스님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의 낙성식을 갖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호 덕택이었다"면서 "천국사를 100만 관음보살상을 모신 중부권의 중심 기도도량으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043)742-5966

영동=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법주사 수행학교 개설

제5교구 속리산 법주사(주지 지명)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3차에 걸쳐 불교문화 체험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여름수행학교를 개설한다. 여름수행학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모집인원은 초등부 120명(7월21일~23일), 청소년부 350명(7월24일~27일), 일반부 110명(8월4일~7일) 등 모두 580명이다. 신청마감은 20일. (043)543-3615

태고종

사정위원에 동우스님



인곡 총무원장 스님은 연운 사정원장 스님의 제청을 받아 5일자로 동우스님〈서산 송덕암 주지·사진〉을 중앙사정위원에 임명했다.

동우스님은 1947년 서산生으로 58년 남허스님을 은사로 수덕사로 출가했으며 충남교구 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법규위원 등을 역임했다.

천태종

8월 1일부터 하안거

불기 2544년 경진년 신도 하안거가 8월1일부터 30일까지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각 말사, 회관에서 일제히 결제식을 갖고 한달간 기도정진에 들어간다. 이번 하안거에 들어갈 신도들은 낮에는 직장이나 가사일을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사찰에서 철야 기도정진을 한다.

진각종

서울교구 체육대회

서울교구 신교도 화합의 장이 될 서울교구청 소속 신교도 체육대회가 17일 경기도 다산 정약용선생 생가 옆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이하는 체육대회는 4개팀으로 나누어 축구, 피구,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심인당별 장기자랑을 한다.

관음종

태허대종사 열반 21주기

창종주인 태허대종사 열반 21주기를 맞아 25일 오전 11시 총본산 묘각사에서 추모 다례법회를 봉행한다. (02)763-5851

대한법화종

청룡사 통일의 종 건립

충주 청룡사(주지 덕륜)는 16일 오전 11시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통일의 종' 불사 추진 및 대웅전 복원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대법회에는 종정 구암스님과 총무원장 법홍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한다.

새로 주조되는 '통일의 종'은 무게가 1천관으로 용걸이를 포함한 전체 종고가 1.67m, 폭 0.9m로 삼국통일을 실현한 성덕대왕 신종(일명 에밀레종)의 외형을 축소한 모양으로 전통적인 법종 양식에 따라 주조, 2002년 완성될 예정이다.

법륜종

창법 총무원장 20일 취임



지난 5월 29일 제6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덕산 창법 스님〈사진〉의 취임식이 20일 오전 11시 충남 논산 노성면 화곡리 지장암에서 개최된다. 창법스님은 현재 법륜종 논산시불교사암연합회장, 논산시 경승실장, 대전교도소 교화위원 등을 맡고 있다. (041)733-5629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21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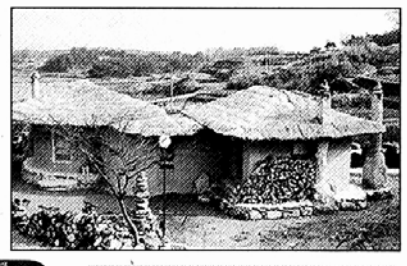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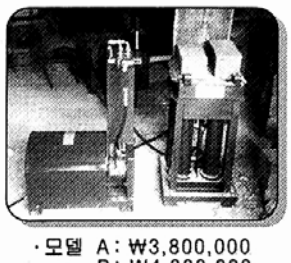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연밥(연꽃씨)을 드셔 보셨나요?

그동안 이용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본제품을 이용해주신 분들과 이번 기회를 통해 구입하신분에 한하여 연락주시면 연꽃씨(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이며 일주일만 물에 담가 놓으면 싹이 틉니다.)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연밥은 풍부한 녹말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아미노산 조성분인 리신이 상당량 포함된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연꽃장식이 출토되었고, 불교전래 이전의 고대인도에서도 이미 다산(多産)이나 생명연장(生命延長)의 상징 또는 대지와 그 창조력, 신성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진흙속에서도 청순한 꽃을 피우는 연(蓮)을 극락정토(極樂淨土)라하는 견해도 있어 불교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味甘無毒養氣力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기력을 돕는다
除百疾補五臟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며
止渴益神安心 오장을 보호하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
多食令人喜 정신을 좋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많이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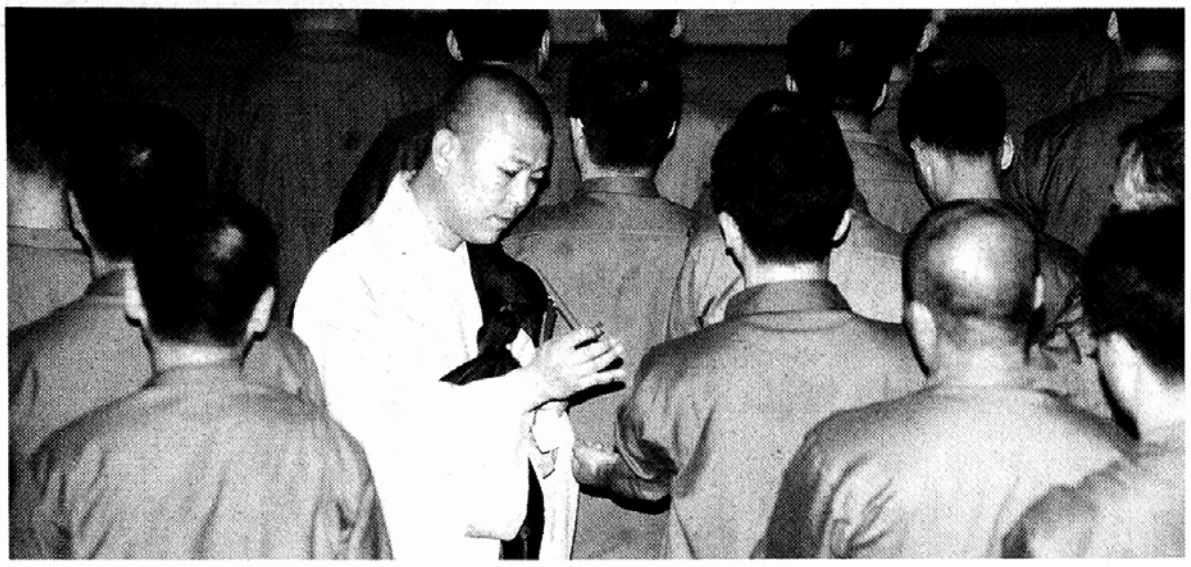
- - 동의보감 탕액편 중에서 - -

각각의 포장속에는 연밥의 원형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밥의 속심과 겉껍질 및 속껍질이 손수 수작업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물에 불리시어 생식을 하시거나 사찰이나 각 가정에서 콩개념으로 넣어드시면 밤이나 고구마같은 연밥의 독특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품안내	3KG	36,000원	각각 포장 판매 〈택배 포함 가격〉
	5KG	55,000원	
	10KG	105,000원	

예금주 : 기업은행 (377-009547-04-018) 인창 물산
농 협 (217028-52-013565) 여진구

구입문의 인 창 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73-25
(031)907-2567, 906-5691-2



◇연비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 이들은 보일듯 말듯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 지난날의 과오를 묻고 참불자로 태어나겠다고 발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참회 또 참회…법명대로 새 삶"

춘천교도소 재소자 300명 수계받던 날

"부처님 전에 두손모아 참회합니다."

14일 춘천교도소 강당. 푸른색 수의를 입은 3백여 재소자들이 포교원장 정련스님을 수계법사로 연비를 받고 있다. 무엇인가를 발원하는 간절한 기도소리. 힘껏 모은 합장에 얼굴을 파묻은 애절함. 수계식은 그렇게 지난날에 대한 참회와 부처님을 찾는 신심으로 채워졌다.

어릴적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다는 김현철(가명)씨. 스님이 향으로 오른쪽 팔에 연비를 하는 순간 눈물을 글썽인다. '불자로서 거듭난 아들을 만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할까' 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곳에 와서 처음 불교를 접했던 차태현(가명)씨는 '정명(正命)이라는 법명을 받고 새로 태어났다. 성실하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사회생활을 해야한다는 뜻이 담긴 '정명'. 차씨의 굳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불교대학 통신과정을 통해 불교를 배우고 있는 문동환(가명)씨는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은 후에도 석가모니불 정근을 계속한다. 오늘 이렇게 큰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고 부처님 전에 참회를 하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신심돈독한 불자인 대일광업옥산가 김준한 대표의 원력으로 조계종이 마련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TV 40대, 체육용품 등 위문품이 전달됐으며, 재소자 장기자랑과 반야연예인불자회의 위문공연도 펼쳐졌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과거를 반성하고 갱생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내년 7월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이 가능해지므로 앞으로 불고계도 재소자 교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자교정인연합회 춘천교도소 민찬수 지회장은 "평소 법회때는 2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하는데 오늘은 3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동참해 수계를 받았다"며 기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위험 암반 제거공사 놓고 정암사-노원구 '갈등'

등산로 주변의 위험 암반 제거를 위해 일시 철거된 사찰이 복원과정에서 더 큰 위험을 안게돼 지자체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갈등을 빚고 있다.

노원구는 지난 97년 불암산등산로와 인접한 정암사(노원구 중계4동 산28번지 소재) 주위 암반이 대량으로 붕괴될 위험을 보이자 2억5천만원을 들여 암반제거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암반 바로 밑에 있던 정암사는 공사후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기로 하고 사찰을 일시 철거했다. 정암사는 공사가 끝난 직후 사찰을 다시 복원하려다가 주위 암반이 공사이전보다 붕괴위험이 더 가중됐다고 판단, 노원구에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암사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암반 붕괴의 위험요소가 많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정암사 주지 형택스님은 "공사비가 2억5천만원이나 되는 큰 공사인데도 시공업자와 수의계약만을 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부실공사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암반이 풍화도가 심한 풍화암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남아있는 암반의 균열만 가중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원구청 녹지과 이성환 과장은 "공사후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진단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바위 정상부근의 위험요소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공사를 할 수 있지만 재시공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6월 2일자로 노원구에 공문을 보내 공사마무리를 부족하게 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하자보수 및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경숙 기자

마이산 탑군 관리자 교체 취소요청

종단협, 전북도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11일 전북도지사 앞으로 종단협 명의의 공문을 보내 마이산 탑군 관리자 교체 취소를 요청했다.

공문에서 정대스님은 "성보인 마이산탑사의 탑군을 일반문화재와 같이 취급하려는 귀 도의 금번 조처는 자칫 불교신앙을 폄하하고 종교적 편향성이 깃든 처사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전제하고 "마이산탑사의 탑군은 불교의 성보이며 신앙의 대상인 바 탑군은 마땅히 탑사의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찰의 대중이 보존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예전처럼 마이산 탑사에서 관리를 맡아야 함을 강력 주장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뉴스 & 뉴스

"불자 헌혈 가장 적극적"

다른 종교인보다도 불교인들이 헌혈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엄상호씨가 최근 제출한 '헌혈자의 헌혈에 관한 인식과 헌혈홍보에 관한 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엄씨가 부산지역 12개 헌혈의 집 방문자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교가 139명(35.5%)였으며, 개신교와 천주교는 두 종교를 합해 83명(21.2%)에 불과했다. 무종교는 169명(43.3%)이었다. 한명우 기자

구미 실직자지원센터 개소

구미불교사암연합회와 구미불교청년회,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 등 이 지역 불교단체들은 남화사에 '구미실직노숙자상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4일 낮 12시 개소식을 갖는다.

구미실직노숙자상담지원센터는 노숙자 수용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상담과 직업알선, 병원과 연계한 의료활동,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명우 기자

부산 달마선원 개원

해인사 원당암 부산 포교원 달마 선원(주지 대운)이 10일 개원됐다.

시내 중심의 건물 2층과 3층에 법당 40여 평과 달마보급을 위한 화실 30여 평이 우선 개원됐고 40여 평의 선방은 개원 앞두고 한창 공사중이다. 주지 대운스님은 "참선으로 자기를 구하는 공간이 되도록 소박하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051)468-8503

부산=천미희 기자

천수암서 용머리상 발견

석탑 불사를 하던 암자에서 땅 속에 묻혀있던 석조 용머리상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시 중구 달성군 유가사의 산내 암자인 천수암 주지 금산스님은 96년 석탑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고르는 과정에서 용머리 형상을 한 길이 150㎝가량의 석조물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형진 기자

경불련 '초록이' 문열어

경불련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소재한 알뜰가게 '내 친구 초록이'(1층)와 '희망만들기 열린학교'(2, 3층) 개소식을 갖는다.

'내 친구 초록이'는 개인과 기업들이 기증한 생활용품, 네팔 물건 등을 판매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도 실시한다. 김재경 기자

대학생 지리산 대탐사

진주환경운동연합은 21~24일 3박4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전국 대학생 지리산 대 탐사'를 실시한다.

탐사 장소는 백무동→세석평원→장터목→천왕봉→치발목→조계골→대원사계곡이며 참가인원은 40명, 참가비는 3만원이다. 011-9558-4638

김재경 기자

목탁소리

천 미 희
〈부산 주재기자〉

MBC의 묵묵부답

지난 4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는 '국고로 문화재 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범어사가 광해군 5년에 지어진 3백년 된 건물 월조헌을 헐어내고 새 주지 집무실을 짓는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또한 이날 내용에는 공사비를 문화재청에서 부담하는 등 문화재 훼손에 국고가 동원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도로 많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범어사측이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개탄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그러나 MBC에서 말하는 월조헌은 임진왜란 당시 이미 화재로 소실된 건물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범어사 주지실 요사 이건기'에 따르면 현재 개축중인 문제의 월조헌은 32년 전인 성수스님 주지 당시 1916년에 지어졌던 회랑을 현재의 위치로 이건 한 것.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범어사 대웅전 주변 건물의 개·보수시 전통사찰의 균형적인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쯤 되면 불자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내보낸 것은 방송매체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다. 정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뉴스보도가 그 생명을 잃은 격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담당 기자는 "자신은 문화재로 지칭한 적도 없고 주지 집무실이 50여 평이나 되고 수입목 쓰는 것 등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그러나 그것 또한 요사채의 기능이나 사찰 건축에 대한 몰이해일 뿐 오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은 되지 못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MBC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거나 정정보도를 내놓지 않았고 범어사도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범어사 일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언론 대응은 언제나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불교계의 언론 모니터 강화와 아울러 방송 등을 통한 훼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두레생태기행 환경휴가 10계명

두레생태기행(대표 김재일)은 최근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하더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말기를 바라는 뜻에서 1백11명의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환경휴가 10계명'을 공표했다.

1.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2. 현장 주변의 생태환경에 관심을 가집시다.
3.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가져가지 맙시다.
4. 현지 취사를 삼가고 지역의 향토음식을 먹읍시다.
5.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사이좋게 지냅시다.
6. 현지의 동식물을 훼손하거나 갖고 오지 맙시다.
7. 차량은 주차장이나 현장에서 가능한 먼 곳에 주차합시다.
8. 아무데서나 함부로 세차를 하거나 용변을 보지 맙시다.
9. 생태보전지역과 금지된 구역을 지킵시다.
10. 단체행사라도 앰프나 확성기 사용을 자제합시다.

통도사 자비원 세 노인의 망향 아픔



◇최봉학·심윤식 할아버지.

"오늘도 연락이 안왔니?"

부산 통도사 자비원 노인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최봉학(80)·심윤식(71) 할아버지와 이선희(78) 할머니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에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신청을 해놓고는 북에 두고 온 혈육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6.25때 인민군으로 참전했다 포로가 된 후 전향한 최봉학 할아버지는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황해도가 고향인 심윤식 할아버지는 "하나뿐인 동생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인다. 이선희 할머니는 매일 법당에서 부처님께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지난 5일 컴퓨터 추첨에서 1차로 선발한 400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비원은 세 어르신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아직까지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있다.

"언제 돌아가실 지 모르는 분들인데…." 곁에서 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지켜보는 자비원 원장 혜원스님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한명우 기자

최고의 전문가만이 그 진가를 아는 "메가플러스 명상기"

— 단 20분간 명상으로 3시간 업무를 한시간에 끝낸다! —



"도심 속 포교당에서 체험을 위주로 하는 명상을 지도한지 벌써 2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 동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믿고있지만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체계 있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구상하던 중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분의 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어 메가플러스를 구입하여 늘 사용한 결과, 지금은 불면증은 사라진지 오래고, 리듬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명상생활과 함께 다이어트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께서 명상을 지도하시는 만큼 명상기기로써 또 시스템의 한 방법으로써 사용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적극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한 달쯤 그냥 지냈는데 우연히 모 월간지를 보고서 메가플러스가 어떤 명상시스템인지 알게되어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거르지 않고 하루 한두 시간씩 수행해본 결과 지금은 5분이내에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에 도달하며 학생들이 주로 한다는 9번에서는 뚜렷하게 집중력이 향상됨을 느꼈다. 내친김에 오라진동쿠션과 백색광안경을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해본 결과(11번 지구에너지 명상, 17번 내적 즐거움, 19번 에너자이저) 역동적인 진동의 느낌과 함께 현란하기까지 하면서 환상적인 빛과 소리의 연속된 리듬은 빠른 시간 내에 사념을 통제하고 빛과 소리에 쉽게 집중시킴으로써 깊은 릴렉세이션과 명상상태를 유도하며 쌓였던 피로감마저 말끔히 씻어 주었다. 소승의 견지에서 볼 때 비만과 다이어트에도 메가플러스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어떤 심리학자는 비만이 되는 이유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스트레스라고 한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먹는 데서 찾는다고 하는데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반응에는 민감한 반면 자신의 내적(심리적) 공백상태를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기 때문이 무조건 습관적인 방어, 거부 등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이중, 삼중으로 받게 되고, 더불어 먹는 분위기에 휩싸여 방법모색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한다. 자,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자. 급변하는 21세기에 명상은 누구에게나 필요로 하는 수행이면서 당위인 것이다. 안내책자에는 메가플러스로 명상하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처음 명상하는 일반 직장인, 주부, 학생 등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현대사회의 공통되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빠른 시간 내에 릴렉세이션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쁜소식이라고 말하고 싶다."

<은담명상체험교실 종익 합장 · (031)742-9859>

메가플러스



메가플러스는 릴렉세이션, 학습, 수면, 그리고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창의력과 시각화 등 20가 프로그램을 내장, 다양한 명상체험 가능

〈미국 마이크로펌사 제품〉

오라진동쿠션



오라쿠션은 메가플러스와 함께 작동되며 이를 체감진동으로 변형시켜, 특히 육체수준의 명상, 기공과 차크라, 쿤달리니, 유체이탈, 무시간 상태경험을 보다 강력하게 증강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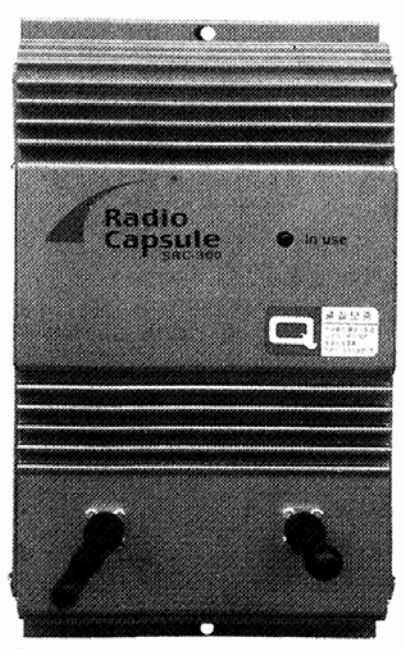
〈미국 오라시스템사 제품〉

메가플러스 색채 광안경

기본사양 : 녹색 광안경(재충전과 힐링)
옵 션 : 청색 광안경(릴렉세이션과 명상)
청색과 빨간색 혼합 광안경(기공과 차크라)
순백색 광안경(최고의 명상경험과 시각화)
※ 전화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우송해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상담 (02)888-2142

법회중 휴대폰 소음, 이제는 사라진다!





공공장소 전파차단기
래디오캡슐
SRC-300

법회 중 휴대전화 소음에 따증 나신적이 있읍니까?

법회 중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소리, "래디오 캡슐"이 반경 40M 내의 모든 휴대전화 통신을 차단하여 정숙한 부처님의 도량인 법당안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래디오 캡슐"이 정숙함을 지켜드리겠읍니다.

품질보증마크인 Q마크를 획득,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법당안의 정숙함을 보장할 것입니다.

상담 및 구입문의
02) 408-2313
주식회사 자사(JASACORPORATION)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5-2

우체국 계좌번호
014241-02-118536
예금주 : 한 경구

주부신행담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만났다 ㊦

교육원의 교육과정이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 동문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새롭게 정리한 것이 많았다. 규칙적인 수업시간은 해이해지기 쉬운 생각을 바로 잡아 주었고 과목마다 바뀌는 강사스님들과의 새로운 만남이 기대감과 재미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 신앙정진대회 중의 1080배며 졸업여행 등등이 순수한 동심과 불심을 찾아 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배어있는 못된 습관도 볼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인정하자니 가슴이 아팠지만 졸더 나은 나를 위해 자신에게 확인해 본다.

지금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생활 속에서 힘들고 당황할 때가 너무도 많고 나도 몰래 솟아 나오는 감정을 보면 억지로 가둬은 자신은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된다. 마음이 흔들린다고들 하지만 낙담 속에서도 엉킨 실타래 풀듯이 자신을 풀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응어리를 풀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번뇌 망상의 세계로 뛰어들어도 그 속에 들어가 젖어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심의 주춧돌을 마련했으니 고맙고 다행한 일이 아닌가 싶다.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그동안 교육원을 다녀가신 강사스님께 일심으로 합장하고 엎드려 삼배 올리니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함께 공부한 동문님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 낯설게 만나서 서로 얼굴을 익혀 가는 동안 나는 너무 많이 놀라고 너무도 많이 부끄럽다고 느꼈다. 가정과 교육원과 사찰을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닮아 가려고 노력했다. 향기로운 그들 속으로 불러들여 나를 머물게 한 부처님께 감사를 또 하고 싶다.

이와 같은 일을 기회로 여겨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불자님이 계시다면 어느 곳에 머물던 좋은 자리를 찾아 공부하기를 바라고 훌륭한 불자, 좋은 인연으로 거듭 나길 바란다.

몇 년전부터 '현대불교'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 대행 큰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에 주시는 불가사의한 묘법은 잔정한 불자의 길을 가는데 단비를 내려 주심이라 생각한다. 날짜는 기억에 없지만 어떤 불자의 질문에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전기 스위치를 콘센트에 꽂듯이 마음의 콘센트에 확실히 꽂으라는 말씀이 불자의 첫마음인 신심의 본바탕에 어둠을 환하게 밝혀내는 전기불의 밝음처럼 벅찬 기쁨을 느꼈다. 이 기쁨은 오래 지속되었고 지루하거나 나태함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고 좀더 강렬한 전자장을 가지게 되었다. 문득문득 콘센트에서 빠져 있는 스위치를 보지만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나는 불법을 잘 활용하고 있다. 식탁에서 여러 종류의 그릇을 이용하고 수저가 밥과 반찬을 옮기는 것처럼 말이다. 청소할 때 필요한 게 따로 있고 화분에 물줄 때 바가지보다 물뿌리개를 사용하면 물이 넘쳐남이 없이 뿌리로 잘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표가 없는 잡다한 일거리 때문에 힘이 들지만 짜증을 내기 전에 일심으로 하다보면 나도 몰래 집중력과 재미가 생겨나고 다른 복잡한 생각이 언제 떠났는지 편안함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는 이 복잡한 생각이 곧 번뇌요, 편안함이 곧 공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충실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점찍고 싶지 않다
다만 원망 적게 기쁨 많아지게 노력하며
일심으로 일을 하니 편안하고 재미있다

우리집은 아파트인데 큰딸이 대학에 가면서 비워진 방이 있다. 바로 비우면 섭섭하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어 해가 바뀐 뒤 한 벽에다 관음도를 모시고 기도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뭔지 모를 부끄럼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백팔대참회문을 보면서 정진하는 남편의 신심에 감동을 느끼면서 충만된 기도가 계속되어 갔다. 삼천배를 끝내고 다리를 끌면서 오는 남편은 다시한번 더 나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늘도 '나 절할까?' 하고 준비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의 아침은 시작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잘못을 보게 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아이의 잘못을 느끼게 하고 혼을 내야 되는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다. 저녁에 아이를 불러 충분한 얘기를 나눈 뒤 잘못에 대한 반성을 어떤 방법으로 풀지 생각을 말하게 하였다. 잠시 생각을 하던 아이는 백팔번 절을 하면 안되겠냐며 눈치를 보면서 제안을 했다. 삼천배의 참회기도는 끝이 났지만 초등학교 6년이면 13살인데 절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이에게 깊게 인식되어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싶어 마음속으로 흐뭇했다.

절에 갈 때는 아이를 자주 데리고 다니는데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것 같다. 토요일 오후에는 골굴사에서 선무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은 초보이지만 법당에서 스님의 구령에 맞춰 수련하는 모습은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아이가 수련하는 동안 나는 숲 속에 쏙 안겨서 지내는데 초저녁달은 하늘에 걸려 있고 이름 모를 새들은 열심히 노래하고 나는 관음굴에서 관세음보살을 목놓아 불러 보는데 땀방울 속으로 찾아드는 밤바람은 정말로 감미롭다. 아이의 덕을 본 셈이다. 남편과 나 그리고 아이들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부처님이 불법을 믿고 배우며 행하려고 노력하며 마침내 그 덕분으로 가기 위해 애쓰는 보통 불자다. 대문을 열고 들여다 본다면 어떤 집과도 다를 바 없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성내고 다투고 원망도 한다. 단지 애쓰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하고 성내고 원망하는 것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 점을 찍고 싶지 않을 뿐이다. 매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피어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주는데 그러면 기쁨은 몇배로 커지면서 확실한 믿음의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 이 믿음은 무명의 고통과 번뇌망상을 삭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사셨으며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신 분이다. 부처님이 보여주신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이다. 길을 몰라 안타까울 때 확실한 믿음의 안내자이다.

오늘도 부처님께 감사하고 큰 기쁨으로 느끼며 그의 세계로 들어가 참으로 대자유를 누리기 위해 두 손을 모은다.

이 기도가 끝나면 떨어져 공부를 하고 있는 두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내 딸 위"라고 보내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말이다. 딸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며 보내는 답장 메시지는 몇 번을 읽어도 좋다. 아들이 합숙수련 때 아침예불 후 명상시간에 참선을 하는데 일과중 가장 힘든 것이라고 하기에 푸는 생각하면서 명상시간을 보내느냐고 물어보니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 하나만으로 했다기에 웃은 적이 있다. 맑고 티없는 아들의 화두라 생각했다. 나도 아들처럼 해본다.

김민희(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그림 · 이준석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 소재 : 황동(순금도금) ■ 직경 : 80mm ■ 가격 : 5만원
■ 판매 : 인터넷 불교 대화점 마하몰 ■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기족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리빙스톤 "요람 침대" (맥반석, 옥 물침대)
낮에 최선을 다 하셨으니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희망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편안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특징
1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2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3 유해전자파, 수맥파괴, 핀드기 공포에서 완전 해방
4 침대 바닥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5 www.kipa.org 특허기술정보 클릭
▶검색어 (물황토침대)
실용신안 등록 (제0189126)
성능증명출원(제20-2124)
자매품 원적외선 BIO물침대
자매품 게르마늄 물침대
리빙스톤
본사 · A/S : 02)424-9427, 2203-7821

신시대(新時代) 신세대(新世代)를 위한 신행수첩!
진작에 이런 경전이 나왔어야 했다.
선물용(膳物用)으로 최적(最適)!
■ 시스템 다이어리식으로 기획 · 제작되었다.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하다.
■ 불자(佛子)들이 원하는 내용은 거의 망라되었다.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에 인쇄되었다.
- YUPO지에 인쇄되었다.
■ 가로쓰기에 내용이 미려하다.
- 원색인쇄를 했다.
■ 중요내용을 찾기가 아주쉽다.
- P.V.C. 인덱스를 다섯부분으로 배치하였다.
■ 법당에서 독송하기 편하다.
■ 신행생활(信行生活)에 유익한 공간이 기획 되었다.
- 신행생활(信行生活)과 성지참배기(聖地參拜記)를 요약기록할 수 있다.
■ 내용을 재구성 하기가 편리하다.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할 수 있다.
물에 젖지도 않고 잘 찢어 지지 않는 특수지에 원색인쇄로 미려하게 인쇄했다.
肇元企劃 TEL. 02)3492-4886 H.P. 017-742-8815 정가:25,000원